

교육방송  
46년,  
EBS  
공사창립  
20년사



**교육방송  
46년,  
EBS  
공사창립  
20년사**

HISTORY  
OF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1974  
2020**

---

## Reference notes

- 이 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작되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 20주년은 2020년입니다. 그러나 약 2년에 걸쳐 정확한 사료 취합 및 분석을 진행한 후 2022년에 발간하였습니다.
- 원고 및 데이터 수록 시기는 교육방송의 시작인 1951년부터 공사 창립 20주년인 2020년까지입니다. 단, EBS 역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사건 및 데이터의 경우 2021년 자료도 첨가하였습니다.
- 이 자료는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일부 용어의 경우 업계 및 EBS 통용어를 적용하였습니다.

---

## Summary

- 이 자료는 크게 약사와 부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약사는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방송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부문사에는 EBS 7대 부문에 대한 역사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7대 부문은 미디어, 법제, 편성 방향 및 프로그램, 학교교육 보완, 경영, 사업, 사회공헌 등입니다.
- 그 외에도 <화보로 보는 EBS 프로그램>, 과거 EBS의 손때가 묻은 물품을 시각화한 <EBS 뮤지엄>, EBS의 각종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가 구성되어 기록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교육방송 46년, EBS 공사창립 20년의 기록





시베리아, 잃어버린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1998









한국의 파충류, 1996



개미, 2001



바람의魂魄, 참매, 2009









아이의 사생활, 2008



아기성장보고서, 2002



문명과 수학, 2011









한반도의 공룡, 2008



齊昭皇

불멸의 진시황, 2017









학교란 무엇인가, 2014



시험, 2015



대학입시의 진실, 2017





명동백작, 2004



언제나 푸른 마음, 1994



감성세대, 1996





























뽀로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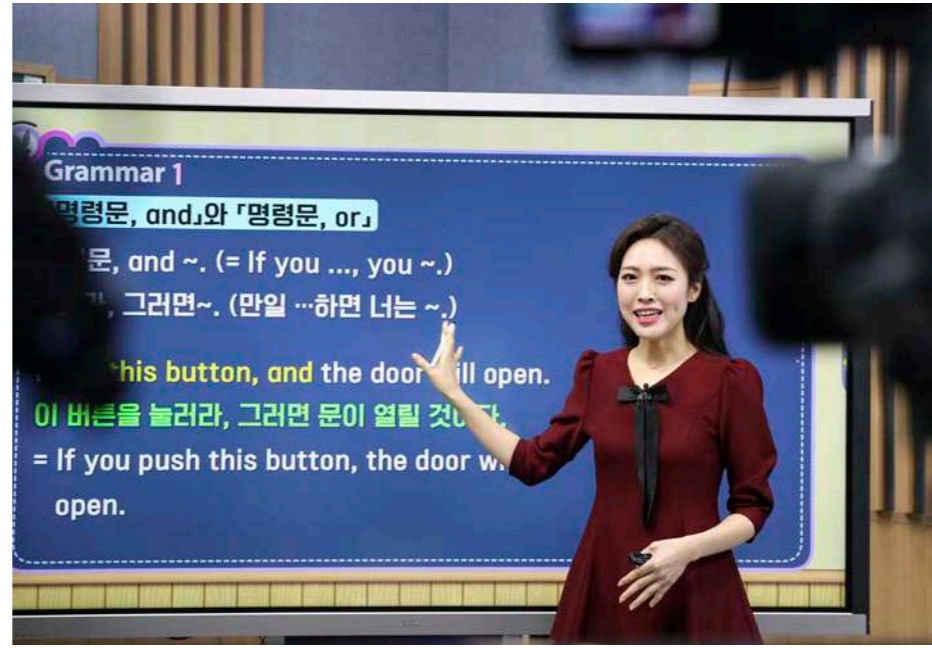


방귀대장 뽕뽕이, 2000



번개맨, 2000









EBS



EBS





## 길을 비추는 빛으로, 날을 밝히는 여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 공백이 이어지는 국가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현실이지만, EBS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EBS만이 이룰 수 있는 '공교육 보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EBS 출범 이래로, 늘 부족했던 재원과 인력, 열악했던 제작 여건 등은 이곳에 몸담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열성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격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EBS가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배어있는 저력을 살펴보기 위해 EBS의 역사를 담아내는 사사(社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사를 되짚어보니, EBS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항상 민감하게 감지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도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위기가 기회였고, 새로운 시도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EBS의 전통이자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공영방송'으로서 EBS는 오랫동안 가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등불로 존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전진하는 EBS'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EBS에 많은 격려와 지지, 따뜻한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따뜻한 봄날 앞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명중





**김명중 사장 발간사**

‘길을 비추는 빛으로, 날을 밝히는 여명으로’

**약사 Brief History 47**

-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 1990 EBS 개국
- 1997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 2000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 2004 EBSi 인터넷 수능강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2010 수능 70% 연계,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2012 플랫폼 다변화 추구
- 2015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 EBS 2TV 개국
- 2017 디지털통합사옥 시대 개막
- 2020 세계 최초 팬데믹 시대의 학습 보완

**EBS Museum 92**

기억의 소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부문사 History by Theme 107**

**1장 미디어**

-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EBS의 성장
- 2. EBS 방송 기술의 진화

**2장 법제**

- 1. 법제화와 법제도의 변화
- 2. 방송법 및 관련법의 변천

**3장 편성 방향 및 프로그램**

- 1. 유아·어린이
- 2. 애니메이션
- 3. 다큐멘터리
- 4. 평생교육
- 5. 라디오
- 6. 뉴스

**4장 학교교육 보완**

- 1. 방송을 통한 공교육 보완
- 2. 선도적인 e-러닝의 도입과 성장
- 3.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

**5장 경영**

- 1. 예산 및 운영
- 2. 조직
- 3. 인력
- 4.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과 인프라 확충

**6장 사업**

- 1. 출판 및 광고 사업
- 2. 콘텐츠 및 캐릭터 사업
- 3. 인터넷 기반 사업
- 4. 글로벌 사업

**7장 사회공헌 및 공적 책무**

- 1. 공교육 지원
- 2. 사회공동체 회복 및 나눔 문화 확산

**EBS Archive 317**

- 임원 및 이사회
- EBS 기본 방송 순서
- 주요 조직도 변천
- 연표





PART

# 1

**EBS**  
약사  
Brief  
History



##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개조된 버스학교 안에서 수업하는 장면이다. © 국가기록원

### 전쟁 중 라디오 방송으로 학교교육 시작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18일 방송된 <라디오학교>에서 시작된다. 문교부 기술교육국의 주도로 매일 아침 9시부터 15분 동안 방송되었다. 전쟁 중이었기에 어려움은 컸으나 교육을 통한 방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라디오학교>는 30분으로 시간을 늘려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각종 제도를 통해 보완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라디오 수신기 부족, 예산 및 인력 등으로 1962년 8월 19일 방송은 중단되었다.

### TV학교방송의 시작

이 무렵, TV를 통한 학교방송도 시작되었다. 1956년 8월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인 KORCAD의 HLKZ TV가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라디오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방송도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당시 TV 수상기가 300대밖에 되지 않아 광고 등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1969년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방송 시승특집>이 시작되었다.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제작을, KBS가 송출을 담당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 교육방송 설치 법제화

1972년 8월 종합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설립되었다. 이듬해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여기에 교육전문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방송에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시설과 송신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창립 당시, KEDI는 원장 밑에 2부원장(연구, 운영) 체제였는데, 운영 부원장 밑에 기술지원국을 두었다. 그 아래에는 방송편성실, 방송제작실, 방송기술실, 송신소 등을 설치해 교육방송 체제까지 갖추었다.

\* 서울중앙방송국과 시청각교육신문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학교의 학교방송 이용도 조사 결과’, 654개 국민학교 중 16%만 방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1962. 06. 20.



##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74년 5월 14일에 진행된 우면동 교육방송국 청사 기공식.  
약 1년의 공사 끝에 1975년 9월 27일부터 방송 제작이  
시작되었다.

### KEDI의 <라디오학교> 인수

교육방송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TV 보급이나 예산 부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교부와 문공부는 논의 끝에 KEDI를 통해 교육방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외국 차관 도입으로 예산 문제 해결
- T-COM 방식(기구를 통한 전파 방송)\*\*으로 자체 송출 추진
- 기존의 <라디오학교>를 KEDI가 인수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74년 3월 27일 KEDI는 <라디오학교>를 인수했다. 뒤이어 4월 1일부터 KEDI는 하루 3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이 방송은 KBS를 통해 송출되었다.

### 한국 최초의 컬러TV 방송

KEDI는 방송 시작과 함께 시설 구축을 시작했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컬러 교육방송을 하려면 스튜디오와 송신소가 필수적이었다. KEDI는 서울 우면동 산20-1과 충북 제천에 부지를 마련, 청사 및 송신소 건설을 시작했다. 1975년 8월 31일에는 우면동 청사가, 12월 15일에는 봉양송신소가 완공되었다. 청사 뒷산에는 57m 높이의 송신철타도 세우면서 본격적인 우면동 시대를 열었다.

한편, 컬러TV 방송 준비도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1975년 12월 13일, 한국 최초의 컬러TV 시범 방송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안양서국민학교에서 첫 공개수업이 진행되었는데, 3학년 도덕과 5학년 산수 과목이 각각 15분 분량으로 방송되었다. 컬러TV 시범방송은 서울 시내 15개 국민학교로 확대되어 성공을 거두었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다. 강풍이나 폭설 상황에서는 방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T-COM 방식의 방송 송출은 1977년 종료되고 말았다.\*\*\*

\* 1969년 문교부가 보급한 1,000대의 수상기로 출발한 학교방송은 현재까지 전국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4,000여 대의 수상기를 보급하고 - 동아일보, 1973. 04. 05.

\*\*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T-COM(Tethered Communication) 방식은 견인 로프로 지상 3km 상공에 기구를 띄워 극초단파를 지상으로 발사하는 방송 형식이었다.

\*\*\* KEDI는 사업 실패에 따라 총액 1,308만 달러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배상금은 KEDI가 아닌 KBS로 이관되어 KBS의 컬러TV 방송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1



2



1. 1973년 12월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현박리에 설치된 티콤 송신소 이곳에서 발사된 전파는 기구형 송신장비를 거쳐 학교 및 가정으로 전해졌다.

2. TV 프로그램용 전국 송신 장치인 티콤 기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자회사인 티콤은 3Km 상공의 기구에 극초단파를 발사하는 방식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컬러TV 방송이었다는 점, 향후 컬러TV 방송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방송 삼원화 조치와 교육 전담 채널

T-COM 방식의 송출이 실패하자 다른 방안이 필요했다. KEDI는 스스로 제작한 시청각 교재 활용과 독자적인 송출을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업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1978년 정부는 교육방송의 역할을 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 교육방송 기본편성권 : 교육방송 심의위원회
- 세부편성 및 제작 : KEDI
- 방송 송출 : KBS

삼원화 방침에 따라 1978년 10월,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데 이어 애써 마련했던 각종 송출 장비를 KBS로 이관해야 했다.

한편, 그 무렵 국내 사교육의 폐해는 갈수록 커졌다. ‘망국병’이라는 별칭까지 생길 정도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공부와 KBS는 <TV가정고교> 방송을 매일 90분 진행했다. 그래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과외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현행 <TV가정고교> 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 시간과 대상 과목을 늘린다.
- 1981년부터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

1980년 9월 1일, 정부는 TV를 통한 보충수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KBS가 맡았던 <TV가정고교>를 KEDI로 이관했다. 방송은 KBS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곧 MBC 채널

\* KBS는 약 5년 뒤인 1980년 12월 1일부터 컬러TV 방송을 시작했으며, MBC는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컬러 TV 방송을 개시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분석한 실태 자료에 의하면, 과외비용이 문교부 예산 8,763억 원(1979년 기준)보다 많은 1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1980. 04. 23.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로도 확대되었다.

한편, 당시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교육전담 채널의 신설이었다. 극초단파인 UHF\* 채널을 통해 교육방송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전담 채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KEDI와 KBS가 50:50 비중으로 프로그램 제작
- KEDI는 유아 및 학교방송, KBS는 성인 및 일반교양 프로그램
- KBS가 교육전용 채널인 제3TV(UHF-TV), FM 라디오 신설

1981년 2월, UHF(TV)와 FM(라디오)을 통한 교육방송이 시작되었다. KEDI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KBS 제3TV와 KBS 제2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것이다. 교육 전용 채널이 등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 TV를 통한 가정학습

1980년대 후반까지 KEDI는 <TV고교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금지된 과외를 충실히 대체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은 훨씬 컸음에도 제작 여건은 그대로였다. 1984년 교육방송의 방송 제작 예산만 보더라도, KBS에 교육방송용으로 배당된 예산(90억 원)의 7.78% 수준인 7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국내 교육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8년 제6공화국이 등장하자 그간 억눌렸던 사교육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학력 저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과외 허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KEDI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미리 서한샘, 이광용 등 당시 학원가의 최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1989년 2월 정부는 과외 허용을 발표했고, 약 두 달 후인 1989년 4월, KEDI 교육방송본부에서 제작한 <TV고교가정학습>이 KBS 제3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방송 시청을 위해 TV와 VTR이 품귀 현상을 겪었고 방송 교재는 매진되기 일쑤였다. <TV고교가정학습>의 성공은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독립된 교육방송국 설립 논의에도 불씨를 지폈다.

\* 극초단파인 UHF(Ultra High Frequency)는 초단파인 VHF(Very High Frequency)보다 소리와 화질이 깨끗하지만, 원거리나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1



2



3



4



1. TV 프로그램 제작 모습.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어린이 프로그램 녹화 현장이다. 예산 문제로 생방송이나 현장방송은 쉽지 않았다.
3. 1980년대 초반 부조정실. 이 시기에는 KEDI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KBS 제3TV와 KBS 제2라디오를 통해 송출했다.

2.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라디오 교육방송 공개녹음 현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4. 1989년 과외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TV를 통한 교육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시기에 크게 인기를 모은 <TV고교가정학습> 방송 녹화 현장.



## 1990 EBS 개국



1990년 12월 27일, 마침내 EBS교육방송이 개국했다.  
EBS TV는 채널 13번, EBS FM 주파수는 104.5MHz였다.

### 방송구조 개편

TV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립된 교육전담방송 요구는 1980년대 내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문공부와 KBS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과외 허용 등 정부 정책이 바뀌자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방송공사 설립 움직임은 급물살을 탔다.

- 1989년 8월 KEDI와 문교부 기초안 제출 \_ 교육방송국 설립 및 종일 방송
- 1989년 11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발의
- 1990년 3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수정안 국회 제출

그러나 교육방송 독립 및 공사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중단되고 말았다. KBS 방송민주화투쟁을 필두로 방송구조 개편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1990년 6월 공보처는 새 방송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칭) 설립은 백지화되었고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다.

- KBS 제3TV를 교육방송으로 독립
- 편성권 : 문교부, 프로그램 제작 : KEDI, 송출 : KBS

1990년 7월, 관련 방송법안이 통과되었고, 교육방송의 완전한 독립을 촉구했던 교육계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 공식 출범

1990년 1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 EBS가 출범했다. 기념행사는 서울 우면동 KEDI 청사에서 열렸다. EBS는 TV와 FM 라디오 등 2개의 독립 채널을 자체 보유하게 되었다.\* KBS 이름 아래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EBS 로고로 전파를 타게 되었다. 방송시간도 대폭 늘어났다. TV가 1일 4시간 20분에서 10시간으로, 라디오가 1일 4시간에서 20시

\* 개국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AM 라디오는 채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 AM 라디오는 1991년 9월부터 방송되었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1. 1991년 11월 1일, EBS는 숙원이었던 자체 송출을 시작했다. 이로써 KBS 송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방송장비 개선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2. 자체 송출 기념행사 이후 우면동청사에서 첫 송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C스튜디오 준공, 우면동 주조종실-관악송신소 망 신설 등 큰 변화가 뒤따랐다.

간으로 확대되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교육방송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편 정부의 교육방송 제작 기능의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제작 인력도 EBS로 이관되었다.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방송통신교육 모두를 담당하게 되었다.

### 자체 송출의 시작

EBS 개국은 큰 변화를 초래했다. 방송 시간이 크게 늘어났으며 자체 송출도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EBS는 방송 인력 확보와 방송 설비 구축에 매진했다. 당시 도입 및 개선된 방송 설비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자체 송출 시스템을 위한 주조정실 및 부조정실,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70m 송신탑 구축
- 주조정실과 연결되는 TV 중계차 2대, FM, AM 현지 중계를 위한 라디오 중계차 1대 제작·도입

1991년 11월, EBS는 오랜 염원이었던 자체 송출을 시작했다. 1977년 8월 T-COM 사업 실패 이후 14년 만의 송출이었다. TV 호출부호는 HLQK-TV였으며, FM 라디오 호출부호는 HLQL-FM이었다.

### 지속되는 문제와 각종 대책

EBS 출범 이후 방송 시설은 개선되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EBS의 1년 전체 예산이 타 방송사의 대하드라마 1편 예산과 비슷할 정도였다. 교육방송을 충실히 제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 1992년 기관발전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독립 공사화 건의
- 1993년 EBS 위상정립 추진 실무기획단 구성 및 방송구조개편안 초안 발표
- 1994년 EBS 공사 추진 실무위원단 구성 및 공사화 보고서 제출

여러 논의 속에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및 방송개발원은 EBS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1994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청원안’ 마련,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무공해 방송 교육방송 살리기 운동’ 등이 전개되었지만 뜻한 바는 이루지 못했다. 결국 개국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4주년인 1994년 12월, 임직원들은 4일 동안 파업을 전개했다. 이후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난항은 반복되었다.

- 1995년 1월 \_ ‘교육방송제도개선협의회’ 개최(EBS와 KBS의 통합안 채택)
- EBS, KBS, MBC, CBS 등의 방송사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
- 1995년 4월 \_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모임’ 결성

미온적인 대책, 이에 대한 여론의 반대 등이 반복되자, 정부는 새로운 대책이 담긴 <한국교육방송원법>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
-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 및 교육방송 실시 등의 업무 수행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공사 설립이었지만 공사법을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EBS 구성원들은 KEDI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이라는 데 의의를 두어야 했다.



2



3



4



1. 1994년 2월 28일 개최된 공영방송 발전 방향 토론회. EBS와 교육방송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EBS 임직원들은 교육방송 살리기운동을 전개했다. 1994년 12월 27일.

2. ‘교육방송은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방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은 공사 설립을 촉구했다. 1993년 신문광고.
4. 임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EBS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1994년 12월 2일.



## 1997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이 출범했다. 이로써 KEDI 부설 교육방송에서 벗어나 새 독립기관 전환의 원년을 맞이했다. 사진은 3월 26일에 개최된 현판식 장면이다.

### 새로운 독립기관의 출현

1997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원이 정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KEDI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까지 이관되어 넘어왔다. 이로써 한국교육방송원은 부설기관으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를 두게 되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KEDI 부설 교육방송에서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맞이했다. 무엇보다 편성 독립을 이룩했다는 점도 큰 변화였다. 게다가 1997년 3월부터 오전방송이 가능해지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 이전의 방송 : 16:30-01:00
- 이후의 방송 : 09:00-12:00, 16:30-01:00

비록 시간은 3시간 추가에 불과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컸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EBS 방송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오전 시간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의 학습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되었다. 대신 오후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가능해졌다.

### 위성방송(위성 1, 2TV) 개국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 최초의 위성 발사가 성공을 거둔 덕분이었다. 역사적으로 난시청, 화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EBS는 누구보다 이른 시기부터 위성방송에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전개했다.

- 1995년 11월 \_ 위성방송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95년 12월~1996년 6월 \_ 위성방송(DBS)\* 시험방송 시행

특히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독립한 이후부터 위성방송 시스템 구축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전파 송출 허가 취득, 공청회 개최에 이어 상업 광고방송까지 허가받았다. 비록 다른 방송사보다 엄격한 제약이 따랐지만, 자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열렸다.

마침내 1997년 8월 25일, EBS는 위성방송을 개국했다. 위성 1TV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2TV

\*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는 직접방송위성을 말한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해 2개의 채널을 갖게 되었다. 뒤따라 9월 2일부터는 위성방송 재원을 위한 TV 광고방송이 시행되었다.

- 방송시간 : 위성 1TV \_ 주당 52시간 30분, 위성 2TV \_ 주당 53시간 30분

사교육비 절감과 새로운 교육 여건 마련, 첨단 교육 선도라는 목표 아래 위성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 교육방송 정상화의 노력

한국교육방송원 설립은 교육방송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해 쟁취한 결과였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인력, 예산 증대가 필수적이었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되었다. 오전방송 시행, 2개의 위성방송 채널 신설 등 방송의 양은 크게 늘어났지만 인력, 공간, 예산은 그대로였다. 도저히 방송을 제작할 상황이 아니었다.

1997년 8월 28일, 위성방송을 시작한 4일 후부터 ‘교육방송 완전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처우 개선 목적이 아니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인력 충원, 청사 공간 확보 등이 핵심이었다. 파업은 무려 48일 동안 진행되었다. 방송계 최장기 파업의 기록이었다. 정치권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EBS 공사화를 공약화했던 새 정부가 1998년에 들어서면서 공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산적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공사화뿐이었다.

EBS의 파행 운영을 더 이상 둘 수 없었던 정치권은 1999년 12월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였다.

한편, 한국교육방송원의 부설기관인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가 1999년 4월 22일 분리·독립되었다. 이어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KRIC)와 통합되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 거듭났다. 나이스(NEIS)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중요한 기관의 모태가 된 일이었다.



한국교육방송원 설립에 이어 1997년 8월 25일에는 EBS 위성방송을 개국했다. 채널은 두 개로 위성 1TV와 위성 2TV로 운영되었다.



## 2000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교육계와 EBS 임직원들의 오랜 열망 끝에 2000년 6월, 마침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출범했다. 2000년 6월 22일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 현판식

### 관련 법령 제정

2000년 1월 1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교육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
-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
- 공사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
-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

### 한국교육방송공사, 새로운 출발

마침내 2000년 6월 22일, 서울 우면동 청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현판식과 함께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EBS는 공사창립 특집 프로그램 등을 대거 편성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편, 공사 창립 이후인 2000년 12월 EBS는 인터넷방송을 개국하면서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VOD, AOD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EBS는 TV와 라디오, 위성에 이어 인터넷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 2004 EBSi 인터넷 수능강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EBS 강의와 수능 연계정책을 발표했다. 2005년에 열린 EBSi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

### EBS 강의와 수능 연계

2000년대 초반부터 전체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20% 이상이나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EBS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9월 'EBS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정부에 보고했다. EBS를 활용할 경우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7,000억 원 규모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부도 2004년 2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EBS 방송 내실화와 사이버 교육 강화, 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이 대표 정책이었다. 그중 핵심은 EBS 수능강의였다. 교육부총리가 직접 'EBS 강의만으로도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수능강의를 요청했으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원활한 강의를 하려면 세계 최초이자 최대인 e러닝 시스템이 필요했다. EBS는 처음에 5만 명 동시 접속을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10만 명 접속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EBS가 추진한 일은 다음과 같았다.

- CDN\* 서비스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추가 회선 확보, 서버 등 하드웨어 용량
- 사용자 서비스 인력 등의 대폭 증대
- 국내 최고의 강사진 확보 및 커리큘럼 확정
- 방송 제작과 이에 대한 감수

2004년 4월 1일 새벽 2시, 'EBSi 수능강의 [www.ebsi.co.kr](http://www.ebsi.co.kr)'가 시작되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추진된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였다. 오픈 이후 EBS의 e러닝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외국의 정부 관계자가 방한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99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
- 한 달 만에 온라인 중·고 학습 분야에서 사이트 점유율 1위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장비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 새 콘텐츠, 새 기술이 접목된 교육채널

2000년대 이후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방송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졌다. EBS도 신기술 및 콘텐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먼저 2002년 3월에는 기존의 위성 방송을, 디지털 위성방송으로 개선했다. 이전까지 사용하던 ‘EBS 위성 1TV, 2TV’라는 채널명도 ‘EBS 플러스 1, 플러스 2’로 바꾸었다.

2005년 7월에는 ‘EBSu’라는 이름으로 위성 DMB\* 방송을 시작했다. 수능방송은 물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도 선별해 방송했다. 이 채널은 가입비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2006년 7월에는 ‘폴 인 랭귀지(Fall in Language)’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어 학습 전문 사이트인 ‘EBSlang [www.ebslang.co.kr](http://www.ebslang.co.kr)’을 오픈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 6개 외국어 학습이 가능했다. 2006년 말에는 12개 외국어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매출이 460%나 급신장했다.

2000년대 이후,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관련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커졌다. EBS는 사교육 문제 해결과 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 개국’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영어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목표 아래 2007년 4월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했다. 기존 ‘EBS 플러스 3’을 개편해 하루 18시간 동안 방송했다.

이와 동시에 EBS는 초·중학 대상으로 무료 영어학습 사이트인 ‘EBSe [www.ebse.co.kr](http://www.ebse.co.kr)’도 같은 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성TV의 제한적인 시청자층 한계를 인터넷으로 보완하고, e러닝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IPTV\*\*를 통한 실시간 방송도 시작되었다. 이로써 전파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TV가 아니라 모니터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EBS는 이에 그치지 않고 IPTV 기반의 ‘EBS 디지털 커리큘럼’ 서비스를 시작했다. 20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 자료와 10만 개의 학습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는 교수 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형 학습 시스템을 제공했다.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지상파와 위성파로 구분되며, 차량 단말기나 휴대폰 등을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의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방송이다.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전파 대신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이다.

1



2



3



1. 수능 강의 생방송 현장. 2004년 이후부터 수능 방송은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
2. 2005년 9월 5일, 위성 DMB 채널인 EBSu가 출범했다. 수능 방송과 유아·어린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EBS는 영어 교육을 위한 방송 제작에도 힘을 기울였다. 2007년 4월 6일에는 영어 교육 전문 방송인 ‘EBS English’를 개국했다.



## 2010 수능 70% 연계,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2010년 정부는 사교육 병폐를 줄이기 위해 수능 문제와 EBS 강의 70% 연계 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 7월 26일 열린 수능 현장강의 출정식

### 급등하는 사교육비, EBS의 정책 제안

2010년 3월, EBS는 교과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과 'EBS 수능강의 대입 연계 강화 MOU'를 체결했다.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에 EBS의 교육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해마다 사교육비는 급등했고 이로 인해 공교육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EBS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교과부, 방통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제시했다. 2009년 10월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사진 선호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가 높은 스타강사를 영입했다.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주어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정부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한편, 그해 11월 지상파 3사를 통한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EBS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한 뒤,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 수능시험에 EBS 강의 및 교재 관련 내용을 70% 이상 반영한다.

### 공교육 보완의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EBS는 '수능 70% 연계 정책'에 대응해 사교육과의 전쟁 일선에 나섰다. 국민에게 'EBS와 함께라면, EBS를 통하면' 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순회 입시정보설명회 137회, EBS 수능강의 활용 설명회 15회 개최 등으로 정보에 목마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BS 집필진과 KICE 감수위원 간의 공동연수 프로그램, 교재 공모제, 문항 공모제 등도 시행해 더욱 우수한 수능 교재가 발간되도록 했다.

대대적인 변화를 준 수능강의 콘텐츠는 2010년에만 총 2만 7,979편이 제작되었는데 강좌 수만 1,283강에 달했다.



## 2012 플랫폼 다변화 추구



EBS는 미디어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플랫폼 확보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과 공동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 11월 2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MOU 체결

### EBS의 플랫폼 혁신

2011년 6월, EBS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의 조직 변경에는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콘텐츠 기반의 융합미디어'라는 목표 아래 '고객', '서비스', '콘텐츠'의 개념을 국내 방송사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EBS는 이러한 방침과 조직개편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다양한 플랫폼 진출 등을 추진했다.

우선 국내 유명 포털 다음과 2012년 5월에 제휴를 맺고 여러 플랫폼 경로를 확보했다. 'EBS 지식'에는 약 3,500여 편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Daum TV+'에서는 약 1,000여 편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다.

- 2012년 \_ 수학능력시험 관련 프로그램 다음 포털에 생중계
- 2012년 \_ 다음 포털에 동영상 서비스 'EBS 지식' 론칭
- 2013년 \_ 국내 최초의 포털 스마트TV 플랫폼인 'Daum TV+' 론칭

2012년 9월에는 타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N스크린\* 'POOQ'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인터넷, 모바일, 태블릿 PC 등을 통해 EBS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2012년 11월에는 구글과 협력하여 유튜브에 EBS 기본 채널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3년 2월부터 EBS 공식 채널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한류'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러한 EBS의 앞선 혁신은 다음과 같은 원동력 덕분에 가능했다.

- 불안한 재원 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
- 스마트 시대에 발맞춘 발상의 전환
-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갈구하는 자세

\* N스크린(N-screen)은 하나의 콘텐츠를 TV, PC, 스마트폰, 패블릿,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EBSu와 EBSMath의 시작

EBS는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 속에서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지향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7월 2일 유아·어린이 교육전문채널 ‘EBSu’를 개국했다. 위성 DMB 채널인 EBSu의 성격과 명칭 등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를 통해 PP 채널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였다.

- 슬로건 : 아이의 눈높이로! 엄마의 마음으로!
- 특성 : 3세-14세 어린이와 부모 대상의 종합교육채널
- 편성 : 애니메이션 50%, 드라마 등 어린이 청소년 교육 25%, 부모 교육 25%

2013년 3월 14일에는 국내 처음으로 수학교육 전문사이트 ‘EBSMath [www.ebsmath.co.kr](http://www.ebsmath.co.kr)’를 오픈했다. 원주율 값( $\pi=3.14159\dots$ )을 연상시키는 ‘파이( $\pi$ ) 데이’에 맞춘 것이다. 그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수학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EBSMath’는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탄생했다.

- 특성 : 공식 외우기와 반복된 문제 풀이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에서 탈피
- 구성 : 클립형 동영상 콘텐츠, 인터랙티브형 콘텐츠, 웹툰형 콘텐츠 등

‘EBSMath’는 학생은 물론,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수 스타일에 맞게 콘텐츠를 재구성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사이트 누적 페이지뷰는 350만 건을 돌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시청자 중심의 방송을 추구한 EBS는 유아 어린이 전문채널을 개국했다. 2012년 7월 2일



## 2015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 EBS 2TV 개국



EBS는 지역이나 소득과 상관 없는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인 EBS 2TV를 개국했다. 2015년 2월 11일

### 보편적 무료 시청권 확대를 위해

2015년 2월 11일, 국내 최초의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인 EBS 2TV가 첫선을 보였다. 또 하나의 지상파 채널을 확보한 순간이었으며, 지상파의 한정된 주파수를 압축해 쪼갤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 탄생한 쾌거였다. 무료 다채널방송을 통해 지역별·소득별 격차 없는 무료 보편적 교육 복지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EBS 2TV 개국까지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했다.

- 2006년 6월 \_ 방송위원회, 다채널 서비스 실험방송 허용
- 2010년 12월 \_ EBS를 비롯한 지상파 4사 '시청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

EBS는 이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개의 무료 다채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무료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꾸준히 펼쳤다.

한편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TV 시대가 개막했다. 이듬해 5월에는 방통위가 다음과 같이 MMS 정책을 밝혔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EBS 채널을 의무 재전송하는 방안 추진
- MMS 허용 시, EBS에 우선권 부여

2014년 1월, EBS는 '지상파 MMS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약 3개월에 걸쳐 충실한 보완 작업을 마쳤다. 이후 최초의 MMS인 EBS 2TV가 개국한 것이다.

EBS 2TV는 기존 EBS 1TV의 10-1번과 별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10-2번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였다. 다채널방송의 공적 취지에 맞게 공익광고를 제외한 상업광고는 내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EBS는 다채널 시대를 맞이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명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 발판을 마련했다.

\* MMS(Multi Mode Service)는 데이터 압축 기술을 통해 현재의 1개 방송 주파수 대역(6MHz)을 여러 개로 나눠 HD 채널 이외에 SD급과 오디오-데이터 채널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 EBS 모델 수출, 베트남 교육채널 VTV7 개국

2010년대 이후 EBS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중국 방송사에 <모여라 덩둥둥> 포맷을 수출했으며 베트남, 태국 등 세계 각 방송사들의 협조 요청이 이어졌다. 'EBS는 세계 유일의 모델'로 무려 9개 국가 관계자들이 도곡동을 찾았다. 그중 베트남 국영방송사 VTV로의 모델 수출이 추진되었다. 베트남은 ICT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교육열도 높았기 때문이다.

- 2014년 4월 \_ 베트남 국영방송사 VTV, 민영기업 AIC와 교류 협약 체결
- 2014년 7월 \_ 기술 지원, 신규 론칭을 위한 컨설팅, 인력 연수 진행
- 2015년 11월 \_ 베트남 국영 교육방송 VTV7 시험방송

VTV7은 평일 기준으로 1시간 30분의 타임블록 편성으로 EBS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30시간의 애니메이션을 패키지로 구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1일, VTV7은 본방송을 시작했다. EBS 설립 모델의 해외 진출 첫 성공 사례였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덕분에 칠레 등 다른 개도국의 요청도 이어졌다. EBS 모델 수출은 프로그램의 수출로 이어져 수익 창출에도 기여했다.

1



2



1. EBS 2TV 개국기념 방송.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라는 EBS 2TV 설립 목적을 강조했다.

2. 2016년 1월 1일, EBS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외국 방송 채널이 탄생했다. EBS와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가 협력하여 개국한 VTV7이 그것이다.



## 2017 디지털통합사옥 시대 개막



2017년 2월, EBS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통합사옥이 완공되었다.  
이 사옥은 디지털 기반의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2017년 8월 송출 개시 모습

### 통합사옥 추진 과정

EBS의 숙원 가운데 하나는 통합사옥 건립이었다. 도곡동 사옥, 우면동 방송센터 등은 모두 비좁았고 5곳으로 인력이 분산 배치되어 효율성이 부족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통합사옥준비단이 출범했다. 이후 부지 물색에 나선 끝에 일산 한류월드 제3구역으로 부지를 정했다. 2009년 6월, EBS는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했다.

- 2011년 6월 \_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한류월드 내 'EBS 통합사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 2012년 12월 \_ 사옥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 10억 원 출자, 자본금 150억 원 신규 편성
- 2013년 11월 \_ 통합사옥 기본설계 최종 완료
- 2014년 8월 \_ EBS 디지털 통합사옥 기공식 개최

이후 약 3년의 공사 끝에 2017년 2월, 통합사옥이 완공되었다. 건물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 주소 \_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
- 면적 \_ 대지 면적 1만 4,836㎡(4,488평), 건축 연면적 6만 1,375.41㎡(18,566평)
- 규모 \_ 지하 3층, 지상 20층, 최고 높이 98.6m

통합사옥은 외형과 규모도 차원이 달랐으나 시스템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콘텐츠는 디지털화되었고 파일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도곡동과 우면동에 분리되어 있던 스튜디오도 모두 통합되었다. 수능교육 콘텐츠 전용 스튜디오 등도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도 갖추었다. 자체 기술력으로 송출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주조정실에서 지상파TV와 위성채널 송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었다.

2017년 8월 14일 새벽 4시 46분,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에서 첫 전파가 발사되면서 'EBS 일산시대'가 시작되었다.

###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 사이트 오픈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과목을 초·중·고 전체에 도입하기로 했다. EBS도 이에 대응해 2019년 1월, '이숲 [www.ebssw.kr](http://www.ebssw.kr)' 사이트를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론칭했다. 이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 유아에서 학생, 어르신까지 맞춤형으로 학습 가능
- 누구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공자(크리에이터)와 학습자로 참여
- 학교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 함께 실습이 가능한 플랫폼
- 교사가 직접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 단계별 자료 제공

EBS는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앞서 나갔다.



1.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에서 첫 전파가 발사되었다. 2017년 8월 14일의 일이었다.

2. 일산 디지털통합사옥 옥상에 설치된 송출 안테나와 장비들



## 2020 세계 최초 팬데믹 시대의 학습 보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공교육의 큰 위기였다. EBS는 이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2020년 4월 6일 초·중학 전문학습 채널 출범

### 온라인클래스로 공교육 지원

2020년 초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습격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Pandemic)이 선포되었다. 학생들의 개학이 여러 번 연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EBS는 그해 2월,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 체제 구축
- 교과과정 기반의 2만 8,000여 콘텐츠를 쉽게 이용하도록 EBS 모든 사이트의 초기화면 전면개편

코로나19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다. 교육부는 EBS에게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긴급 요청했다. EBS는 즉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수업 플랫폼 '온라인클래스'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불과 일주일만인 2020년 3월 2일, '온라인클래스'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 개발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었다.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534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제 EBS가 약 534만 명의 초·중·고 수업을 모두 담당해야만 했다. '온라인클래스' 증설은 물론, 방송 수업인 '라이브 특강'도 시행해야 했다. 준비 기간은 고작 4일에 불과했다. EBS는 145명의 직원을 긴급 투입, 12개의 생방송 학습채널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다.

한편, EBS는 2020년 3월 18일에 온라인클래스 1차 증설을, 5일 뒤인 3월 23일에 2차 증설을, 4월 6일에는 3차 증설을 완료했다. 이렇게 서버 및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 약 한달 만에 동시 접속 150만 명이 가능해졌다.

### 원격교육의 컨트롤타워

은 국민의 관심 속에 2020년 3월 9일부터 'EBS 라이브 특강'이 인터넷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실시간 방송이었음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 세계 최초로 학교 수업 시간표에 맞춘 초·중·고 학년별 12개 채널을 운용한 일이었다.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한 교육부는 결국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EBS는 ‘온라인클래스’ 보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2020년 4월 6일에는 초·중학 전문학습 채널 ‘EBS 러닝’ 6개 채널을 신설했다. 인터넷에 이어 TV 방송 채널을 확대해 학습 공백 최소화 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교육 보완에 힘 썼다.

- 웹사이트,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 특강> 송출
- 지상파,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방송으로 송출 확대
- Wavve, KT seezn 등 OTT를 통한 송출

‘온라인클래스’도 지속적인 보완을 거쳤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 저소득층 원격교육 서비스 무료 지원 등이 추가되었다. 2020년 4월 13일부터는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휴업에 대응,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뒤이 어 4월 20일부터는 ‘EBS 온라인 개학’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년별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개 학을 운영하면서 총 3,936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어느덧, ‘온라인클래스’는 전국 1만 1,710개 초·중·고교 중 1만 1,306곳(96.5%)이 활용하는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수업 참여 학생의 수는 하루 최대 36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나 EBS 등이 실시한 여러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교사가 원격수업 시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 1위는 ‘온라인클래스’로 나타났으며, 원격교육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학습에 도움이 된 플랫폼도 ‘온라인클래스’가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위기 때 빛난 EBS의 활약은 2020년 12월 8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으로 이어 졌다. EBS의 업무 조항에 원격교육이 추가·신설된 것이다.

- 신설 조항: 제7조 제4호의 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법제처는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에 힘써 왔으나 온라인 교육 시 접속 불량,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 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1



2



- 1, 2. 2020년 3월에는 라이브특강이 시작되었다. 준비기간은 4일에 불과했지만 임직원들의 사투 끝에 성공적으로 시행해냈다. 사진은 3월 23일 라이브 특강 장면이다.



1951 <라디오학교> 방송 개시	1974 KEDI를 통한 교육방송	1990 EBS 개국	1997 한국교육 방송원 창립	2000 공사 출범	2004 인터넷 수능 강의 시작	2010 수능 70% EBS 연계	2012 플랫폼 다변화	2015 EBS 2TV 개국	2017 디지털 통합 사옥 준공	2020 세계 최초 온라인클래스
--------------------------	--------------------------	-------------------	------------------------	------------------	-------------------------	--------------------------	--------------------	-----------------------	-------------------------	-------------------------

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2020. 12. 08.

한편,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이 계속되었다.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BS는 '유아·어린이' 실감형 콘텐츠, '범교과형'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초·중·고 전체의 소프트웨어 과목 도입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학습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약까지 준비했다.

### 미래 콘텐츠 선도 기관으로의 변모

EBS는 2019년부터 신규 핵심 IP 개발 및 모바일, 수익형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선 TFT를 구성해 차별화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마침내 2019년 3월 20일부터 <자이언트 팽TV>가 방송으로 방영되지 않는 모바일 에피소드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현장형 셀럽 캐릭터 '팽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디지털·모바일 시대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와 캐릭터의 등장이었던 셈이다.

2019년 4월 2일에는 <자이언트 팽TV>가 방송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었다. '팽수'는 모바일과 TV,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면서 2019년 말부터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팽수'는 전 세대로부터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킬러 콘텐츠 및 IP 개발과 함께 EBS는 시대를 이끄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점점 각인되고 있었다.

2020년 이후, <자이언트 팽TV>는 방송과 OTT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폭넓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면서 EBS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지상파 최초 '지식·교양 구독 서비스'

2020년을 전후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EBS도 이러한 점을 고려, 2020년 8월 26일 '지식·교양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사이트를 개편했다. 시청자들에게 정기 구독 서비스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 구독경제는 사용자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 오디오어학당, 애니키즈, 세상의 모든 기행 등 9가지 주제로 구성
- 이용자 맞춤형 개별 구독 서비스 신설
-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인기 프로그램 무료 전환
- 복잡한 요금 체계 간소화
- 플레이어 기능, 화질 개선 등으로 이용 편의 증진

2020년 이후, EBS는 이러한 혁신과 함께 원격교육 주관 방송사라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늘 혁신하고, 늘 학습하는 방송사로 진화하는 중이다.

1



1. 2020년 4월 17일 온라인클래스 구로현장 기술상황실에 교육부총리가 방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2



2. 2021년 3월 2일 비상상황실에서 김명중 EBS 사장이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 기억의 소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낡은 카메라, 밀줄 그어진 오래 전 방송 편성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것이 되었지만  
세월이 묻은 방송 장비와 소품에는  
EBS 임직원의 열정, 꿈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

“비디오 믹서기가 부족했던  
시기에 에디터를 통한  
자동 편집이 가능했던  
2:1 편집실에서 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기가  
없었다면 화면 효과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1.  
Grass Valley 110-HD 비디오  
스위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디지털 전환  
과도기에 사용했던 비디오신호  
믹서기



“필름을 사용해 촬영했던  
KEDI 시절 카메라  
장비입니다. 주로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필름을 KBS로 갖다  
주었고, KBS가 이 필름을  
송출했습니다.”

2.  
1970년대 사용했던  
16mm 카메라



“녹화 때가 되면 Ampex VPR-6 타입 녹화기에 이 테이프를 누가 빠르게 거는지 시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 준비를 위해 한 번에 10개씩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3. 소니의 베타 타입 녹화기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Ampex VPR-6 타입 녹화기가 사용되었다. 그때 방송 녹화를 위해 사용했던 테이프

“LP에는 여러 곡을 재생할 수 있는 홈이 섬세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곡에 바늘을 올려놓는 게 늘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늘을 잘못 놓아 다른 곡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죠. 오래된 판을 틀 때에는 바늘이 튀지 않도록 수건에 물을 적서 한 방울씩 떨어트리기도 했습니다.”



4. LP를 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턴테이블



“방송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었던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이 16mm  
카메라입니다. 이 장비에는  
여러 선배님들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5.  
오랜 시간 EBS 직원들이 사용했던  
16mm 카메라

“들고 다닐 수 있는  
녹음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지요. 인터뷰를 위해  
이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다음날까지  
어깨가 아팠습니다.”



6.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로  
녹음할 때 주로 사용한  
장비



“디지털 방송이 되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녹음  
장비입니다. 음악 감독,  
라디오부의 추억이 많이 담긴  
장비입니다.”



7.  
음향 녹음을 위해 사용했던 녹음기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텔레시네 장비가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장비가 있었기에  
고전영화나 과거 자료화면을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8.  
텔레시네 장비. 16mm  
테이프 영상을 TV에서  
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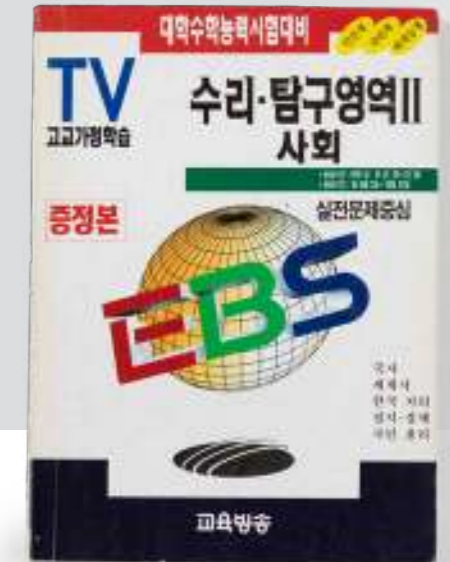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교육방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나 기술 관련 책들이 많았습니다.”



9. KEDI 시절, 직원 교육을 위해 제작한 교재



“KEDI 시절 교재에는 표지에 방송 시청 방법과 채널 안내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인 EBS 시절부터는 보다 심화된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문제집도 보다 세분화되었지요.”



10. KEDI 시절 교재(1981-1989)와 1990년대 수능 대비 EBS 교재(1994년 8월 29일-11월 19일까지의 방송 내용)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교육방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지요.  
이 안내서를 노란 봉투에 담아  
각 학교 방송 담당 선생님들께  
보내드렸죠.”



11.  
KEDI 시절인 1987년  
교육방송 활용안내서와  
1996년 EBS 활용 교재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이전 테이프를  
지우고 재활용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방송을 앞둔 완성본까지 지우는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활용 테이프를  
쓰다 보니 때로는 MC가 우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이프가  
짓눌려서 그런 소리로 바뀐 거지요.”

12.  
라디오용 릴 테이프.  
15분, 30분, 60분  
분량이었기에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골라서  
사용했다.





“분, 초까지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던 시계입니다. EBS 방송의 역사를 함께 한 시계로 당시 부조정실에서는 거의 모두가 이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14.  
타임 코드가 삽입된  
LEITCH 시계

“여기에 렌즈를 장착한 후 광케이블로 CCU와 연결을 합니다. 광센서 소자에 인식되는 영상을 부조정실로 전송하면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인터컴 기능도 포함된 장비입니다.”



15.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한  
카메라 바디. 손으로  
들거나, 삼각대에 거치해서  
사용했다.





PART

# 2

**EBS**  
부문사

History by  
Theme

---



# 미 디 어

지상파 방송을 넘어  
출판, 인터넷, 위성 등  
플랫폼 다변화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 1974

•TV교육방송

1974년 KEDI가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한 뒤 우면동에 교육방송 청사를 준공하고 TV 교육방송을 시작했다. 특히 기구를 이용한 송수신 시스템으로 한국 최초의 컬러TV 방송을 시행했다.

## 1981

•KBS 3TV  
•FM 교육 라디오

1980년 과외금지조치 이후 정부는 교육전담 방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채널로 1981년 KBS 3TV(UHF)와 교육라디오(FM)가 신설되었다. KEDI가 제작을, KBS가 송출을 담당했다.

## 1997

•EBS 위성 1TV  
•EBS 위성 2TV

EBS는 1997년 8월, 위성 1TV, 위성 2TV를 개국했다. 위성 1TV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TV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위성방송은 2002년 EBS플러스1, EBS플러스2 채널로 발전을 이어갔다.

## 1990

•EBS TV  
•EBS FM

1990년 EBS가 출범했다. KEDI 부설 교육방송(EBS)이었기에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그러나 독립된 채널 확보, 자체 송출, 예산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2000

•EBS 인터넷 방송

2000년 EBS의 숙원인 공사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EBS는 급부상한 인터넷 발전에 대응해 2000년 12월 인터넷 방송을 개국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했다.

## 2004

•EBSi 수능강의

2000년대 초반부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었다. 이를 줄이기 위해 EBS는 EBS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e-러닝 시스템 'EBSi 수능강의'를 오픈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한 것이다.

## 2005

•EBSu  
•EBS America(2006)

2005년 7월 1일, EBS는 위성 DMB 방송인 EBSu를 개국했다. 이 채널에서는 수능방송,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했다. 2012년 7월에는 이를 EBS Kids로 개편했다. 한편, 2006년 5월에는 방송과 사업 영역을 해외로 넓혀 EBS America를 개국했다.

## 2015

•EBS 2TV  
•이숲(2019)

2015년 2월 11일, 국내 최초의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 2TV'가 개국했다.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 다채널 서비스(MMS)'를 열었다. 또한 2019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을 오픈했다.

## 2007

•EBS English  
•EBSe  
•EBS 초등(2011)  
•EBS 중학(2011)  
•EBSMath(2013)

2000년대 중반부터 EBS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지원에 앞장 섰다. 우선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교육 전문 채널 EBS English(2007), 영어교육 전문 사이트 EBSe(2007)를 선보였다. 그밖에도 EBS 초등(2011), EBS 중학(2011), 수학 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2013) 등을 오픈,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 2020

•EBS 온라인클래스  
•EBS 러닝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공교육의 위기였다. EBS는 세계 최초로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를 전격 오픈했다. 뒤이어 초·중학 전문 학습채널 'EBS 러닝'을 오픈하면서 '원격교육 서비스'의 새시대를 개척했다.



# 1장. 미디어



##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EBS의 성장

### 교육방송의 태동과 미디어 환경 구축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도 교육을 한 나라였다.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결핍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1951년 6월 18일, 문교부 기술교육국이 주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교육 방송인 <라디오학교>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72년 8월 30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설립되었다. 교육 전문 방송국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일이었다. 교육을 위한 방송 사업에 대해 공감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74년 3월 27일 KEDI는 중앙시청각교육원\*이 담당해오던 <라디오학교> 방송을 인수했다. 비로소 교육방송이 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74년 5월 14일부터 우면동에 청사 착공과 함께 방송 스튜디오 건설에도 들어갔다. 또한, 견인 로프로 상공에 기구를 띄워 전파를 발사하는 새로운 형식인 ‘T-COM(Tethered Communication)’ 방송 기자재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로부터 도입했다.

KEDI 산하 교육방송국이 1975년 12월 12일 ‘컬러TV’ 시범전파를 국내 최초로 발사했다. 하지만, T-COM 방식은 날씨에 따라 화질 저하와 중간중간 끊어지는 송출 문제 등이 발생해 1977년 8월 19일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독자적인 송출 및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송출 기능이 없어진 KEDI는 교육방송국의 독자적인 운영을 계획했으나, 정부 부처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1978년 7월 26일,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지시각서’가 각급 기관에 하달되었다. 교육방송을 삼원화해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방송의 기본 편성권 : 교육방송 심의위원회

·세부 편성 및 제작 : KEDI

·송출 : KBS

\* 문교부 산하기관으로 1964년 1월 1일 신설되었다.





1.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었다. 한국교육의 현안에 관한 종합적·과학적인 연구 수행이 주 목적이었다. 이 기관에 교육방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기구를 띄워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식이었던 T-COM의 설비. 기상과 날씨 등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새로운 시도였다.

3.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당시 청사였던 서울 안국동의 수운회관이다. 천도교 재단 소속의 건물이었다.

10·26 사태 이후, 과열된 과외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문공부는 'TV과외 방송강좌'를 KBS가 제작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80년 6월 16일부터 입시수험생을 위한 <TV가정고교>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7·30 교육개혁'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강력한 과외 금지 조치'와 함께 '<TV가정고교>의 운영 개선, 교육전용방송 실시'가 해소방안에 포함되었다.

국보위 문공분과위는 1980년 8월 8일 KBS의 <TV가정고교> 제작을 KEDI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 뒤이어 1980년 9월 1일, KEDI는 KBS로부터 <TV가정고교>를 인수했으며, 과외 금지를 보완하는 TV 학교교육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1년 2월 2일에는 교육전담 채널로 KBS 3TV(UHF)와 교육라디오(FM)가 신설되었다. KEDI가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제히 교육전담 채널을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다. 교육방송국이 독립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전용 채널을 통한 교육방송의 확대에 본격적인 '교육방송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

열악한 예산 지원 속에서도 교육방송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삼원화된 교육방송 시스템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제반 합의 사항이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방송으로서는 제약일 수밖에 없었다.

- 1981년 2월 2일 \_ KEDI와 KBS가 50대 50 비율로 방송 편성
- 1981년 6월 15일 \_ 6시간 분량의 일요일 재방송, KBS가 5시간 30분을 흡수
- 1981년 12월 1일 \_ 일요일 교과 프로그램 KEDI 30분으로 제한
- 1982년 12월 6일 \_ MBC 교과 프로그램 평일 재방송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 1983년 3월 1일 \_ 라디오 학교방송 1시간 단축

1989년 2월 2일, 정부는 과외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발맞춰 1989년 4월 17일, <TV고교가정학습> 방송이 첫 전파를 타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TV고교가정학습>은 과외를 대신하는 충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교육방송국 독립 논의를 지퍼주는

\* 1980년 5월 31일 신군부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세운 임시 행정기구이다.





1. 1980년대 KEDI 시절의 부조종실

2. 1980년대 방송 스튜디오에 있었던 촬영 장비들

3. 1980년대 외국 방송사 기술진이 부조종실을 방문했다.

불씨로 작용했다.

1989년 11월 3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재원 염출 방식에 대한 KBS 등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후에 정부는 민영방송 설립 내용 등이 포함된 '방송구조 개편' 작업에 나섰다.

공보처는 1990년 6월 14일 새로운 '방송제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가칭) 설립'은 백지화되었고, 대신에 KBS 제3TV를 KEDI가 교육방송 채널로 활용하도록 했다. 즉, 문교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KEDI는 프로그램 제작을 맡으며, 송출은 KBS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EBS 개국과 뉴미디어 대응 및 확대

마침내, EBS가 1990년 12월 27일 개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이 출범'하는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KEDI 부설 교육방송(EBS)'으로 개국해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으나, 독립된 방송 채널을 통해 교육방송을 운영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는 예산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별도 체제로 운영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993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때 EBS는 '수능 방송 체제로 개편'했으며, <TV고교가정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능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1995년 3월 1일, '케이블TV'가 본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약 10만에 가까운 시청 가구를 확보하고, 48개 SO, 24개 채널로 뉴미디어가 출범했다. 이렇게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처음 열리면서 방송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케이블TV의 교육채널들과 경쟁해야 하는 EBS는 상대적으로 방송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 방송을 시작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것이다.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마침내 '단계별 방송 시간 확대'가 이뤄지게 되었다.

1996년 3월 4일부터 평일은 50분 더 늘어났고, 일요일에는 1시간 더 늘었다. 1997년 3월 3일부터는 오전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방송 시간이 3시간 더 늘어나면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학교 현장에 맞도록 방송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케이블TV의 교육채널들에 대응해 학교교육 보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EBS는 '기관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 12월부터 '독립 공사화'를 추진했는데, 입법 추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파업 등의 오랜 공사화 투쟁 끝에 1996년 12월



17일, <한국교육방송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1997년 1월 13일에 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드디어 1997년 3월 12일에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되어 정식 출범했다. KEDI 부설 교육방송이던 위상에서 ‘안전한 독립기관의 위상을 확보한 원년’을 맞이했다.

이에 앞서, 1995년 8월 5일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무궁화위성 1호가, 1996년 1월 14일 무궁화위성 2호가 발사되었다. EBS는 1995년 12월 13일부터 1996년 6월까지 위성방송(Direct Broadcast Satellite) 시험방송을 실시했으며, 국무총리실은 1997년 5월 13일 위성채널 2개를 교육방송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출범한 지 약 두 달 만에 EBS는 위성교육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분주해졌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1997년 8월 20일 시험방송을 무사히 마쳤으며, 뒤따라 8월 25일 ‘위성방송국’을 개국했다. 이제 위성 1TV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TV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위성교육방송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성교육방송 실시는 난시청 해소, 사교육비 절감, 교육 여건 개선, 첨단 교육 선도를 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성과물이었다. EBS 위성방송 채널은 학교교육 위주로 집중하고, EBS 지상파TV는 편성에 변화를 줘서 평생교육 구현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즉, 위성방송 채널 확보 덕분에 EBS는 방송 채널별로 각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해 나갔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영역 등도 더욱 세분화했다. 비로소 ‘교육방송 제2의 개국 원년’을 맞이한 셈이었다.

**공사 출범 이후, 인터넷 시대 개척**

EBS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출범했지만, 제작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안정적인 재원 마련, 인력 충원, 청사 공간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1997년 8월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게 되었다. 다시 공사화 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48일 동안 장기화되었던 파업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에 ‘교육방송 공사화’가 포함되면서 종료되었다.

19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EBS 공사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 28일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00년 1월 12일에 법이 제정·공포되어 공사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0년 6월 22일, 마침내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공사 출범 원년’을 맞이한 EBS는 새로운 공영방송의 모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성 전략을 수립하며, 대표 프로그램들

1



2



3



- 1. 1990년 12월 27일 EBS가 개국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EBS는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열성을 다했다. 사진은 이듬해 열린 개국 1주년 기념 축하연
- 2. 1993년부터 대학입시제도에 일대 변화가 생겼다. 수능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EBS도 이에 맞춰 수능 중심의 방송으로 개편했다. 1993년 9월 4일 제2차 수능 해설 방송

- 3. EBS는 2개의 위성 채널을 개국하는 데 성공했다. 1997년 8월 6일 용인위성지구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 모습





1. EBS는 이른 시기부터 ICT 기술과 미디어와의 접목을 추구했다. 2000년 12월에는 인터넷 방송을 개국했다.

2. 2004년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EBS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e-러닝 시스템 EBSi를 오픈했다. 2004년 3월 31일 EBSi 합동상황실

3. EBS는 세계 각국의 교육 및 방송 관계자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외국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2004년 7월 1일 태국 교육부장관 방문

4. 2013년 3월, EBS는 가장 어려운 과목인 수학을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를 오픈했다. EBSMath 홍보관

개발 및 강화해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미디어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였다.

한편, EBS는 인터넷 매체의 부상을 일찌감치 주시하고 있었다. 1997년 7월 25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bs.co.kr](http://www.ebs.co.kr)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0년 7월 21일에는 'EBS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과외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바로 뒤이어 12월 22일에는 'EBS 인터넷 방송'을 개국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였으며, VOD/AOD 무료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이 무렵,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 1997년에 인터넷 사용자는 163만 명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0년부터 초고속 인터넷(ADSL) 상품이 출시되면서 멀티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었다.

2003년부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EBS는 2003년 9월 말에 'EBS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사이버 교육 강화에 관심을 기울인 EBS는 2004년 4월 1일 'EBSi 수능강의 [www.ebsi.co.kr](http://www.ebsi.co.kr)'를 오픈했다.

EBS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e-러닝 시대'의 막을 올린 것이다.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한 공교육 보완에 첫발을 내밀어 사교육비 경감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공영방송의 모습을 견지하게 되었다.

EBSi 수능강의의 오픈 이후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확대는 계속되었다. 2007년 4월 6일에는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하면서 영어교육 전용 인터넷 사이트 'EBS [www.ebse.co.kr](http://www.ebse.co.kr)'를 개설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행보였다.

뒤이어 EBS는 2011년 8월 31일에 '초·중학 인터넷 사이트'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초·중학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인터넷 학습 서비스를 통해 학습 성과를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더욱 발달한 ICT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진화한 서비스이기도 했다.

2013년 3월 14일에는 'EBSMath [www.ebsmath.co.kr](http://www.ebsmath.co.kr)'를 오픈했다. 국내 최초로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를 선보인 일이었다. 딱딱한 공식 외우기와 반복된 문제 풀이 위주였던 기존의 수학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수학교육을 이해와 탐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EBS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섰다. 2018년 10월 12일,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EBS Software Learning Platform)'의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뒤이어 2019년 1월 31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 [www.ebssw.kr](http://www.ebssw.kr)' 서비스를



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숲의 오픈은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전환점이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BS의 노력들은 시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매체의 적극 활용으로 구현되었다. 즉, 다른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 활용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개척으로 새로운 공영방송의 모습을 부단히 추구해나간 것이다.

**출판을 통한 공교육 보완과 지식 중심의 평생교육**

1990년 개국 이후, EBS는 ‘출판, 광고, 복사 보급’ 등의 자체 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중에서 <TV고교가정학습>의 방송교재 출판이 주력이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보급해 학교교육 보완에 기여해 나갔다.

EBS는 출판의 다각화를 위해 방송과 연계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어 회화나 컴퓨터 교재, 교양 한문 등을 발간했다. 특히, 학생 및 일반 대상의 FM 라디오 어학 관련 출판을 강화해 공교육 보완 및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섰다.

2000년에 공사화를 이룬 EBS는 더욱 다양한 방송교재를 발행했다. 유아 대상의 <FM 영어동화>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 교재를 대행 출판했으며, <주역과 21세기> 등의 인문 서적을 EBS가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에는 직영 출판을 통해 단행본 등을 전국 서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직영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출판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중학 교재 출판을, 2004년에는 고교 교재 출판을 대행 출판에서 ‘직영 출판 체제’로 전환했다.

EBS가 2004년에 ‘EBSi 수능강의’를 시작하면서 출판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다시 2010년에는 수능 70% 연계 정책 시행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EBS의 출판 부문은 EBS의 성장과 궤를 같이했다.

2010년대에 EBS는 시청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한 단행본을 적극적으로 발행했다. EBS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였다. <지식채널e>, <다큐프라임> 등의 EBS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단행본이 발행되었다.

이와 함께 FM 어학 교재 제휴 발행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학습을 위한 라디오 방송 교재를 발간해 평생교육에 기여했다.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재 무상 지원과 함께 점역 사업 등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도 펼쳤다.

이후에도 EBS는 교재의 다각화, 비연계 교재의 확대, 새로운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통

1



2



3



1. EBS는 방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습 교재 및 각종 인문 도서를 발간해 교육 보완 및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섰다.
2. 1994년에 간행된 초등학교 방송교재. 월간 단위로 방송과 연계된 교재를 제작해 보급했다.
3. 1994년의 각종 방송교재. 라디오와 TV용으로 구분되었고, 당시에는 배우기 힘들었던 여러 외국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색해 나갔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출판 브랜드 'EBS BOOKS'를 새롭게 론칭했다. 더불어 '북&렉처프로젝트팀'을 신설해 방송 기반의 시리즈 및 단행본 도서를 본격적으로 자체 기획 및 출간하게 되었다. 도서는 '성인 학습/교양'과 '어린이 학습/교양' 분야로 나누었다. <펄아트# 페이퍼토이북>을 출간했으며, <클래스e>, <지식채널e>, <초등 어맛>, <이현석의 입이 트이는 영어> 등의 시리즈가 발행되었다. 도서 판매를 위한 마케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EBS는 평생교육을 위해 <클래스e>를 기획·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방송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인 비방송용 콘텐츠로 나누었다. 2020년 4월 27일에는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EBS 명강>, <EBS 마스터>, <EBS 클래식> 등의 방송을 개시했다. 고전과 최신 지식을 포괄하는 종합 지식강연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2020년 8월 29일에는 플랫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EBS 명강>, <EBS 마스터>, <EBS 클래식>을 <클래스e>로 통합했다. 비방송 디지털콘텐츠 <클래스e>는 지식형 소프트웨어 콘텐츠인 '퍼블릭'과 지식형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리지널'로 구분해 잠재 고객 및 구매 고객 유입을 유도했다. 클래스e 퍼블릭에는 <편의점 클래스e> 등의 지식 토크쇼가 있으며, 클래스e 오리지널에는 <고전읽기> 등이 있다. 이처럼 EBS는 방송 기반의 단행본을 기획 및 출간하고, 지식 중심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단히 발굴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OTT 서비스 등 플랫폼의 연계성도 한층 강화해 '평생교육'이라는 EBS의 공익적 책무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EBS America 개국**

2006년 5월 1일, EBS America가 개국했다. 미국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TAN(The Asia Network)과 계약해 1일 24시간(8시간×3방) 방송하게 되었다. 북중미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등)에 방송을 개시해 글로벌 EBS의 초석을 다진 것이다.

EBS America의 개국은 방송과 사업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및 2, 3세 교육에도 일조하는 의미도 지녔다. 또한, LA 지역에 있는 한미케이블TV, DTV KTN 등과 EBS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 시청 접근권을 확대해 나갔다.

약 5년 뒤인 2010년 10월 1일, EBS America는 미국의 최대 위성방송인 디렉TV(DIRECTV, 채널 2083)에 진출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이전보다 3배가 넘는 미주 교포들이 고품질의 EBS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1



3



2



1. EBS America는 위성 송출 기술이 중요했다. 개국 전 시설 및 방송 관계자들이 함께 송출 장비를 시험하고 있다.
3. EBS America 방송을 위해 설치된 위성 안테나들이다.

2. 2006년 5월 1일 EBS America 방송을 위한 전파 발사 순간이다. 이로써 글로벌 EBS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EBS 성장과 플랫폼의 다양화**

EBS는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적 책무의 토대까지 다져왔다. 지상파인 TV와 라디오를 통한 교육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케이블TV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했으며, 위성방송에 참여해 ‘위성교육방송 시대’도 열었다. 2000년에는 인터넷 방송 개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2004년에는 EBSi 수능강의를 오픈해 ‘e-러닝 시대 개막’도 선도했다.

레거시 미디어에 뉴미디어를 더하는 플랫폼의 다양화 시도와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2005년 7월 1일, EBS는 ‘EBSu’라는 이름으로 ‘위성 DMB 방송’을 시작했다. 뉴미디어 선도를 통해서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수능방송은 물론 성인들에게 인기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도 방송했다.

위성 DMB로 확장한 EBS는 외국어 학습 보완에도 나섰다. 2006년 7월 27일, 외국어 학습 전문 사이트인 ‘EBSlang [www.ebslang.co.kr](http://www.ebslang.co.kr)’을 오픈했다. 6개 외국어 학습으로 시작했으며, 차츰 12개 외국어로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서 2007년 6월에는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했다. 초·중·고 영어학습 전문 채널로 방송 플랫폼을 더욱 확대한 일이었다. 이때 전용 인터넷 사이트 ‘EBSe [www.ebse.co.kr](http://www.ebse.co.kr)’를 같이 개설했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으로 방송 플랫폼의 약점을 보완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2008년 12월 12일, EBS TV는 KT의 ‘IP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새롭게 인터넷 TV가 등장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TV를 보고 VOD를 보는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진입을 착실히 준비해 수행한 것이다.

교육의 길잡이이자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공영방송으로서 EBS는 신규 플랫폼 진출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다. 콘텐츠 유통 경로를 더욱 다각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2010년 6월에는 EBSi 수능강의 ‘모바일 앱’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제는 TV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강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EBS는 원소스 멀티디바이스(One Source Multi Device)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활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이하 중편)이 2011년 12월에 개국하면서 방송계는 치열한 경쟁을 맞이했으며, 뉴미디어의 서비스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대거 등장해 ‘N스크린 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방송사와 통신사, 인터넷 포털까지 서로 경쟁하

1



3



2



4



- |   |   |
|---|---|
| <p>1. 2005년 6월 20일 EBS는 위성 DMB 방송을 위해 TU미디어와 종합 교육채널 계약을 체결했다.</p> <p>3. 2010년 EBS는 TV, PC, 모바일 등으로 수능강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춘천여고에서의 활용 장면</p> | <p>2. 영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EBS는 2007년 6월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했다. ‘EBS English’ 채널의 ‘Magic world’ 프로그램</p> <p>4.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E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EBS 모바일 앱</p> |
|---|---|



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EBS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을 더욱 다양화했다. 2012년 5월 18일, 국내 유명 포털 '다음(Daum)'과 제휴를 맺고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 뒤이어 6월 12일에는 포털 다음에 동영상 서비스인 'EBS 지식' 서비스를 오픈했다. 다음이 제공하는 백과사전, 뮤직 서비스 등과 연동되어 부가적인 지식을 같이 선보이게 되었다.

2012년 7월 23일에는 N스크린 서비스 'POOQ'이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때 EBS는 콘텐츠 연합플랫폼(지상파연합플랫폼)과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POOQ에 콘텐츠를 공급했다. 같은 해 9월 1일부터 POOQ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EBS는 OTT를 통한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도 선도적으로 진출했다. 2012년 11월부터 유튜브에서 'EBS 기본 채널'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다. 2013년 2월 5일부터는 'EBS 공식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튜브가 '1인 미디어 빅뱅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이전이었다.

2014년 1월 21일, EBS는 네이버와 '지식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정보 콘텐츠 제휴 및 확산, 방송과 포털의 상생 강화, 지식문화 발전과 공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폭넓은 장르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와 스마트미디어로 영역을 확장한 EBS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무료 다채널 서비스(MMS)' 개척에도 앞장섰다. 한정된 지상파 주파수 대역 내에서 채널을 늘려 서비스하는 '무료 다채널 플랫폼 구축'에 집중한 것이다.

2010년부터 EBS는 지상파 3사와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맺어 길을 모색했으며, 2014년 1월 27일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실험방송'을 실시했다. EBS만의 기술력과 기반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2015년 2월 11일, 국내 최초로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 2TV'가 개국했다. 이로써 'EBS 1, 2TV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한정된 지상파 주파수의 대역을 압축해 쪼개는 신기술을 통해 또 하나의 지상파 채널을 새로 확보한 쾌거를 일궈냈다.

### 원격교육 시대 개막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이와 동시에 미디어 변화를 선도해온 EBS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공영성 강화 및 공적 책무 확장에 계속 집중해 나갔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POST TV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에 나서고, 교육 OTT 및 EBS 콘텐츠 맵(Contents

Map) 등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부 과제 등을 설정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갔다. 감염 우려 때문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EBS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가동했으며, 나흘 뒤인 2월 25일부터 온라인 가정학습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6일 뒤인 3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를 전격 오픈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보완해주는 원격교육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서비스한 일은 세계 최초였다. '원격교육 서비스 시대'의 막을 올린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했다.

2000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개국해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고, 2004년부터 EBSi 수능강의를 오픈해 'e-러닝 시대를 개막'한 이력과 경험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 덕분이었다. 여기에 2018년 10월에 구축된 국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의 시스템 개발이 새로운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의 밑알로 작용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EBS는 약 534만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교육을 책임지게 되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EBS 라이브 특강'도 실시했다. 급박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50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10개의 스튜디오에서 동시 생방송을 진행해 초·중·고 학년별로 학습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했다.

정부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 실시' 방침에 발맞춰, EBS는 방송 채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채널 등록이 단 4일 만에 완료되었다. 뒤이어 4월 6일, 초·중학 전문학습채널 'EBS 러닝'이 방송을 시작했다. 기존에 보유한 방송 채널과 함께 6개 채널이 신설되어 초·중·고 12개 학년별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 1~2는 EBS 2TV와 EBS 플러스2가, 초 3~중 2는 EBS 러닝이, 중 3은 EBS English가, 고 1~3은 EBS 플러스1 및 EBSi(온라인)를 통해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EBS는 온라인, OTT는 물론이고 확대 가능한 모든 방송 미디어를 총동원해 학습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클래스 3차 증설을 완료해 동시 접속자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처했다.

어느덧 EBS 온라인클래스는 초·중·고 96.5%가 활용하게 되었다. 수업 참여 학생 수는 하루 최대 36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가 원격수업 시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 1위는 ‘EBS 온라인클래스’였다. EBS와 한국리서치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한 콘텐츠는 ‘EBS 온라인클래스’로 나타났다. 무려 78.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였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비대면 시대 속에서 EBS는 ‘원격교육의 원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현직 교육감들이 EBS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해외 언론들도 EBS 원격교육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진보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초·중·고의 학습 공백을 메꾸는 데 결정적인 몫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EBS의 원격교육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재난 시에 원격교육 주관 방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마침내 2020년 11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뒤이어 12월 8일에 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EBS의 업무’ 조항에 ‘원격교육이 추가’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재난 발생 시에 EBS는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공백 등의 해소를 위해 원격교육의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



2



1.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EBS는 온라인 개학방송으로 학교 수업을 보완했다. 2020년 4월 20일 온라인 개학방송 현장

2. 코로나 위기 속에서 EBS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비상상황실 점검 장면



## 2. EBS 방송 기술의 진화

### EBS 개국 이후, 21세기 정보화 시대 준비

EBS가 1990년 12월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으로 출발했다. ‘공사화’를 통한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KEDI 부설 교육방송 형태로 개국했다. 이제 EBS의 로고로 TV와 FM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EBS는 1991년 5월에 부족한 첨단 방송 장비 구입과 노후한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로부터 교육차관을 도입하게 되었다. 뒤이어 1991년 10월 4일부터 ‘송출업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송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각종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고, TV와 FM 라디오 주조정실 및 부조정실,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시설과 함께 70m 송신탑을 구축했다. TV 중계차 2대와 라디오 중계차 1대도 마련했다. 1974년부터 사용했던 노후한 TV, 라디오 방송 제작 시설 및 장비들을 최신 기종의 장비들로 대체해 나갔다.

마침내 1991년 11월 1일, 최신 방송 장비를 대거 도입한 EBS는 첫 전파를 발사하면서 ‘자체 송출’을 시작했다. T-COM 사업 실패 이후 약 14년 동안 KBS 송출에 의지해야 했던 교육방송은 운행 업무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체 송출 체제가 되자, 대입 학력고사 특집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처음 진행하는 시도를 했다.

EBS는 1993년부터 ‘전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서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였으며, 데이터의 전산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1994년부터 방송관리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방송 자료의 신규 구입과 보관 의뢰 및 소장 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되었다.

1994년에는 ‘방송 장비 현대화’ 추진에 매진했으며, 1995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교육 FM 스테레오 방송’에도 대비했다. 또한, 라디오 생방송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 허가까지 취득했다.

뒤이어 1995년에는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해 ‘교육방송 업무 전산화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3년 이내에 단계별로 추진해 종합네트워크 실현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전산 업무 전담팀

1



2



3



4



1. 1990년 EBS 개국 이후 방송 설비가 보완되었다. 제작과 송출 모두 독립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1991년 10월 30일 주조정실 모습

2. 1991년 방송 장비와 함께 도입된 EBS 벤형 중계차

3. 1995년 업무 전산화에 따라 복사 보급 업무도 체계적으로 개선되었다.

4. 1997년 위성방송 개국으로 EBS의 방송기술 역량이 최고 수준임을 널리 알리게 됐다. 1997년 8월 6일 용인위성지구



구성, PC 확충, LAN 구축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설정했다.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1996년에는 방송 장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방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뉴미디어 시대에 적극 호응하고, 다가올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에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또한,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멀티미디어 방송 자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이기도 했다.

1997년 12월 1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3개로 분리된 EBS 사업장을 LAN으로 통합하는 공사부터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들어갔다.

이후에는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버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를 완료했다. 비로소 E1급(2,048Mbps)의 인터넷 전용회선이 개통되면서 사내 메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사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마쳐 1998년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제 EBS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전환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각 부서에 흩어져 관리하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의 생성, 처리, 유통을 전산화해 정보의 효율성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공사화 이후, 디지털 시대 개막 및 대응**

EBS는 199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지상파 디지털TV(DTV) 전환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기 시작했다. ‘DTV 실험방송 추진 TFT’를 구성해 교육방송의 실험방송용 소스 테이프를 제작하고, DTV 필드테스트 등을 실시했다.

이 무렵, 디지털 방송 장비 도입도 활발해졌다. 1스튜디오에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했으며, 넌리니어(Non-Linear) 편집 장비와 함께 첨단 가상스튜디오(Virtual Studio) 시스템 등을 도입해 제작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이외에도 디지베타(DigiBeta) VCR을 비롯해 다수의 장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며, 구조정실 파일서버 인코딩(Encoding) 방식도 M-JPEG에서 MPEG으로 업그레이드해 백업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2000년 6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창립되어 EBS는 마침내 ‘공사화’를 이뤄냈다. 이 무렵,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 및 현장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방송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2000년 7~8월에는 ‘지상파 DTV 실험방송’을 추진해 제반 사항들을 점검했

다. 디지털TV의 장점인 고화질·고음질을 제공하고,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EBS는 2001년 2월 17일에 ‘DTV TFT’를 구성해 기술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같은 해 8월 16일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상파 디지털TV 허가까지 완료했다. 드디어 2001년 11월 5일, ‘디지털TV 방송’으로 거듭나 DTV 본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시대’를 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연말이 되어 12월 20일에는 16톤 규모의 디지털 중계차를 도입하고, HD 카메라 6대를 장착했다. 향후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다시 2002년 1월 14일에는 5톤 중계차도 새로 교체했다.

EBS는 2002년부터 ‘HDTV 방송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 구축’을 운영 목표로 삼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공영 멀티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다.

2002년 6월에는 도곡동 청사를 마련해 입주하면서 80평 규모의 TV 스튜디오를 신설하는 등 방송 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했다. 2003년부터 실시 예정인 HDTV 방송을 위해 ‘HD 편집실’을 신설했으며, FM 라디오 난청 해소를 위해 FM 송신 출력을 5kW에서 10kW로 증강하기도 했다.

2003년 3월 21일, EBS는 HD 프로그램 <잊혀져가는 것들>을 처음 제작해 고화질 방송을 개시했다. 또한, TV 3개 스튜디오의 카메라를 디지털 장비로 모두 교체했다. 중계 1호 차는 HDTV 제작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중계 2호 차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와 함께 라디오도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하드디스크 기반의 오디오 파일 시스템(Audio File System)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뮤직아카이브 시스템 구축도 시작해 모든 오디오 자료를 실시간으로 방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토대 덕분에 2004년에는 HD 제작 <EBS 어린이 미니시리즈>를 편성해 8편을 방송했으며, <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슬람 문화 기행> 13편을 방영하는 등 HDTV용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EBS는 2004년 6월 20일 세계 최초로 미국의 최신 데이터방송 규격인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표준을 적용한 양방향 데이터방송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퀴즈 프로그램 <EBS 장학퀴즈>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토끼가 까꿍> 등에 ACAP 방식을 적용해 데이터방송을 성공한 것이다.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직접



조작해 퀴즈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막을 올린 시도였으며, ‘양방향 데이터방송 시대’를 연 쾌거였다. 2003년부터 준비한 결과로 EBS는 디지털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EBS 스페이스 공감>, <최고의 요리비결> 등의 프로그램에도 연동형 데이터방송을 적용했다. 인터넷과 연동해 TV로 공연 정보 제공 및 공연 관람 신청을 받았으며, 휴대폰으로 연결해 당첨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EBS는 2006년부터 HDTV 프로그램을 주당 10시간 방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고화질, 고음질, 다채널, 쌍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

2007년부터는 ‘EBS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술 연구를 시작했다. 방송 프로그램 및 인서트 자료의 분류, 저장, 편집 등의 전 과정을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였다. 기존의 테이프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저장 및 재가공하고 검색하는 테이프리스(Tapeless) 기술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화되는 방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EBS는 2008년부터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시범 도입 연구’에 들어갔다. 또한, 테이프 방식의 편집 장비를 NLE((Non-Linear Editor)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TV-6부조에 테이프리스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테이프리스 카메라도 처음 도입해 ‘테이프리스 원년’으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2008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디지털 파일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1년 1월, EBS는 NP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픈했다. 테이프 기반에서 파일 기반의 제작 시스템 전환으로 프로그램 제작 워크플로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디지털 전환 및 제작 시스템 고도화에 대응해 작업 효율성을 높인 일이기도 했다.

NPS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를 통해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에 맞는 콘텐츠 운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파일은 여러 차례 가공해도 화질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 방식에서 파일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가의 VCR을 대체하는 등의 부가적인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졌다.

1



2



3



1. EBS는 2008년 하반기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009년 9월 디지털 인코딩 장면

2, 3. EBS는 2006년 HDTV 방송을 10시간 이상 구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선했다. EBS HDTV 기술이 구현된 방송 차량과 HD 디지털카메라



**차세대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기술로 확장**

2009년에 영화 <아바타>가 크게 성공하면서 3차원(3D) 입체 영상 콘텐츠가 방송계 초미의 이슈로 떠올랐다. 2010년 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일본의 가전회사 등이 3D TV를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EBS는 2010년 7월부터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신들의 땅, 앙코르> 제작에 활용했다.

2011년부터 EBS는 3D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15일에는 국내 최초 3D 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가 제작을 완료하고 시사회를 가졌다. 미국에 국내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가에 판매되는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쾌거를 일궈내 EBS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선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3D 다큐멘터리 <한반도 최초의 인류, 전국리 사람들>과 <위대한 바빌론>, 국내 최초의 3D 자연 다큐멘터리 <한국의 강>, 그리고 <위대한 로마>,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등을 제작해 3D 기술 역량을 과시했다.

EBS는 2011년 12월부터 3D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방송 최초로 적용한 파일럿 프로그램 <뽀뽀뽀>를 제작했다. <뽀뽀뽀>은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의 인서트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뽀의 구조와 역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줘 생생한 학습을 유도했다.

2012년 4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해 EBS DTV 주파수에서 3D TV 시범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시청자에게 불편감이 없도록 듀얼 스트림(Dual Stream) 방식으로 방송했으며, 1차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2D/3D 혼용 시범방송을, 2차에서는 방송사 최초로 지상파 3D 전국 시범방송을 실시했다.

2012년 10~12월, EBS는 지상파 3사와 공동으로 4K UHD TV(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시험방송을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송 기술이 초고화질 콘텐츠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2012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도 시작했다. 2010년에 수립한 '보유 콘텐츠 디지털 변환 및 축적 계획'에 따라, 3차 연도에 걸쳐 테이프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기준으로 보유 콘텐츠의 약 60% 이상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E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모두 종료되고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비로소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디지털 방송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EBS는 2014년에 지상파 UHD 표준 협의에 참여했으며, '다중화' 파트의 표준 초안을 작성했

1



2



1. 공사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디지털 방송장비를 활용해 진행했다.

2. EBS의 앞선 방송기술은 대내외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19일 전파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다. 2014년 8월 21일에는 700MHz 대역 내 UHD 방송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채널 번호 54번을 확보했다. 이후 UHD 방송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2015년 6월부터는 디지털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파일 기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파일 기반 시스템으로 96% 전환을 완료했으며, 자체 제작(종합 편집) 프로그램의 97%가 디지털워크플로우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12월에는 미디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콘텐츠 제작, 송출 이후에 유통 과정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BS는 오랫동안 숙원이던 디지털통합사옥을 2017년 2월에 준공해 ‘일산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100% 테이프리스를 전면 시행했다. 2018년부터 EBS는 VR/AR\* 기술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해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영어! 할 수 있다 CAN CAN CAN>, <모여라 덩동댕>, <공룡 대백과사전>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VR/AR 기술을 적용했다.

뒤이어 2018년 7월 19일, EBS는 제머나이소프트와 ‘라디오 방송 솔루션 이모션(E.MOTION)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모션은 40년 라디오 방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EBS가 3년 이상 노력한 끝에 국내 방송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라디오 방송 솔루션이었다.

이모션은 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녹음 및 생방송 제작, 자동 송출, 시스템 제어 관리, 송출 파일 품질 관리, 웹 기반 관리 등 방송 제작에서 송출에 이르는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갖추었으며, 특히,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아 시스템 관리와 운영의 편리성까지 구현했다. 같은 해 11월 19일, EBS의 이모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8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교육재난 기술 대응과 UHD 전환

EBS는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긴급하게 학교교육 지원에 나섰다.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브 특강’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e-러닝 스튜디오 10개소를 사용해 동시에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려고 플랫폼을 확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스트리밍을 제공했으며,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뒤이어 IPTV 3사도 라이브 특강 스트리밍을 내보내게 되었다. 이후 주말을 포함한 4일 만에 SO 방송 송출 대행사인 미디어캔의 인코더를 통합장비실에 긴급 설치해 MSO와 개별 SO에도 방송 신호를 분배했다.

2020년 4월, ‘EBS 온라인 개학’ 1주일을 앞두고 임시 송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러닝 스튜디오 부조 1실을 긴급 개조하기로 했다. 6채널 비디오 서버 2대, 라우터 1대 등으로 메인 백업 영상 재생 시스템을 구성했다. 급하게 임대해온 장비를 방송 3~4일 전에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한 치도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교육재난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 충실하게 대응했다.

한편, EBS는 방송제작 시설의 UHD 전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는 TV-4 스튜디오를 UHD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AR 제작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 <생방송 방과 후 똘똘>, <EBS 뉴스> 등에 활용해 흥미로운 증강현실(AR)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뒤이어 2021년에는 종합편집실 1실을 UHD로 전환했다. HD와 UHD 포맷 모두 제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이다. 현재 정부는 2027년에 HD 방송을 종료하고, 지상파 UHD 방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EBS는 UHD 방송 제작 역량을 부단히 키워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UHD스튜디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김명중 사장이 스튜디오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법 제

소명과 소임을  
다한 역사-

관련 법규와 규정  
발전과 함께 성장

## 1973

-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제정
- KEDI의 교육방송 시작



1973년 <교육법> 개정으로 '방송통신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교육 전문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 1990

- 공보처 '방송제도 개편안' 발표
- EBS 개국



정부가 '방송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칭)' 설립은 백지화되었다. 정부는 공사 대신 교육방송 독립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 'EBS'가 출범했다. 이때부터 EBS가 학교교육은 물론 방송통신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 1997

- <한국교육방송원법> 제정·시행
-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EBS는 교육방송 공사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1997년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공사화는 이루지 못했으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편성의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 200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시행
-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
- <통합방송법> 시행
- 수신료의 EBS 배분 명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뒤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창립되었다. 한편, <통합방송법> 시행으로 EBS는 KBS로부터 수신료를 배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수신료 배분 비율이 3% 수준으로 정해져 충분한 자원 지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 2004

- <방송법> 개정
- EBSu 위성 DMB 방송 시작



200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방송 서비스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2005년에 EBSu가 위성 DMB 방송을 시작했다. EBS는 레거시 미디어에 뉴미디어를 더하는 플랫폼의 다양화 시도와 노력을 이어갔다.

## 202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시행
- EBS 업무 조항에 원격교육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이 발생하자, EBS는 전국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원격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 EBS 업무 조항에 '원격교육'을 추가했다. 이로써 원격교육 업무의 인적, 물적 인프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2장. 법제



### 1. 법제화와 법제도의 변화

#### 교육 및 교육방송을 위한 법제 토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자 근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되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권리를 명시했다.

한편,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 개정 및 시행되었다. 이때 교육의 권리 문구가 수정되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바뀌었다. 다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가의 교육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러한 헌법 아래, <교육법>이 1949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되면서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작했으나,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부산으로 수도가 피난한 전쟁 상태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 현장에 대해 고민했다.

1951년 2월 16일, 문교부는 ‘전시하 교육특별조치 요강’을 발표해 ‘피난지 소재의 각 학교에 등록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피난지의 노천학교 등에서 교육이 이뤄졌지만, 교사들에게 행정 및 지도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애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라디오학교> 방송이 1951년 6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나중에는 실제 교과와 관련된 학습 내용도 전파를 타게 되었다.

1972년 3월 30일, 문교부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설립할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때 ‘교육방송 스튜디오 건설’ 사업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8월 30일에는 KEDI가 설립되었다. 뒤이어 1973년 3월 14일,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교육 전문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일이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방송에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시설과 송신시설을 둘 수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제4조 제1항

이에 앞서, <교육법>이 1973년 3월 10일 개정·시행되면서 ‘방송통신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다. 같은 법 제107조 제3항에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1974년 3월 23일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통고) 통신교육의 막이 올랐다. 며칠 뒤인 3월 27일에는 <라디오학교> 방송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교육방송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78년부터는 교육방송국의 독자적인 운영을 도모했으나,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갈라지면서 조율되지 않았다. 그러자, 1978년 7월 26일 ‘국무총리 지시각서’가 하달되었다. ‘교육방송을 삼원화’해 역할을 분담시킨다는 내용이였다. 편성권은 교육방송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제작은 KEDI가, 송출은 KBS가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법제화 모색과 EBS 개국

교육방송은 1983년부터 ‘교육 전담 방송국으로 독립’을 꾀했다. 약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독립 열기가 고조되었다. KEDI와 문교부는 1989년 8월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초안’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 3일, 여당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상정했으나, KBS 등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교육부는 수정안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KBS의 방송 민주화 투쟁 사태로 인해 교육방송의 공사화 추진은 중단되었다.

1990년 6월 14일, 공보처는 ‘방송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칭)’ 설립은 백지화되고, 대신에 ‘KBS 제3TV를 교육방송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이였다. 1990년 9월 2일, <방송법> 등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방송제도 개편이 마무리되었다.

마침내 1990년 12월 27일 EBS가 개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이 출범한 것이다. 이때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통대)\*의 인력과 제작 기능 일부를 이관받았다. 기존에 방통고 통신교육을 전담해온 EBS는 방통대의 통신교육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개국에 앞서, EBS는 1990년 12월 24일 ‘교육방송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로써 교육방송의 사업과 조직, 제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다만,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1992년 6월 15일에는 ‘교육방송 강령’을 제정해 정신적 이념과 추구해야 할 목적 등을 명문화했다. 강령에는 ‘전문과 총강, 프로그램 및 행동 준칙’ 등이 담겼다.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1972년 3월 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교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EBS 방송강령> 전문 중에서

### 공사화 투쟁과 법제화 과정

EBS는 독립적인 채널을 이뤘으나, 법적인 지위와 위상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기관발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1992년 12월에 ‘독립 공사화’를 건의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문교부는 1993년 4월에 ‘한국교육방송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했다. 이후, EBS 임직원들은 공사화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공사화 대신 정부출연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였다. 공사는 KBS 하나로 족하다는 인식이였으며, 심지어 KBS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는 EBS의 공사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결국 1994년 12월 27일, EBS 개국 4주년인 날에 임직원들은 파업으로 공사화 투쟁에 나섰다. 예산과 인력 부족, 열악한 제작 여건 등 산적한 문제들 때문이였다. 급기야 국무총리실이 나서게 되었다. 공사화에 대한 정부 단일안의 국회 제출을 약속하면서 파업은 종결되었다.

1995년 1월 18일, ‘교육방송 제도개선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교육방송을 KBS에 통합하는 공보처 안이 합당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EBS는 물론 다른 방송사까지 거세게 반대했다.

1996년 3월,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원법>을 추진하고,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방송개혁국민회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제출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96년 12월 17일, <한국교육방송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 13일 법이 시행되었다. ‘독립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편성의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같은 해 3월 12일에는 ‘한국교육방송원’이 정식 출범했다. KEDI 부설 교육방송이던 위상에서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맞이한 것이다.

\* 1994년 9월 30일에 시민단체 및 각 방송사 노동조합 등 45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단체이다.

\*\* 편성 승인 규정이 ‘교육부 장관 제출’로 바뀌어 독자적인 편성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원을 설립하여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을 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회교육을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조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EBS는 제작 인력과 공간, 재원 등의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1997년 8월 28일, 노조는 ‘교육방송 완전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장기화되었다. 그러던 중에 제1야당이 ‘교육방송의 공사화’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8일간의 파업은 종료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EBS 공사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오랜 산고 끝에 1999년 12월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독립 공사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00년 1월 1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3월 13일에 시행되었다. 드디어 2000년 6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해 EBS의 공사화가 완성되었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위상이 달라진 EBS는 ‘정관’을 비롯해 직제와 인사, 보수 등 37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은 2000년 6월 12일에 제정해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관은 공사 설립 절차 중 핵심 사항이며, 설립부터 조직, 업무 활동 등의 근본 규칙을 정해 공사의 자주적 법규를 세우는 행위이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 2005년 2월 4일에는 ‘EBS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부패방지과 깨끗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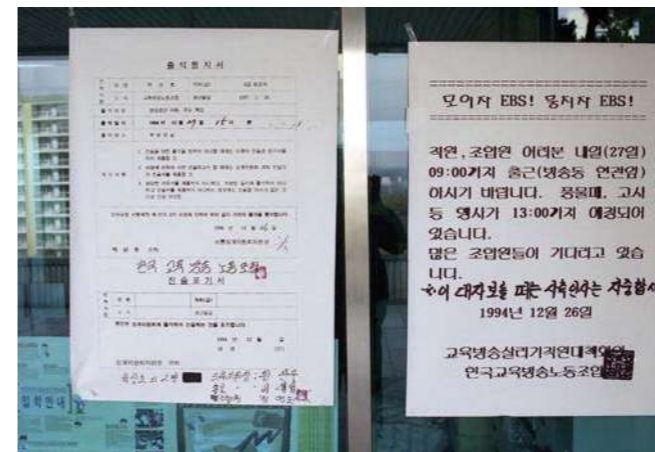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주요 내용**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공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2001년 1월의 1차 개정,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6차 개정은 타법 개정으로 인해 단순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1



2



3



1, 2. 1990년대 EBS는 공사화만이 유일한 발전 방안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1994년 12월 27일 진행된 교육방송 살리기운동

3. 1997년에는 노동조합 중심으로 교육방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9월 30일 노동조합의 여의도 가두시위



<공사법> 2차 개정(2003년 8월 21일 시행)에서는 ‘상임이사 2인’이 임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상임이사 2인과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5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했는데,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 구성’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사장이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사의 사장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두었다.

7차 개정(2013년 8월 13일 시행) 때는 결산서의 제출 절차 등의 내용을 변경했으며,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 23조 제6항에 신설했다.

8차 개정(2014년 9월 4일 시행)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강화했다.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8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차 개정 (시행 2003.08.21. /법률 제6970호, 2003.08.21.일부개정)	예산을 방송위원회 승인·확정 방식에서 자체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사장 및 부사장 등이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한 이사회의 구성방식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비상임이사 9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함 공사에 대한 공적 감시 장치로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7차 개정 (시행 2013.08.13. / 법률 제12093호, 2013.08.13. 일부개정)	국회의 결산 승인이 늦어질 경우, 감사원 결산 검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함
8차 개정 (시행 2014.09.04. / 법률 제12744호, 2014.06.03. 일부개정)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2015년에는 <공사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9차 개정(2015년 1월 20일 시행)에서는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제6조의2로 신설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과 ‘과태료’ 조항도 각각 신설했다. 또한,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10차 개정(2015년 12월 1일 시행) 때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곧이어 11차 개정에서는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사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포함시켜 시청자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

2018년에는 12차 개정(2018년 2월 21일)이 이뤄졌다. 결산서 제출을 ‘매년 4월 10일’에서 ‘매년 3월 31일’로 조정했다. 이로써 다음 예산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12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9차 개정 (시행 2015.01.20./ 법률 제13074호, 2015.01.20. 일부개정)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10차 개정 (시행 2015.12.01. / 법률 제13541호, 2015.12.01. 일부개정)	예산서와 운영계획을 서로 다른 시기에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방송사에 이중 부담이 되는 상황임. 이에 예산서와 운영계획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료작성 및 제출 부담을 경감함
11차 개정 (시행 2015.12.22. / 법률 제13615호, 2015.12.22. 일부개정)	공사 정관에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함
12차 개정 (시행 2018.02.21. / 법률 제15410호, 2018.02.21. 일부개정)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으로, 이를 앞당김 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 법정형을 징역형 대비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 당 벌금액 1천만 원’의 비율에 따라 정비함

2019년에는 13차 개정이 이뤄졌다. 공사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인가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학교교육 공백이 발생했다. 이때 EBS는 세계 최초로 원격 교육을 통해 팬데믹 학습 공백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를 지켜본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교육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차 개정(2020년 12월 8일 시행)이 이뤄졌다. 제7조 제4의2 공사의 업무 조항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해 추가했다. EBS의 원격교육 업무를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일이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법>을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했다. 2022년 4월 20일에 법 시행이 예고되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조항을 신설해 공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3~15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3차 개정 (시행 2019.12.10. / 법률 제16826호, 2019.12.10. 일부개정)	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14차 개정 (시행 2020.12.08. / 법률 제17634호, 2020.12.08. 일부개정)	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15차 개정 (시행 2022.04.20. / 법률 제18518호, 2021.10.19. 일부개정)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

2020년 온라인학습 현장을 방문한 교육부총리. EBS의 공교육 보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 원격교육의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 2. 방송법 및 관련법의 변천

우리나라 정부는 1963년 12월 16일 <방송법>을 제정했으며, 1964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방송의 정의'가 처음 규정되었다.

1980년 11월 12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언론 통제법'을 단행했다. 후속 조치로, 1980년 12월 31일 <방송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1992년 7월 1일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시행했다. 이로써 1995년 3월 1일 '케이블 TV'가 등장하게 되어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열렸다. 방송계 인력이 대거 이동했으며, 특히 EBS는 인력 유출이 심했다.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을 의결 처리했다.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 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이때 EBS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되었다.

뒤이어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송법>\*\*\*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었다. '수신료의 사용' 조항에 "한국방송공사는 징수된 수신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EBS는 KBS로부터 수신료를 배분·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2000년 3월 20일 시행된 <통합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때 EBS는 TV 수신료 배분을 10~15% 정도 기대했지만, 3% 수준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2004년 3월 22일, <방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위성 DMB' 방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뒤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EBSu가 위성 DMB 방송을 시작했다.

\* 1980년 5월 31일 신군부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세운 임시 행정기구이다.

\*\* 1997년 8월 25일 위성방송국을 개국해 위성 1, 2TV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 종전의 <방송법>과 달리, 법체계를 통합한 <방송법>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다.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시대 맞아, 2008년 4월 1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IPTV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약 한 달 뒤인 12월 12일부터 EBS는 IP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이제 미디어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고, 방송·통신 융합이 본격화되었다.

뒤이어 2009년 11월 1일, <방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 소유 상한을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즉, ‘신문·방송 겸영’의 길이 열렸다. 이후,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및 보조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승인했으며, 2011년 12월 1일에 종편이 개국했다. 종편 4사가 새로 등장해 미디어 시장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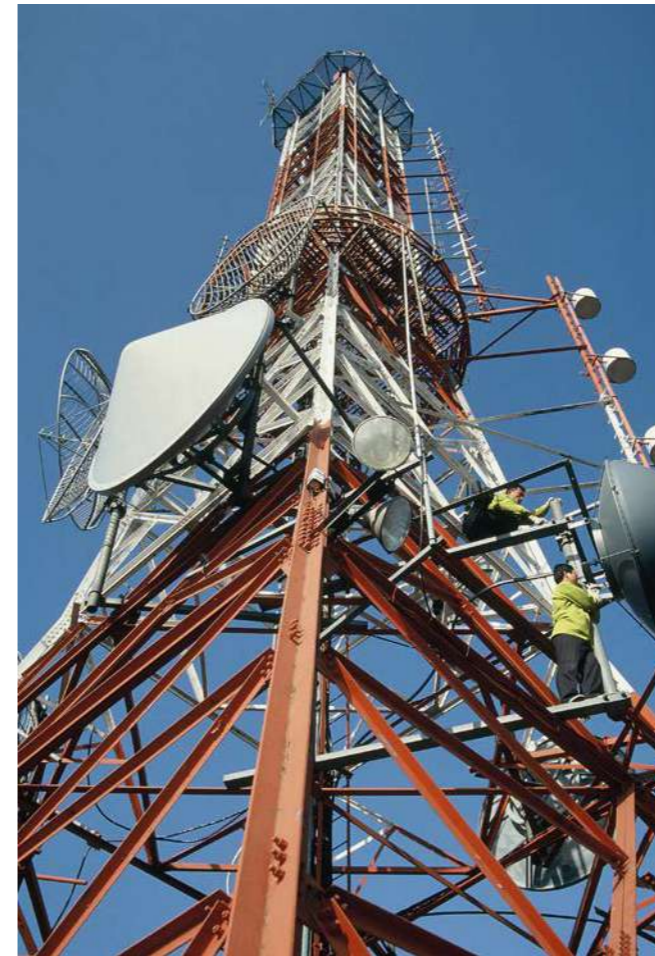
한편 2010년 9월 1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 04시’로 확정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법에서 정한 날에 우리나라는 디지털TV 방송으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에 대해 권고로 되어 있던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2012년부터 서비스 의무화 및 편성 비율을 확대하게 되었다. EBS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 방송사 최초로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2012년 7월 18일, <방송법>이 16차 개정·시행되었다. 이때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의무 제도가 확대되었다. 의무 편성에 소극적인 방송사에게 해당되는 일이었다. 이미 EBS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기획 및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방송 편성을 통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보급에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EBS는 통로 역할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며, 단단한 입지 확보로 의무 비율 편성을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개정된 <방송법>보다 앞서 EBS는 애니메이션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EBS는 <방송법>의 변화는 물론,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며 시스템과 프로그램, 편성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던 것이다.

1



1. 1997년 EBS 위성방송이 개국했으나 관련 법령은 1999년 12월에 뒤늦게 마련되었다. 사진은 1996년에 구축된 위성 안테나

2



3



2. 2004년 <방송법> 개정으로 EBS의 위성 DMB 방송이 가능해졌다. TU미디어와의 DMB 교육채널 계약 체결 모습

3. EBS는 2012년 12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했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사진은 디지털 방송 장비



# 편성 방향 및 프로그램

학교교육에서 시작,  
유아·어린이,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명가로

## 1990

- EBS개국과 함께  
방송시간 확대 시작
- 학교교육 방송 비중 강화



1990년 EBS가 개국하면서 방송 시간은 하루 4시간 20분에서 7시간 40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요일 방송도 시작되었다. EBS는 학교교육 외에도 다양한 편성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교육이 여전히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1990년 이후부터 꾸준한 노력으로 유아·어린이 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확산되어 갔다.

## 1996

-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따라  
방송시간 연장
- 위성방송 개국으로 학교교육 강화



1996년부터 하루 8시간 30분으로 방송시간이 늘어났다. 방송기술의 진화에 따라 생방송 진행 등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수능 대비 프로그램,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이 등장했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학교교육 방송도 심화되었고, FM에서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등장했다. 이후 EBS TV는 평생교육, 위성TV는 학교교육 중심으로 방송되었다.

## 2000

- 공사의 출범,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 시청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거 편성



한국방송공사 출범 이후 EBS 편성 방향도 크게 달라졌다. 인터넷·정보교육 등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되었다. 또한 시청 대상별 시간대가 블록화되면서 새로운 유아·어린이, 주부, 성인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학교교육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사전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 2004

- 수능과의 연계에 따라  
채널별 특성 강화
- 유아·어린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대거 편성



2004년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EBS 학교교육 방송과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능 방송이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등에서 방송되면서 각 채널별로 특화된 편성을 시작했다. EBS는 평생교육을 위한 편성으로 방향을 정하고, 유아·어린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했다.

## 2015

- EBS 2TV 개국
- 공영성과 공익성, 인성교육의  
콘텐츠 강화



2015년 EBS 2TV가 개국했다. 이에 따라 1TV와 2TV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편성이 시행되었다. EBS 1TV는 '콘텐츠 경쟁력 제고', '공영성·공익성 강화', '매체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EBS 2TV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보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한편, EBS 플러스1, 플러스2 및 English 채널은 '학습 및 인성교육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 방송했다.

## 2020

- 사상 초유의 위기,  
코로나에 맞선 편성
-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EBS는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발전',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중심으로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콘텐츠를 주로 선보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언택트 프로그램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콘텐츠들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 3장. 편성 방향 및 프로그램



## 1. 유아·어린이

### 유아·어린이 콘텐츠 도전과 개척

EBS는 1982년부터 교육방송 최초의 유아 프로그램 <텔레비전 유치원>을 방영했다. 당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와 달리, <텔레비전 유치원>은 유치원 교과과정을 이수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송해 교육방송의 공영성을 지켜나갔다. 한편, <텔레비전 유치원>은 1989년부터 <딩동댕 유치원>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 12월에 EBS가 개국하면서 TV 제작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했다. 개국 당시의 기본 편성 방침은 학교교육 중심이었다. 평일은 학교교육, 통신교육 중심으로 편성하고, 진로·직업·기술교육, 교원교육, 가정교육이 뒤를 따랐다. 일요일에는 특집 성격의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했다. 개국 당시에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우리는 꿈나무>, <우리동산> 등이 있었다.

1992년부터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대신에 과학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1993년 3월에는 중점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을 한층 강화했으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요>를 신규 편성했다. <만들어 볼까요>는 창의력을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수많은 화제와 인기 속에서 방송되었다.

1994년 2월 28일 개편 때에는 어린이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꼬마 요리사>가 편성되었다. <꼬마 요리사>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EBS 대표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했으며, 교육적·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방송 진행자인 노희지 어린이는 전국구 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EBS는 1995년 3월부터 <생방송 선생님 질문 있어요>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생방송을 최초로 시도한 일이었다. 상식과 과학, 학습 등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최초의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구성의 독창성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방송위원회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방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7년 8월, EBS는 위성방송국을 개국했다. 이제 지상파TV는 교과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늘리게 되었다. 유아·어린이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2개의 블록으로 설정했으며, 초등교과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축소 및 폐지해 나갔다.

**연령대별 세분화 및 영역별 확대**

EBS는 2000년에 ‘공사화 원년’을 맞이했다. 공사 출범에 맞춰 ‘학교교육의 보완, 평생교육의 확충,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편성 목표를 제시했다. 공사에 걸맞은 채널 정체성 및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쳐나갔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갈수록 축소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EBS는 역으로 확대하는 편성 방향을 세웠다. 우선, 연령대별 유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송 3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EBS는 3~5세 프로그램과 6~7세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및 다양화하는 편성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 3월부터 <방귀대장 뽕뽕이>가 방영되었다. 3~4세 유아의 정서, 지능, 창의성과 상상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기존의 유아 프로그램들이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가르치고 전달하는 패턴이었는데, <방귀대장 뽕뽕이>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했다.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EBS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방귀대장 뽕뽕이>는 토종 캐릭터 ‘뽕뽕이’와 ‘짜잔형’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2001년부터 주 2회에서 5회로 편성을 확대했다. 또한, 비디오 출시 및 캐릭터 인형 판매 등의 수익 창출로 캐릭터 사업에 이정표를 세웠다. 2001년에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28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청소년 부문에서 작품상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제29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부문에서 TV프로듀서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편, 2000년에는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을 토요일특집으로 확대해 <모여라 덩동댕>도 신설했다.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출연자와 어린이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개방송으로 제작했다. <모여라 덩동댕>은 6~7세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으로서 발달 단계와 특징에 맞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모여라 덩동댕>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공개방송을 활성화해 전국적으로 EBS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찾아가는 공개방송을 통해 지방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해 제공했다. 특히, ‘번개맨, 똑딱이, 똑딱이 아빠’ 등 출연 캐릭터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

1



3



1. 1994년 큰 화제를 모았던 <꼬마요리사>. 어린이 스스로 음식을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
3. 놀이를 통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은 <방귀대장 뽕뽕이>. 방송은 물론 캐릭터 사업에서도 이정표를 세웠다.

2



4



2. 어린이 프로그램 최초의 생방송 진행 및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이었던 <생방송 선생님 질문 있어요>. 방송위원회 ‘어린이·청소년 방송상’ 수상작품이다.
4. 번개맨, 똑딱이, 똑딱이 아빠 등 수많은 캐릭터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던 <모여라 덩동댕>. 전국 공개방송으로 지방 어린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1



1. 2003년 새로운 형식으로 각광받았던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 <Go! Go! Giggles>의 한 장면. 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2



3



2. 2003년 게임과 전화 연결 등 생방송으로 진행된 <생방송 푹! 푹! 보니하니>. 2021년까지 방송되어 최장수 어린이 생방송 프로그램의 영예를 안았다. 역대 보니하니들의 기념 사진.  
3. 비밀친구인 봉구와 바바가 들려주는 유쾌한 리얼 성장기를 다룬 <봉구야 말해줘>

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유아·어린이 공개방송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제 EBS는 참신하고 실험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더불어 과학, 한글 및 수학, 영어교육, 신체 활동 발달, 미술 등으로 유아·어린이 영역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2003년에는 공개방송 <뽕뽕이랑 야야야>가 신설되었다. <방귀대장 뽕뽕이>가 스튜디오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놀이 활동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유아들과 고정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 <Go! Go! Giggles>, 서바이벌 게임 형식의 과학 프로그램 <사이언스 大戰>, <생방송 푹! 푹! 보니하니> 등을 신설했다. <생방송 푹! 푹! 보니하니>는 각종 게임과 전화 연결 등으로 어린이 시청자들의 실시간 참여를 유도하면서 쌍방향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주었다. <생방송 푹! 푹! 보니하니>는 2021년 3월까지 방송되어 최장수 생방송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기념비를 남겼다.

2004년부터 EBS는 유아의 연령을 더욱 세분화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8~30개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토끼가 까꿍>을 방송한 것이다.

EBS는 영역별 프로그램 확대도 한층 강화했다. 미술 프로그램 <다빈치를 찾아라>(2003), 유아 한글 교육 프로그램 <한글이 야호>(2006), 신체 활동 발달 프로그램 <알록달록 콩콩이>(2006), 유아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야무야무 참참>(2008) 등을 제작·방영했다.

2009년에는 고품격 유아 사전 기획 프로그램에 인력, 시설, 제작비를 투자해 유아·어린이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하하볼의 상상 놀이터>, <다큐 동화-달팽이>, <깨미랑 부카채카>를 신설했다. 또한, 실험적 형식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리얼리티 쇼-유아독존>, <퀴즈장사 만만세>, <어린이 모험극-스파크> 등을 신규로 기획했다.

### 유아·어린이 킬러 콘텐츠 개발

EBS는 2010년에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교육 정체성 및 채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오전·오후 시간대를 유아·어린이 시간대로 블록화해 채널 인지도 제고를 꾀했다. <방귀대장 뽕뽕이>는 탄생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뽕뽕이’를 선보였다. 상상과 탐험, 한글놀이를 통해 심화된 교육적 콘텐츠로 최고의 유아놀이 프로그램 전형을 제시했다.

이후 EBS는 ‘창의·인성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다. 2011년 가을에는 <방귀대장 뽕뽕이>가 전



면 재설계를 통해 창의·인성 교육 성격을 한층 보강했다. 이러한 편성 방향에 맞춰 <숲 속 친구 파파를라>(2011), <곰디와 친구들>(2013), <붕구야 말해줘>(2013), <모야 모야>(2013)가 제작·방영되었다.

2016년 가을 개편 때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속담이 야호>, <수학이 야호>를 모듈화 편성했다. 이는 프로그램 사업과 콘텐츠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속담이 야호>는 유아의 언어적 유창성을 신장하도록 기획된 유아 프로그램이었다. 속담송과 흥겨운 국악 장단으로 어려운 속담들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었다. <수학이 야호>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EBS는 2018년에는 ‘유아·어린이 콘텐츠 혁신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제작, 편성, 사업이 연계된 제작 프로세스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명령이다, 비트!>, <세미와 매직큐브> 등과 같은 유아 어린이 멀티플랫폼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다. <명령이다, 비트!>는 7~9세 어린이 대상의 키즈 컴퓨팅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으로서 사전 제작 시스템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2019년에 EBS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전담 TFT 운영을 바탕으로 <뭐든지 뮤직박스>, <자이언트 펭TV>를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계 프로젝트로 기획한 <예술아 놀자>,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 4 등을 신규 편성해 콘텐츠 트렌드에 맞는 창의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다. 2014년부터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딱지>는 인체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는 인체 과학 프로그램에서 의학·과학·안전 콘텐츠로 변모한 것이다.

이렇게 TFT가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2019년 3월 20일부터 <자이언트 펭TV>가 방송으로 방영되지 않는 모바일 에피소드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양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현장형 셀럽 캐릭터 ‘펭수’의 첫 등장이었다. 뒤이어 2019년 4월 2일부터 <자이언트 펭TV>가 방송을 통해 선보이게 되었다.

EBS 신규 핵심 IP(Intellectual Property) 개발 및 모바일, 수익형 콘텐츠 강화를 위해 개발한 <자이언트 펭TV>는 론칭 이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을 꿈꾸며 남극에서 온 210cm 거대 펭귄 ‘펭수’는 생생한 현장성과 의미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인기 크리에이터이자 스타 캐릭터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EBS의 연습생이자 크리에이터인 펭수는 2019년 9월에 ‘EBS 아이돌 육상대회(이육대)’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



2



3



1. 인체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는 인체 과학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최고다 호기심딱지>. 이후 의학·과학·안전 콘텐츠로 변화 발전했다.
2.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예술적 소양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아 어린이 창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 <뭐든지 뮤직박스>
3. 2019년 4월 첫 선을 보인 소통형 콘텐츠 <자이언트 펭TV>. ‘펭수’는 최고의 화제와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다.



이후 국민적인 관심과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면서 EBS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11월 27일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가 같은 해 12월 4일에 ‘2019년 올해의 인물’을 조사·발표했는데, ‘뽕수’가 방송·연예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전면 개편으로 <딩동댕 유치원-또또리숲과 요정친구들>이 새롭게 탄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체험교육, 과학실험, 야외 학습 활동 등의 아이টে을 강화해 프로그램의 내실이 더욱 다져졌다. 만들고 체험해보는 콘텐츠들을 개발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영·유아 및 어린이 대표 프로그램 <최고다! 호기심딱지>, <방귀대장 뽕뽕이>, <햇도그랑 만들어볼까요> 등의 신규 시즌도 제작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으로 교육 및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해 방송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 경험을 선사했으며, 부모의 보육 교육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공익적 가치가 깃든 프로그램이었다.

**어린이·청소년 드라마의 산실**

1990년대 초, EBS 드라마는 초등 대상 <바른생활> 교과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정직, 협동, 공동체 의식 등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덕목을 테마로 드라마를 전개했다. 초기에는 고정된 인물이 나오는 15분물 드라마로 출발해, <우리동산>(1991)과 <언제나 푸른마음>(1994)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시추에이션 드라마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4년 봄 개편 때부터 방송된 어린이 드라마 <언제나 푸른마음>은 기존 도덕 교과서의 덕목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어린이를 EBS TV 앞으로 불러 앉혔다. 그 결과, 1994년에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하는 한국PD대상 드라마 부문에서 SBS <모래시계>와 함께 드라마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EBS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시추에이션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제작했으며, EBS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을 했다. <우리는 와이틴>(1996)을 필두로, <감성세대>(1996~1997), <내일>(1998), <네 꿈을 펼쳐라>(1999~2000) 등과 같은 어린이·청소년 시추에이션 드라마를 방송했다.

시추에이션 드라마는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해 EBS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아울러 다른 방송사에서 잘 제작하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드라마를 주로 제작함으로써 방송과 연기에 뜻이

1



2



3



4



1. 리모델링을 통한 전면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한 <딩동댕 유치원-또또리숲과 요정친구들>,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내실을 더욱 다졌다.
2. 2021년 EBS 대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진화 발전한 <모여라 딩동댕> 제작 현장
3. 1994년 청소년 드라마의 신기원을 열었던 <언제나 푸른마음>. 그해 SBS 드라마 <모래시계>와 함께 최고 드라마로 각광 받았다.
4. 1999년 2월 청소년 드라마 제작 현장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1. 2000년대 초반 다양한 형식으로 방송되었던 <TV로 보는 원작동화>. 동화를 드라마 형식으로 흥미롭게 만들었다.

2. 학교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각종 청소년 문제와 고민을 심도 깊게 다룬 드라마 <학교 이야기>

3. 12시간 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청소년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있는 많은 아역 연기자들이 EBS를 통해 데뷔했다. 김진이, 주상욱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000년에 공사로 전환한 후, 청소년 교육, 가정교육, 민주시민 교육, 부모교육, 과학교육의 효과적 전달 장치로 다양한 형태의 다큐드라마를 제작했다. <다큐드라마-학교 이야기>(2000), <다큐드라마-사랑의 교육학>(2000),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2001), <다큐멘터리 특종 비사>(2001), <TV 전기문 나의 부모님>(2002), <도전탐구-길을 만든 사람들>(2002) 등이 있었다.

주로 인터뷰와 드라마 재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다큐드라마-학교 이야기>는 다큐드라마에서 시작해 단막극으로 점차 그 포맷을 확장하면서 EBS 어린이·청소년 드라마의 지평을 넓혔다.

이후, 시추에이션 드라마가 퇴조하고 미니시리즈가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EBS는 2002년부터 차별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단막극을 주로 제작하게 되었다. 매회 새로운 주인공 공과 새로운 이야기로, 보는 재미와 더불어 나의 삶과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다양한 단막극들이 제작되었다.

동화를 드라마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한 <TV로 보는 원작동화>(2002)를 비롯해, <역사극장>(2002), <문학산책>(2003) 등은 다루는 영역에서부터 제작 포맷에 이르기까지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아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TV로 보는 원작동화>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방송되었는데, ‘하얀 깃발 우리 집’ 편이 ‘2002 ABU 프라이즈’ TV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특별상을, ‘비행기’ 편이 ‘2002 재팬 프라이즈’ ‘Early Education(유년교육) 부문’에서 EBS 최초로 ‘Top Prize(최고상)’를 수상해 EBS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TV로 보는 원작동화>는 2011년에 수상 전략형 콘텐츠 확대 편성 방침에 따라 새롭게 제작·방영되었다.

2004년 3월에는 8부작 미니시리즈 <네 손톱 끝에 빛이 남아있어>, <엄마와 함께 쓰는 동화>가 방송되었다.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극본 공모 당선작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다. 특히, SF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사실과 주 2회로 시리즈 편성했다는 점 등에서 실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북한 어린이를 연기한 이흥기와 정인선의 호연도 돋보였다.

1999~2000년에 방송된 <청소년 드라마 네 꿈을 펼쳐라> 이후, 끊어졌던 청소년 드라마의 명맥이 다시 이어졌다. 2005년에는 15부작 <겨울아이>와 30부작 <점프>, 2006년에는 <비밀의 교정> 24부작으로 다시 이어졌다.

역사 여행을 다룬 드라마 <점프>는 시공간 이동이라는 독특한 구성과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



을 통해 좀 더 재미있게 역사를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비밀의 교정>은 여러 등장인물의 비밀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마주한 갈등과 부조리를 파헤친 구성으로 참신함을 주었다. 더불어 이민호, 박보영이라는 스타를 데뷔시켜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었다.

EBS는 2010년에 다문화 가족드라마 <마주보며 웃어>를 방송했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 드라마였으며, 베트남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2010년 이후, 국내 드라마 시장이 한층 과열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EBS 어린이·청소년 드라마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는 소년>(2010-2011), <플루토 비밀결사대>(2014), <갤럭시 프로젝트>(2015) 등 독특한 기획을 토대로 삼아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해 나갔다. 2021년 9월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을 제작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어린이다운 발상과 추리력으로 풀어내는 청소년  
추리 수사물 <플루토 비밀결사대>



## 2. 애니메이션

### 대표 애니메이션 플랫폼 EBS

국내에서 창작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시청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상파 3사 모두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케이블TV가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투니버스로 대표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생기면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EBS는 1990년 개국 이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했지만, 대부분은 <플란타스의 개>, <신밧드의 모험> 등 해외 애니메이션이었다. 예산이나 인력 운용 측면에서 막대한 제작비와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기에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2000년에 EBS가 ‘공사화 원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국내 창작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이 EBS TV에 등장한 시점은 2001년 하반기 편성 때였다.

2001년 <레카>의 더빙 작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EBS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은, 2003년 <뽀롱뽀롱 뽀로로>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EBS는 제작비 경쟁이 아닌, 명확한 채널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화한 편성 전략을 무기로 삼았으며, 미디어로서 커미셔닝 역할을 강화하면서 유아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당시 미국의 PBS나 영국의 B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디즈니(Disney)와 니켈로디언(Nickelodeon)과 같은 상업방송 역시도 편성 시간대 혹은 채널별로 연령층을 세분화한 편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EBS는 <방귀대장 뽀뽀> 등의 유아 콘텐츠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바, 다른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편성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3년 11월 27일, EBS는 첫 남북 합작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애니메이션 성과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구가했으며, 프랑스 최대 지상파 방송사인 ‘TF1’에 국산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방송되는 영예도 누렸다.



1



1.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에서도 크게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의 신화 <뽀롱뽀롱 뽀로로>. 주인공인 뽀로로는 최고의 인기를 모은 캐릭터였다.

2



3



2. 2004년에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내 친구 드래곤>. EBS와 캐나다, 독일 방송사들이 함께 제작했다.  
3. 귀여운 꼬마 공룡들과 이쿠족이 좌충우돌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투모야 친구들>

2004년부터 EBS는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을 대거 편성하기 시작했다. 국산 애니메이션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내 친구 드래곤>(2004)을 필두로, <투모야 친구들>(2004) 등 상당수의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

이후, <뽀롱뽀롱 뽀로로>는 시즌 8까지 제작되어 한국 애니메이션도 시즌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꾸준히 수출되면서 국산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드높였다. EBS는 제작 지분에 참여해 최소 비용 투자로 최대 효과라는 성과까지 누렸다.

EBS는 2005년에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했다. 2005년 6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제작해 방영했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 필요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아동 심리학자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성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었다.

2006년에는 국내 창작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궁금해요 핑퐁>을 필두로, <야호! 응가네>, <빼꼼>, <선물공룡 디보> 등을 방영했다. <빼꼼>의 경우에는 영국 BBC 등 30여 개국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뒤이어 2008년에는 국내 제작 HD 애니메이션 <냉장고 나라, 코코몽>을 신규 편성했으며, 서울 시내 간선버스인 파랑색 버스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가 방영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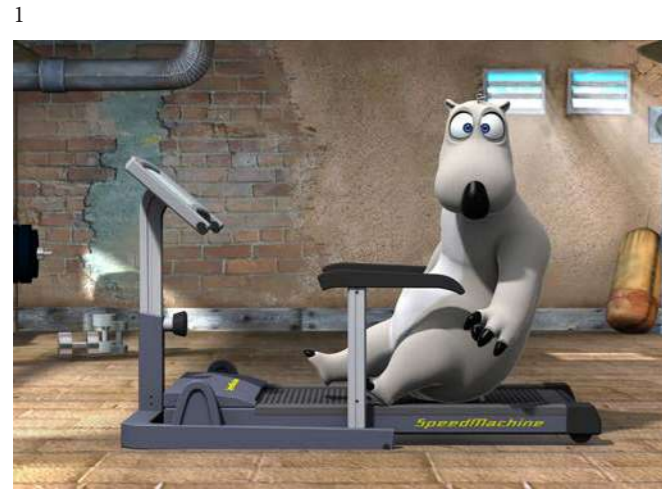
이제 가능성을 확인한 EBS는 차별화한 편성 전략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재패니메이션의 높은 영향력 아래 놓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3D 애니메이션으로의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에는 EBS가 그동안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 국내에서는 '2010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우당탕탕 아이쿠>(2010)가 대상을, <부릉! 부릉! 브루미즈>(2010~2011)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MIP Junior 2010'의 Licensing Challenge에서 <로보카 폴리>가 1등에 선정되었으며, <캐니멀>은 어린이 심사단이 뽑은 가장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2년 1월에는 극장용 장편 3D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가 성공적으로 개봉했다. 한국 3D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11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되었다.

한편, EBS는 2014년에 '애니메이션부'를 신설해 독립된 조직을 확보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부는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제작·보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1. 영국 BBC를 비롯해 세계 30여 국가에 수출되었던 애니메이션 <빼꼼>, 북극곰이 도시에 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3.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3D 그래픽과 간결한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었다.

2. 외계 왕자 아이쿠와 외계 로봇 비비의 좌충우돌 말썽행각을 다루고 이에 따른 사고 예방 강의를 소개한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
4. 캔(Can)+동물(Animal)의 합성어인 캐니멀(Canimal)들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캐니멀의 활약상이 펼쳐졌다.

를 계기로 201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며,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유통 채널로서 입지까지 다졌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EBS 애니메이션은 <두다다쿵>(2013~2014), <세미와 매직큐브>(2018~2019) 등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체 기획에 의한 공동제작 모델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EBS의 로열티 매출은 60억 원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EBS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최근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편성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EBS 애니메이션은 축적된 애니메이션 IP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천 소스를 발굴하기 위한 자체 기획력 강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고 있다.

꼬마 탐험가 다다와 어린 두더지 두다, 개성 만점 친구들이 등장한 동물탐험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매직큐브의 선택을 받은 세미가 천재 수학자와 함께 매직큐브에 빨려 들어가 각종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시간 여행을 그린 애니메이션 <세미와 매직큐브>





### 3. 다큐멘터리

#### 자연 다큐멘터리 출발과 성공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 TV의 대형 다큐멘터리는 KBS, MBC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인적·물적 제작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진 방송사만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에 EBS가 개국하면서 다큐멘터리 부문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개국 초창기, EBS는 환경 교육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등을 신설했다. <하나뿐인 지구>는 1993년 5월에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17년까지 장수한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EBS는 TV 채널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교육 채널을 지향하는 편성 방침을 세웠다. 이때부터 EBS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1995년 12월에는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 <송골매와 보라매>를, 1996년 2월에는 <한국의 파충류> 등을 차례로 방영했다. 열악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연출자의 투지와 열정으로 성과를 이루어냈다. 비로소 EBS는 다큐멘터리 채널로서 이미지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EBS는 미공개 생태계의 이색적인 모습 등을 다뤄 돋보이는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파충류>는 1996년 3월에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차지했다. 이후, EBS는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특수촬영팀을 운영 및 지원했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는 대표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해 나갔다.

열악한 제작 여건 속에서도 EBS는 다른 방송사에서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장기 기획 자연 다큐멘터리를 연달아 선보였다. 특히, 1998년에는 <시베리아, 잃어버린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7부작을 방영했다. 이 작품의 반향은 상당했다. 특히,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를 세계 최초로 근접 촬영한 사실과 혹독한 자연조건을 장기간 견디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추적·촬영한 점 등으로 인해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이후에는 한국PD연합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한국프로듀서상, 제35회 백상예술대상 TV

1



2



3



4



1.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긴 시간 동안 방송되었던 환경 다큐 <하나뿐인 지구>. 사진은 1994년 프로그램 제작 장면이다.

3. 한국 자연다큐멘터리의 신화가 된 작품 <시베리아, 잃어버린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2. 1996년 방송된 자연 다큐 <한국의 파충류>. 특수촬영 등으로 파충류의 신비를 다뤄 큰 화제를 모았다.

4. 시베리아 호랑이 촬영을 위해 떠나는 제작팀의 출정식. 이들은 혹독한 자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촬영을 이어갔다.



부문상, 제2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EBS 자연 다큐멘터리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 결과, 북한 조선중앙TV에 이례적으로 방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EBS는 카메라맨이 직접 기획·제작하는 ‘카메듀서(카메라맨과 프로듀서를 합친 말)’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우리 전통문화를 영상에 담는 <잊혀져가는 것들>이 6명의 카메듀서를 통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ENG 카메라맨이 촬영뿐만 아니라 연출, 편집 등을 1인 제작 체제로 소화하면서 능동적으로 남다른 실력을 쌓아나간 것이다. 어느새 EBS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명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자연 다큐와 인문 다큐로 도약**

2000년을 기점으로 EBS는 키즈 부문의 인기몰이에 이어서 다큐멘터리까지 그 뒤를 잇기 시작했다. EBS는 2000년에 ‘공사 출범 원년’을 맞아 성인 대상의 다큐멘터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성인 시청자층의 문화적·지적 욕구 충족을 위함이었다.

EBS는 2001년을 ‘EBS 다큐멘터리의 해’로 선언하고, 다양한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대거 신설했다. 한국적 가치를 발견해 보는 <최창조의 풍수기행>을 비롯해,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인간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을 영상화한 인문 다큐멘터리를 편성했다.

특히, 2001년에는 자연 다큐멘터리 <수리부엉이>, <개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리부엉이>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회 지구환경영상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개미>는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프로듀서상’에서 특집부문 작품상을,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선정하는 ‘그리메상’에서 대상을,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EBS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도 나섰다. 2002년부터 소재의 폭을 넓혀 인문, 과학,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높은 취재와 촬영으로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문자> 3부작에 이어, 특별기획 5부작 <아기성장보고서>가 방영되었다.

<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 발생지와 그 전파 경로를 담아냈으며, <아기성장보고서>는 아기 성장의 신비로운 과정을 밀착 취재해 숨겨진 비밀들을 분석한 다큐멘터리였다. 특히, <아기성장보고서>는 2003년에 ‘올해의 PD상’을 비롯해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EBS는 2003년에 광복절 특집다큐 2부작 <밀림이야기>를 방영했다. 1부 <시베리아 호랑이 3대의 죽음>, 2부 <침묵의 추적자들>이 안방극장을 찾아오게 되었다.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 3대의 죽음>은 EBS 자연 다큐멘터리의 정수로 손꼽혔다. 북한에 방

1



2



3



4



1, 2. 2001년 EBS의 다큐 명성을 이어간 자연 다큐멘터리들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2001년 방송된 <수리부엉이>와 <개미>도 그 중 하나였다.

3. EBS는 자연 다큐를 넘어 인문, 과학,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 다큐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을 내보냈다. 사진은 <문자 3부작> 중 한 장면

4. EBS는 다큐멘터리 명가를 위해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EIDF를 론칭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EIDF는 세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축제의 장이 되었다. 사진은 2020년 개막식 장면





1. 수많은 고증을 거쳐 탄생한 3D 다큐 <한반도의 공룡>. 8,000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의 모습을 우리나라 CG 기술로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2. 2008년부터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다큐프라임>이 편성되었다. <다큐프레임> 작품들 중 국내외 수상작만 200회를 넘었다. 사진은 <문명과 수학>

3. 환경과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류세>. 높은 완성도와 공익적 가치로 세계적인 호평을 얻었다.

송되어 남·북 방송 교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유럽 등에 고가로 꾸준히 판매되는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2006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쥘 베른 영화제(Jules Verne Film Festival)’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많은 수상 실적을 쌓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10년 9월에는 제8회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인 ‘암바(AMBA)’를 수상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4년 4월에는 기획다큐 <마이크로의 세계>가 방영되었다.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으며, 3초에 지나지 않는 장면을 위해서 8시간을 쏟아부어 정밀 촬영을 진행했다. 초당 60프레임에서 최대 12만 프레임까지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 환경 주사 전자 현미경 등 특수 촬영 장비와 첨단 촬영 기법이 총동원되었다.

2004년 8월 30일에는 창의적인 다큐멘터리 시대정신 재발견을 위해 ‘제1회 EBS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EIDF)’을 개최했다. ‘EBS 다큐멘터리 주간’을 설정해 장·단편 다큐멘터리 110여 편을 하루 16시간씩 TV로 소개하는 파격적이면서 획기적인 종일 편성을 보여주었다. 1주일 동안 지상파 TV와 극장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국제 영화제는 EIDF가 최초이자 유일했다. 해가 지날수록 EIDF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으며 매년 열띤 반응을 얻었다. 2012년 3월에는 EIDF 사전 제작 지원 작품인 ‘달팽이의 별’이 제24회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장편경쟁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처럼 EIDF는 사전 제작 지원을 지속 및 확대하면서 다큐멘터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 우수 영화제와의 교류로 인해 EBS의 인지도까지 상승했으며, 국내에서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마니아층이 꾸준히 증가했다.

**명품 다큐멘터리의 산실**

EBS는 2008년에 ‘공사 전환’ 이래 최대의 개편을 단행했다. 주 5회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를 계속 선보이는 파격적인 블록 편성을 선보였다. 즉, ‘고품격 다큐’를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송하게 된 것이다. 국내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제2의 창사’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던진 승부수였다.

가장 먼저 선보인 다큐는 <인간탐구 대기획 5부작-아이의 사생활>이었다. 이후에 <안데스>, <피타고라스 정리의 비밀> 등 고품격 세계 문명 다큐가 연이어 시청자를 찾아갔다.

2008년 8월까지 <다큐프라임>을 통해 총 82편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EBS의 파격적 편성은 한국 다큐멘터리 지형도를 흔들어놓았다. 다른 지상파 방송이 한 해에 한 번꼴로 제



작·방송하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매일 방송했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편성은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져 다큐멘터리 명가로서 EBS의 입지를 굳혔다. 지금까지 200회가 넘는 국내·외 유수의 방송상 수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후 <문명과 수학>(2011)을 비롯해, <학교란 무엇인가?>(2012), <자본주의>(2012), <빛의 물리학>(2013) 등 다큐멘터리 대표작이 연이어 만들어졌다.

이제 <다큐프라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외부 투자 및 제작 지원이 EBS를 꾸준히 찾아왔다. 합작 및 협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TV에서 만날 수 없었던 3D, HD, UHD 등 새로운 형태의 제작 실험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반도의 공룡>(2008)을 비롯해, <위대한 로마>(2013), <녹색 동물>(2016)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중 <한반도의 공룡>은 8천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의 모습을 한국 CG 기술로 재현해냈다. 방송 이후에 영화로도 거듭났다.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는 극장 개봉을 통해 11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기도 했다.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청률을 의식한 방송사들은 소재가 연성화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도 EBS는 교육방송 본령을 중심에 두고, 통찰과 깊이 있는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 싶은 콘텐츠’와 ‘보아야 할 콘텐츠’의 경계에서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져 <대학입시의 진실>(2017), <4차 인간>(2018), <인류세>(2019), <여섯 번째 대멸종>(2021) 등의 완성도 높은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낳았다. 그중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인류세>는 다른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를 제치고,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 EBS 국제 공동 제작과 세계문명사 시리즈

EBS는 2010년부터 ‘세계문명사’ 대기획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방송사들과 공동 제작을 진행했다. 그 대상은 주로 역사 및 문명사와 자연, 기초과학과 관련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세계문명사 대기획 시리즈’는 글로벌 수준의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EBS의 다큐멘터리 지평을 한껏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EBS 세계문명사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기존 정형화된 다큐멘터리와 달리 다큐와 드라마를 혼용하는 다큐드라마 제작 방법을 적극



태평성대를 누렸던 앙코르와트의 전성기를 복원한 3D입체 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 제작 현장. 세계문명사 시리즈 중 하나였다.



적으로 도입했다.

다큐드라마는 과거의 사실을 유물이나 유적, 사료 등 현장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로 재연하는 제작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엄숙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대중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중 친화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심미적 성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이러한 심미적 성격은 시청자가 실제 과거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심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서적인 성격을 제공한다. 즉 다큐드라마는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에 있어서 EBS는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EBS는 기존 한국의 공동 제작 방식이었던 공동자본출자 형태인 ‘Co-Financing’에서 순수 공동 제작 방식인 ‘Co-Production’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국제 공동 제작 방식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문명사 대기획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들의 땅, 앙코르>(2011)를 시작으로 해서, <위대한 바빌론>(2013), <위대한 로마>(2013), <불멸의 마야>(2014),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2015), <불멸의 진시황>(2017), <5원소, 문명의 기원>(2018)에 이르는 7개에 이르는 시리즈를 공동 제작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작해냈다.

그리고 미국 스미소니언에 <신들의 땅, 앙코르>를 35만 불, <불멸의 진시황> 30만 불,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27만 불이라는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고가 수출은 물론, ABU 작품상, AIBD 대상, 한국방송대상, 한국PD 대상,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등 국내·외 다수의 수상 실적과 함께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 4. 평생교육

### 고품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시작

EBS는 개국 초창기에 학교교육 프로그램 중심이었다. 1992년부터는 TV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는 편성 방향을 설정했다. 가족 프로그램 <가정백과>, <일요 주부교실> 등을 새로 편성한 것이다.

특히, 영화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 <시네마 천국>(1994), 공연예술의 소양을 높이는 <예술의 광장>(1994), 실용적인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하는 <EBS 문화센터>(1995) 등은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7년에 위성방송 개국 이후, 지상파TV 편성에 학교교육 콘텐츠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가능해졌다. 1998년 후반기에는 생방송 집중 토론 프로그램 <난상토론>을 편성했다. 당시로써는 획기적이면서 파격적인 차별화된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청률 경쟁에 목매 오락과 드라마 위주로 저녁 황금 시간대를 운영했는데, EBS는 특화된 기획과 편성으로 인지도를 높여나간 것이다. <난상토론>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격렬한 논쟁을 통해 뜨거운 현안에 대한 토론 방향 및 대안 제시를 시도했다.

EBS는 1999년 11월부터 강연 프로그램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고전 강의가 오락·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시청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을 몰고 오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의 방영을 계기로,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강연 프로그램이 방송사마다 많아지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지식과 삶의 깊이를 달라지게 하는 한국 강연 프로그램의 기점으로 작용했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타깃 공략과 강화

EBS는 2000년에 공사 창립 이후, 전문성과 차별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대상별로 방송





1. 1990년대 후반에 방송된 심층토론 프로그램 <난상토론>.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생생한 시청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난상토론-교육을 말하다> 편

2.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인문학과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드높인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

시간대를 블록화해 편성했다.

특히,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출연해 음식의 맛을 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최고의 요리비결>을 2000년에 신설했다. 음식의 제조 비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주부가 TV만 보고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였다. <최고의 요리비결>은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EBS 대표 요리 프로그램이 되었다.

2001년 후반기에는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의 뒤를 잇는 기획 시리즈 <성태용의 주역과 21세기>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EBS TV 강좌 프로그램은 동양철학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명강의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나갔다.

2004년에 EBS는 대중문화의 고급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편성 방향을 설정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간대를 신설하고, TV가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문화, 공연, 영화, 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2004년 4월 1일, 시청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열린 문화 공간 1번지’를 선언하면서 <EBS SPACE>를 개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마련해 고급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마련된 공연장을 통해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음악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다른 지상파에서 볼 수 없었던 상업성을 배제한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다. 이로써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단연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특히, 10~20대가 새로운 시청자층으로 유입되는 효과까지 보았다. 2020년 11월에는 무려 1,500회가 방송되면서 문화적인 품격을 지켜가는 국내 대표 음악 프로그램이 되었다.

<EBS SPACE> 개관에 이어, 대중문화의 고급화를 선도하는 EBS의 편성 방침에 발맞춘 명품 시리즈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4년 하반기, 우리나라 대중문화사를 드라마로 조명한 <EBS 문화사 시리즈>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제1편 <명동백작>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04 그리메상’ 최우수 작품상 등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문화사 시리즈는 제2편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 제3편 <지금도 마로니에는> 등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역시도 백상예술대상 TV 교양 부문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EBS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지는 대표 인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생산해냈다.





1. EBS는 2004년 문화공간 <EBS SPACE>를 개관하고, 고급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추진했다. 이 공연장에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되었다.

2. EBS는 2005년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프로그램 <지식채널e>를 방송했다. 사진과 짧은 글귀로 새로운 시각을 안겨준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3. 2007년에는 각 질병의 분야별 최고 권위자를 소개하고, 예방과 치료법을 집중 소개한 <명의>를 방송했다.

4. 2004년 <문화사> 시리즈로 시작된 <명동백작>, 우리나라 대중문화사를 드라마로 조명했는데 높은 시청률로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6. <세계테마기행>은 일반적인 여행 프로그램과는 달리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름다운 영상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주목을 끌었다.

5. <극한직업>은 새로운 직업관 제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명했다. 이들의 직업정신과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었다.

7. 한국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한국기행>도 시청자들에게 새 시각을 안겨주었다. 그간 몰랐던 아름다움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는 2002년에 ‘위성 1, 2TV’를 ‘EBS 플러스1, 2’로 전환한 것이 단초를 제공했다. 이때 EBS 플러스1은 수능 중심 편성 체제를 강화했다. 다시 2003년에는 EBS 플러스2 채널에 초·중학교 교과 프로그램 편성이 강화되었고, 2004년에는 EBS 플러스1을 수능전문채널로 특화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상파TV 편성에 여유가 생겨 평생교육 콘텐츠가 차츰 늘어나게 된 것이다. 2005년은 EBS를 대표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하면서 신규 제작을 크게 확대하는 기점이 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실험적 프로그램 <지식채널e>(2005), 질병 분야별로 최고 권위를 가진 의사를 다룬 <명의>(2007), 테마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테마기행>(2008),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직업정신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극한직업>(2008), 한국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는 <한국기행>(2009) 등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아이템이 차별화된 실용적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평생교육 콘텐츠 브랜드 경쟁력 극대화**

2010년부터 E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가족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부자유친 프로젝트 <아빠 놀아줘요>를 기획해 방영했다. ‘참여 및 리얼리티’ 포맷을 적극 도입했으며, 향후 MBC의 <아빠 어디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아빠 육아 프로그램 열풍에 단초가 되어준 프로그램이었다. 이후에는 <부부/부모/고부가 달라졌어요>(2012) 시리즈로 가족 공동체 회복에 힘썼다. 단발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장기간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족 관계 회복 코칭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용서>(2013), <대한민국 힐링 프로젝트-화풀이>(2013)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 0700>(2010),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2012), <희망풍경>(2013)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EBS는 2015년부터 급변하는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일럿, 시즌제 등을 통한 사전 기획을 강화했다.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도 펼쳐나갔다. 국내 최초의 교실 중계 프로그램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2015)을 편성한 것이다. ‘100% 무설정 교실 중계’를 표방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관찰해 전달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전 기획을 강화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2015), <글로벌 아빠 찾아

1



2



3



4



1. 2011년 상송된 부자유친 프로젝트 <아빠 놀아줘요>.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리얼리티 포맷으로 후일 타 방송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3.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 긍정적 문화 확산을 유도한 작품이다.

2. TV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을 시도한 <나눔 0700>.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소개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치유할 방법을 찾았다.
4.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돌아보는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애절한 사연과 가족의 의미, 다문화 사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삼만리>(2015) 등과 같은 파일럿 시즌제 프로그램과, 지식 기반 클럽 콘텐츠 <세상의 모든 법칙>(2016) 등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 획을 그으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주는 리얼리티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후 EBS는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콘텐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휴가가 필요한 엄마들을 위한 유급 가출 프로젝트 <엄마를 찾지마>(2017), 국내 최초로 '젠더'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토크쇼 <까칠남녀>(2017)를 편성했다. <까칠남녀>는 TV 평론가들로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용감한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다.

2019년에는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국내 최초로 담은 <건축탐구-집>을 편성했다. 다양한 집을 소개하면서 인간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가 본질인 프로그램이었다.

2020년부터 EBS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힘쓰고자 지식 강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식채널>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EBS 명강>, <EBS 마스터>, <EBS 클래식> 등 대규모 강의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이후에 <EBS 명강>, <EBS 마스터>, <EBS 클래식>은 대중의 니즈에 맞춰 <클래스>로 일원화했다.

또한, <EBS 비즈니스 리뷰(EBR)>(202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2020), 기업의 흥망사를 다룬 <EBR 모멘트>(2020), 경제학 입문 콘텐츠 <EBR 주니어경제학>(2021) 등을 방송했다.

2021년 8월 30일에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정치, 경제, 과학, 인문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글로벌 석학들이 강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한국 방송 역사상 최고의 강연 라인업을 갖춰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계층 간 지식 격차와 SNS를 통해 쏟아지는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의미 있는 행보였다. '지식의 민주주의'와 '교육 혁명'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콘텐츠를 기획했다.

한편, EBS는 2021년 3월에 교육 어젠다 선점을 위한 기획 시리즈로 5부작 다큐멘터리 <당신의 문해력>을 제작·방영했다. 대한민국 문해력의 충격적인 실태를 점검해 학생, 직장인,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화제가 되었다.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문해력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해법도 제시했다.

2021년 11월에는 '문해력 시리즈'인 <문해력 유치원>이 방송을 시작했다. 48-60개월 사이의 유아 문해력 교육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1



3



1.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세계적인 석학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3.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을 추구한 <클래스>. 최고의 명사들이 특정 주제를 두고 심층적인 강연을 진행했다.

2



4



2. 국내 최초로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룬 <건축탐구-집>. 집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 작품이다.
4. 미래의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인 문해력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당신의 문해력>. 충격적인 실태가 등장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화제를 모았다.



## 5. 라디오

### 공사화 이전, 문화·교육의 중심 EBS 라디오

1981년 2월 2일, EBS는 FM 교육라디오 전용 방송망을 마련해 교육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1974년 3월에 <라디오학교> 방송을 인수한 이후, 오랫동안 제기된 라디오 수신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라디오는 ‘유아,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방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편성, 제작, 송출이 문교부, KEDI, KBS로 분리되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KEDI와 KBS가 50대 50 비율로 방송해야 하는 제약까지 따랐다. 교육라디오의 주당 방송 시간은 1985년 기준으로 총 140시간이었다. 이중 교육방송이 제작한 방송은 37시간에 불과했다.\*

1980년대 중반에 교육방송이 제작해 방송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초등 국어>, <즐거운 생활> 등 학교교육 중심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낮의 음악선물>, <이 주일의 명작>, <빛을 남긴 사람들>, <음악 감상> 등의 음악 및 명작 감상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이야기 샘> 등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 교실>, <교사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EBS가 교육전문방송국으로 개국하면서 라디오 방송 시간이 1일 4시간에서 20시간(방송대학 강좌 7시간 포함)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필두로,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시간> 등을 편성했다.

어학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 <토플강좌>, <영어회화>, <중학영어회화> 등을 신설했다. 제2외국어도 ‘러시아어, 일본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독어’ 등의 강좌 프로그램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전국의 국민학교를 탐방하는 <우리 자랑 학교 자랑> 등의 공개방송이 신설되었다.

1994년에는 FM 청취자에게 현장감과 생생한 방송을 중계하기 위해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EBS 라디오는 학교교육 보완 채널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교육정보 채널로 차별화하는

\* 방송통신고 통신교육 9시간 포함

1



2



3



1. 1992년 라디오 제작현장이다. 많은 성우들과 함께 음향 전문가들이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장면이다.

2. 1990년대 초반에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 함께 그려요> 제작 현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3. 1994년 라디오 녹음 현장이다.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턴테이블 등으로 음악을 보완하면서 녹음을 진행했다.



1



2



3



4



1. 1998년 12월 27일에 진행된 <제1회 고운 노래 발표회>. 아름다운 우리 동요의 창작과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 행사이다.
3. EBS FM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학습 효과를 누리하고자 기획된 <FM 영어콘서트> 현장이다. 다양한 사례를 둔 생활영어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

2. <고운 노래 발표회>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2000년에 진행된 공개방송 장면이다.
4. 장기간 방송되었던 <세계음악기행>. 청취자들에게 고품격 음악을 제공했으며 애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다.

편성 방침을 수행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1997년에 라디오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세계화 추세에 대비한 외국어 프로그램 강화 방향으로 전환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했으며, 쉽게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는 생방송 <모닝 스페셜>을 신설했다. 최근에 <모닝 스페셜>은 25주년 방송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등 장수 프로그램의 길을 걷고 있다.

1998년 9월에는 새로운 동요의 발굴과 보급을 위한 창작 동요제인 '제1회 EBS 고운 노래 발표회'를 개최했다. 2009년까지 12년 동안 라디오 공개방송 특집으로 진행했으며, 매년 12곡의 새로운 창작곡이 발표되었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EBS FM 영어캠프'를 처음 개최했다. 'EBS FM 영어캠프'는 청취자와 출연진·제작진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 공사화 이후, 차별화된 라디오 콘텐츠

2000년에 EBS는 '공사화 원년'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라디오는 '어학교육 전문채널 EBS FM'을 전격 표방하면서 약 80%가량이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2001년에는 생활 시간대에 맞춰 어학 채널의 특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4개의 블록으로 편성했다. 또한, 실용적인 어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왕초보 영어>, <김삿갓 영어 방랑기>, <팝스 잉글리시> 등을 신설했다.

2002년에는 외국어 편성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어린이 영어>를 필두로, <초·중급 일본어 회화>, <초·중급 중국어 회화> 등의 외국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소설을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라디오 문학관>, 음악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세계음악기행> 등을 신설했다. 특히, <세계음악기행>은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적 안목을 키워주는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를 신설해 상당수의 고정팬을 확보하기도 했다. 음악, 미술, 공연, 문학, 영화, 생활문화 등 요일별로 다양한 장르를 다루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 문학사에서부터 영화계의 각종 이슈, 동춘서커스 등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EBS는 2005년부터 라디오 콘텐츠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원소스 멀티유스(OSMU)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어학 프로그램 등을 재가공해 AOD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고교 영어듣기>가 EBS 라디오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EBS는 2006년에 PC 전용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 ‘반디(Beyond Analog & Digital)’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청취자들이 손쉽게 EBS FM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2012년에는 라디오 플레이어 ‘반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청취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EBS FM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고 프로그램의 편성이 축소되고, 2008년 6월 18일 자로 ‘라디오 방송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English Book Cafe>, <바삭바삭 영국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라디오 콘텐츠의 파격 변신**

2010년에 EBS는 다른 방송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보이는 라디오’를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선보였다. 2010년 6월, ‘KOBA 2010’에 참가해 ‘보이는 라디오’를 전시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EBS는 2011년에 파격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매주 토요일 특정 주제로 11시간 생방송을 진행한 이슈 메이킹 <EBS FM 스페셜>을 신설했다. 다시 2012년에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편성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월~금요일 매일, 무려 11시간씩이나 다양한 장르의 책 낭독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편성한 파격적인 시도였다.

이 정도로 대규모의 개편은 EBS FM이 탄생한 후 처음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고민한 끝에 책을 선택한 것이며, 책은 교양 및 의식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EBS의 소임과도 잘 부합되었다. 소설, 시, 고전 등 각종 문학작품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독서 저변의 확대를 꾀한 일이기도 했다.

특히, 일반 청취자를 대상으로 북 내레이터를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는 호응을 얻었다. 또한, <EBS 라디오 문학상>을 신설했으며, <북콘서트>와 라디오 연재소설 공개방송 낭독회 <낭독의 힘>, <북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했다.

EBS는 2012년 7월 2일 송파구, 송실대학교와 함께 ‘책 읽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개념 독서운동인 ‘책 읽어주는 택시’를 출범시켰다. EBS FM 채널을 고정시킨 50대의 택시를 통해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었다.

2014년에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 3주년을 맞아 청취 행태에 따라 시간대별로 ‘낭독 Zone’, ‘책 & 토크 Zone’, ‘음악에세이 Zone’으로 나누었다. 특히, 유명 배우 등을 섭외해 베스트셀러 작품 전편을 낭독하는 사전 제작 시스템으로 채널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1



2



3



4



1. 2010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 진행된 <북콘서트>. 행사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나고 독서의 흥미를 일깨워 준 프로그램이다.
3. ‘책 읽어주는 택시’는 신개념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EBS FM 채널을 고정시킨 50대의 택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했다.

2. 공개방송을 통해 라디오 연재소설을 함께 낭독했던 <낭독의 힘>. 이 프로그램도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작품이었다.
4. 청취자들의 화제를 모았던 <오디오 천국>. 이 프로그램은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청취할 수 있었는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방송시간을 크게 늘렸다.



EBS는 2018년에 채널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세계음악 기행>을 부활시켰으며, <공감시대>를 편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모닝 스페셜>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확대 편성했다.

2019년에는 채널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오디오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천국>을 편성했다. ‘라디오를 넘어, 세상의 모든 오디오 콘텐츠를 들려드립니다’ 라는 모토로 진행되었다.

<이다혜 기자의 21세기 씨네픽스>, <악기들의 도서관>, <행복연습프로젝트-지금, 여기>, <라디오 옆 미술관>, <그곳은 어때, 말레이시아>,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 등 책, 영화, 음악, 축구, 야구, 드라마, 정치, 경제, 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오디오 천국>의 콘텐츠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인기에 힘입어 6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8월 26일, EBS는 ‘지식·교양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사이트 [www.ebs.co.kr](http://www.ebs.co.kr)를 전격 개편했다. 7만여 개의 콘텐츠와 영어 클립을 보유한 ‘오디오 어학당’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디오 구독 서비스인 ‘오디오e지식’이 오픈했다. 엄선된 지식만을 모아 큐레이션해 구독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오디오 플랫폼이었다. 책,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 여성, 비하인드 등 다양한 분야별로 양질의 지식 콘텐츠를 선보였다.

## 6. 뉴스

### 교육문화전문 심층 보도

EBS는 개국 이후, 1991년 3월부터 <EBS 게시판>을 편성해 방영하기 시작했다. 교육계와 문화계의 소식을 5분 동안 전해주는 교육방송의 유일한 보도성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저널리즘 보도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갔다.

- 1993년 3월 : 보도 성격 강화하면서 <EBS 교육 소식> 신설
- 1995년 하반기 : <EBS 교육문화소식>으로 개편
- 1996년 3월 : 주간 교육·문화 소식 심층 해설 <EBS 와이드 교육문화소식> 추가 신설
- 1997년 3월 : <EBS 교육문화소식>을 <EBS 교육문화뉴스>로 개편,  
본격적인 교육문화전문 뉴스 프로그램(오전과 오후 1회씩 1일 2회 방송으로 확대)

한편, 유일한 보도성 프로그램인 <EBS 교육문화뉴스>는 교육계와 문화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소식이나 정보의 단순 소개보다는 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되도록 노력했다.

2002년에 EBS 편성은 직업정보 및 직업의식을 담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EBS 교육문화뉴스>에도 변화를 주었다. 구인·구직 등 취업 관련 뉴스 코너를 상시적으로 두어 실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EBS 교육문화뉴스>는 2003년 하반기 편성 때 폐지되었다.

2004년에는 <움직이는 세계>가 신설되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의 뉴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월드 뉴스 프로그램이었다. 다시 2004년 하반기에는 <EBS 월드리포트>가 새로 편성되었다. 주요 방송사의 9시 간판 뉴스가 끝날 무렵인 9시 40분부터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국제 뉴스 전문 프로그램이었다.



### 국내 유일 교육전문 뉴스 제공

2007년 12월 4일, 마침내 EBS는 방송위원회로부터 교육 관련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25일에 <EBS 정보마당>을 개편해 국내 유일 교육전문 뉴스 프로그램 <EBS 뉴스>를 신설했다. 교육과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문화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08년 6월에 경력 기자 3명을 충원했으며, 2009년에는 신입 기자 1명을 공채로 선발해 보도 조직 체계를 갖춰나갔다. 현재 교육뉴스부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0년에는 뉴스가 확대 개편되면서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EBS 10시 뉴스>가 추가로 편성되었다. 이제 하루에 두 번 시청자를 찾아가 더욱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지난해의 학교 회계적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1회 인권보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다.

EBS 뉴스는 심층 취재로 질 높은 교육 정보를 부단히 제공했다. 2012년에는 적극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슈 포커스>와 <이슈 토크>를 신설했으며, 심층적인 보도가 어려운 방송 뉴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국내 방송사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취재하고 촬영·제작해 방송하는 <EBS 스쿨 리포트>도 성공적으로 출발시켰다.

2014년에는 EBS에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3회 수상하고,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시상하는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2회 수상했다. 이후에도 수상 실적 성과는 계속 쌓여갔다. 당시에 10명 안팎의 보도 조직으로서 EBS는 괄목할만한 입지를 굳힌 것이다. 2017년에 보도한 <여기서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기획이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뉴스 및 기획 보도(News & News Features)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서 검정 전환, 교육대학 미투, 학교 교실 발암물질, 환경교육 축소 등 총 12편의 단독 기사를 보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2020년에는 국가적인 화두였던 코로나 사태에 총력 보도로 대응했다. 코로나19 긴급보도 체제로 전환했으며, 재난 상황 대응 차원에서 매시간 코로나 속보를 스크롤 자막 뉴스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정오뉴스>를 <글로벌 교육뉴스>로 전면 개편하고, 해외 통신원들에게 기고를 받는 글로벌리포터 체제도 확립했다.

교육 중심 뉴스로서 EBS는 단발성이나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를 지양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1



2



1. EBS는 교육 현안에 대한 심층 뉴스로 차원이 다른 교육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2021년부터 <글로벌 교육뉴스>가 편성되었다. 해외 통신원들이 글로벌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심층 깊은 해외 소식을 전하고 있다.



# 1990

• EBS 개국

1990년 EBS가 개국하면서 방송을 통한 공교육 보완이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EBS는 암기 위주의 강의를 지양하고 입체적인 자료와 해설을 통해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1997

• 위성방송을 통한 학교교육

1997년 위성방송 개국으로 학교교육 방송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위성 1, 2TV 채널을 통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방송을 선보였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방송,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송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 2004

• EBSi 인터넷 수능강의 시작

EBS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4년부터 'EBSi 인터넷 수능강의'를 시작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e-러닝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래 원격교육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이다.

# 2000

• 인터넷 방송 개국 및 VOD/AOD 무료 서비스 시작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이후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었다. 공사 출범을 계기로 EBS는 학교교육 방송의 변화·발전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특히 VOD/AOD 서비스 등을 통해 선도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 2007

•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 개국  
• 인터넷 사이트 'EBSe' 개설

EBS는 수능에 이어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EBS English'를 개국했다. 영어교육 전용 인터넷 사이트 'EBSe'도 함께 오픈했다. 방송과 웹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e-러닝으로 영어교육을 선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 2010

• 2010년 수능 70% 연계  
• 2011년 '초·중학 인터넷 사이트' 시범 오픈

'사교육비 절감 원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 EBS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모았다. 모바일 앱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방·통 융합에 앞장섰으며, '초·중학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미래형 교육 서비스로 진화된 교육방송을 선보였다.

# 2013

• 국내 최초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 오픈

EBS는 e-러닝을 통한 수학교육 강제도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를 오픈한 것이다. 딱딱한 공식 외우기와 반복된 문제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와 탐구 중심의 패러다임 정착에 앞장 섰다.

# 2018

•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 오픈

EBS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을 구축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 2015

• 'EBS 2TV' 개국으로 교육 복지 실현

국내 최초의 지상파 다채널 방송 'EBS 2TV'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무료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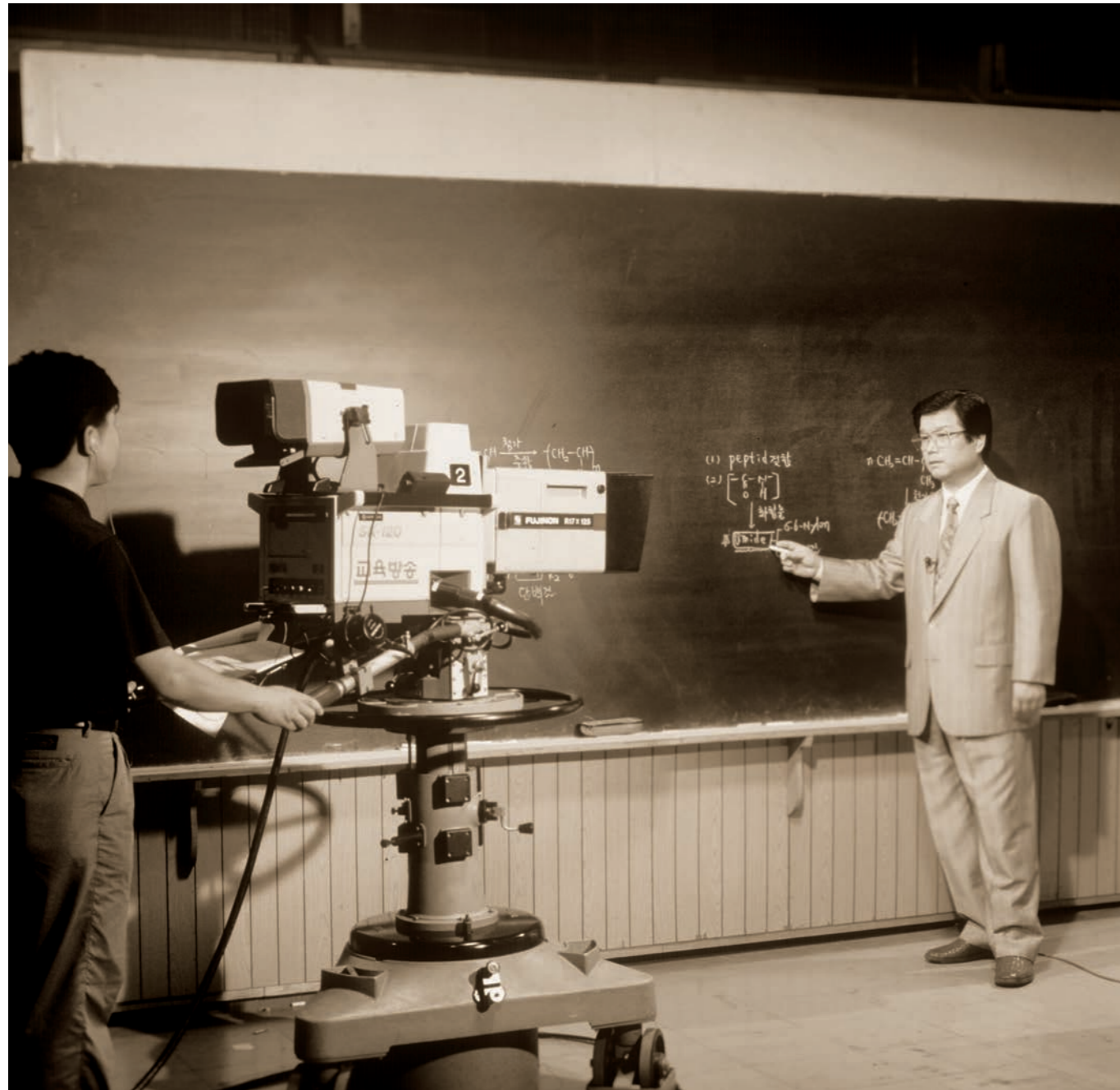
# 2020

• 'EBS 온라인클래스' 오픈,  
'EBS 라이브 특강' 개설,  
'EBS 온라인 개학' 방송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이 발생하자, EBS는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온라인클래스 및 세계 최초의 전학년 대상 라이브 특강을 시작했다. EBS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별 맞춤형 학습 사업, AI 학습 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 4장. 학교교육 보완



### 1. 방송을 통한 공교육 보완

#### 지상파를 통한 공교육 보완

1980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갈수록 극성인 ‘과열 과외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실태 자료에 의하면, 과외비용이 문교부의 1년 예산 8,763억 원(1979년 기준)보다 많은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고, 과열 과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문교부는 과열된 과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TV과의 방송강좌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KBS는 1980년 6월 16일부터 입시수험생을 위한 <TV가정고교>를 1시간 30분씩 방송하게 되었다.

뒤이어, 국보위는 1980년 7월 30일에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과외를 강력하게 금지했으며, 해소방안 제6항에서는 “현행 <TV가정고교> 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 시간과 대상 과목을 늘리는 한편, 1981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즉, ‘<TV가정고교>의 확대’와 ‘교육방송 실시’가 주요 골자에 포함된 것이다.

1980년 8월 8일, 국보위 문공분과위는 KBS의 <TV가정고교> 제작을 KEDI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 방송 내용도 입시 위주에서 학교교육을 보충·심화하는 교육방송으로 성격을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해 9월 1일부터 KEDI는 <TV가정고교>를 인수해 <TV고교 교육방송>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KBS는 물론 MBC까지 송출을 맡아 각각 방송을 내보내게 되었다. 방송 채널만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3개 과목 방송과는 달리, 11개 과목으로 방송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나중에는 15개 과목으로 확대해 교육방송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TV고교 교육방송>은 지상파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조치 역사에 첫 이정표를 제시했다. 과열 과외 폐단에 대응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교육 현장에 맞도록 편성·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긍정적인 여론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약 8년 뒤인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자 과외 허용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사교육 업체들의 불만도 일시에 터져 나왔다. 결국, 문교부는 1989년 2월 2일 과외 허용을 확정해 발표하게 되었다.

KEDI는 1988년 가을부터 사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으로 입시에 대비하는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위해 강사진 구성을 학원 강사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그 결과, 서한샘, 이광용 선생 등 학원가의 최고 스타강사들을 영입하게 되었다.

1989년 4월 17일, <TV고교가정학습>이 첫 전파를 뒀다. TV를 통한 새로운 강의 영상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재가 방송 전에 이미 매진되었으며, 교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복사하느라 학교 부근의 문구점은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같은 해 8월 14일부터는 국사와 국민운리를 비롯해 다양한 과목으로 확대해 방영하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 27일, 마침내 EBS가 개국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이 출범한 것이다. 공교육 확립에 최우선 가치를 둔 EBS는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강의를 지양했다. 입체적인 자료와 해설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상파를 통한 공교육 보완이 더욱 변화·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1993년부터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발맞춰 EBS는 ‘수능 방송 체제로 개편’했다. 학습 지도 방법을 새롭게 바꾸고, <TV고교가정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수능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지상파를 통한 공교육 보완을 위해 EBS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교재 개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우수한 집필진부터 확보했으며, 집필진은 출연진과 함께 교재를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각 영역 및 교과별로 수능 대비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양 과목의 교재도 개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 증진에도 이바지했다. EBS는 TV 영상 강의 위주의 수능 방송에 집중했으며, 교재 개발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갔다.

### 초·중·고 학습전문 채널로 성장

1995년 3월, 케이블TV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열렸다. 많은 교육채널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교육채널마다 유명 학원 강사 영입과 함께 교재 확보 경쟁도

1



2



3



1. 1990년 EBS 개국 이후, 학교교육 방송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수능방송 및 위성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 사진은 외국어영역 위성수능강좌 제작 현장이다.
2. 최고의 강사진들이 진행했던 수학교육 프로그램. 풀이과정은 물론, 개념 정립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작성했다.

3. 1998년 특별방송으로 진행된 수능시험 정답 및 해설 방송이다. EBS는 차원 높은 방송으로 수험생들의 교육을 이끌었다.



별이게 되었다.

EBS는 사교육 업체 및 타 매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 및 차별성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1995년 3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생방송 선생님 질문 있어요>를 방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교육 프로그램 중 생방송 진행은 국내 최초였으며, 상식과 과학, 학습 등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최초의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현직 교사들이 출연해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전화나 PC통신, 팩스 등으로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풀이해주는 ‘대화형 교육’을 구현해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까지 높여주었다.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방송 형태는 다른 교육채널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997년 3월 12일, EBS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출범해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25일에는 ‘위성방송국’을 개국했다. 위성 1TV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TV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상파TV는 평생교육을 위한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로써 EBS가 공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동반자로서 성장하는 발판으로 작용한 것이다.

초·중·고 학습별로 차별화된 위성교육방송은 EBS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다.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에 호응하면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대응하는 2세대 역사를 새롭게 열었다. 특히, 위성방송에 새로 편성된 프로그램 <Final 위성 수능강좌>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중에서 이만기 교사가 진행하는 언어영역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하기도 했다.

이렇게 EBS는 방송을 통해 산간벽지 학생이나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학생이나 똑같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자료 화면이나 그래픽 처리 등 첨단 기법 등을 활용해 밀도 있는 강의를 보여주었다. EBS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영상을 통한 TV 강의 시대를 계속 선도해 나갔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기 유학 열풍이 거세게 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을 세우는 붐이 일어났다. 영어교육이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영어 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무려 15조 원(200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EBS 영어교육채널 개국’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BS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영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영어교육채널 개국 작업에 들어갔다.

마침내 2007년 4월 6일,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가 개국했다. 기존의 위성방송인 EBS 플러스1, 2TV에 이어 3TV를 개국한 것인데,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로 운영하

게 된 것이다. 이로써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Skylife)를 통해 하루 18시간 영어교육 방송을 내보내게 되었다.

EBS English는 교실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개별 및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영어 환경의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화 및 애니메이션도 같이 제공했다.

특히, 소외계층의 영어 격차 해소와 도·농간의 영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중등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편성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갔다. 단기간에 EBS English는 경쟁 채널들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영어교육을 대표하는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2010년 12월 16일, EBS를 비롯한 지상파 4사는 ‘시청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채널을 늘리는 ‘무료 다채널 서비스’ 도입을 공동 추진한 것이다.

당시, EBS는 ‘다채널방송(MMS)’ 도입을 통해 지상파 2TV를 개국하고, 이를 통해 영어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5년 2월 11일, 국내 최초의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 2TV’가 개국했다. 마침내 ‘EBS 1, 2TV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신기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지상파 채널을 확보한 EBS는 전 연령층 대상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했으며,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로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지역별·소득별 격차 없는 무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장이 확보되었다.





1. EBS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목표로 2000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2000년에 개최된 인터넷 방송을 위한 SDS 업무 제휴 체결

2. 2002년 6월, EBS는 도곡 사옥을 마련, 입주했다.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보안이 이루어지면서 EBS는 중요한 소명인 '공교육 보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2. 선도적인 e-러닝의 도입과 성장

### e-러닝의 시작

1990년대 중반부터 EBS는 뉴미디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디지털방송과 데이터방송,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등이 새롭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1997년 7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www.ebs.co.kr](http://www.ebs.co.kr)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1999년 4월 1일부터는 강화된 기능으로 사내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 달 뒤인 5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쌍방향 소통 네트워크로 차원 높은 시청자 서비스를 추구한 것이다.

뒤이어 EBS는 2000년 7월 21일에 'EBS를 활용한 공교육 내실화 및 과외 수요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보완을 위해 'EBS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과외 활성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철관 수업 위주인 공교육 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교육 영역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쌍방향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외 수요 40%를 흡수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 불균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이었다.

같은 해 12월 22일 'EBS 인터넷 방송'이 개국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때 자체 제작한 VOD/AOD의 무료 서비스가 처음 시작되었다. 베스트로 선정된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및 듣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EBS 사이트에 강의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이렇게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EBS는 인터넷에 적합한 내용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하고, 고품질의 VOD 제공 등으로 쌍방향 교육 서비스를 실현해 나갔다. 이로써 교육 사이트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해 개인 및 학원 과외에 대한 비교우위를 달성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했다.

EBS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인터넷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IT 신기술



의 접목을 계속 시도해 나갔다. 2002년에는 EBS 어학 및 수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E-Book 온라인 서비스’ 공동 추진 제휴 사업을 추진했으며, ‘모바일 PDA를 이용한 EBS 콘텐츠 서비스’ 제휴 사업도 시작했다. 다시 2003년에는 ‘MP3 변환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인터넷 수능강의**

2003년부터 다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KED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485억에 달했다. 2001년에 비해 22.8%나 급증한 상황이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게 되었다. EBS는 2003년 9월 말에 ‘EBS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본격적으로 수능방송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약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2·17 대책’을 단행한 것이다. ‘EBS 방송의 내실화와 사이버 교육 강화, 방과후 수준별 보충 수업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먼저 EBS는 TFT부터 구성하고, 발 빠르게 개국 작업에 들어갔다. 원활한 수능강의를 위해서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e-러닝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서버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지 않아야만 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5만 명 동시 접속을 계획했으나, 참여정부의 인터넷 대란 대비책 마련 요청에 따라,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의 회선 용량을 더 확보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하드웨어 증설과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더더욱 늘려야만 했다. 개국 작업은 하루 전에 도착한 장비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과 긴박함의 연속이었다.

2004년 4월 1일 새벽 2시, 마침내 ‘EBSi 수능강의 [www.ebsi.co.kr](http://www.ebsi.co.kr)’가 오픈해 ‘e-러닝 시대’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 교육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21세기형 인재육성으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한 전기였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인터넷 수능강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EBS 사교육비 경감 조치 역사의 3세대를 연 것이다. 이로써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래 원격교육의 밑거름을 심었다.

1



3



1. 사교육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EBS 인터넷 수능강의 시행을 결정했다. 2004년 3월, EBS 수능 합동상황실 전경
3. 우리나라의 앞선 인터넷 수능 강의 시스템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2004년 5월 11일 EBS 모델을 보기 위해 방문한 짐바브웨대학 부총장 일행

2



4



2. 2004년 4월 1일, EBS를 방문해서 인터넷 수능 강의 상황을 점검하는 교육부총리
4. EBS는 순회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2004년 3월 20일에 열린 수능 설명회



세계를 놀라게 한 EBSi 수능강의는 외국의 정부 관계자 등이 방한해 살펴보는 견학의 명소로 떠올랐다. 2005년 12월 말까지 EBSi는 무려 1만 3,397개 강의를 탑재했다. VOD 히트 수와 다운로드 수를 합한 일일 평균 이용 편수는 14만 6,434편에 달했으며, 누적 회원 수는 202만 4,891명에 이르렀다.

한편, 2008년부터 사교육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대응한 정부는 2009년에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때 EBS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방통위를 대상으로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뒤이어 2010년 3월 10일,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은 'EBS 수능강의 대입 수능 연계 강화 MOU'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려는 것이었다. 협정서 체결 직후, 교과부 장관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EBS 수능강의 및 교재의 수능 연계 70%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70% 연계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BS는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했다. 수능 파견교사제를 운용했으며, EBS 대표강사가 찾아가는 전국 순회 특강을 실시했다. 인기 강사의 영입 및 우수 강사의 발굴·육성, 고교/지역/대형 입시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했다. 언제 어디서나 EBSi 수능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앱을 개발한 것이다.

2010년 6월부터 모바일 앱 시범 서비스를 시행해 연말까지 다운로드 실적이 29만 2,449건에 이르렀다. 988개 강좌와 1만 4,889건의 강의 콘텐츠를 서비스했다. 그동안 TV와 컴퓨터로만 제공되었던 EBSi 수능강의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되어 방·통 융합 서비스를 선도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능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원소스 멀티디바이스(One Source Multi Device)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활용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미래형 교육 서비스로 진화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보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IT 기술 강화와 함께 EBSi 수능강의를 갈수록 고도화해 나갔다. 이후에는 미디어 발전에 발맞춰 개인맞춤을 강화하는 등 미래형 교육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EBS는 2004년에 VOD 화면 사이즈를 2배로 확대하면서 화질도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VOD/AOD 속도 조절 기능을 탑재해 이용자의 학습 효율성을 도모했다. 2005년 1월 31일부

터는 고화질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시 2010년 2월 11일에는 EBS 모든 강의가 '1메가 HD' 고화질로 개선되었다. 또한, 이용자 폭주에 대비해 추가 서버도 증설하는 등 EBSi는 '수요자 중심'으로 성장·발전해 나갔다.

2014년 6월 23일, EBS 수능강의를 활용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진단서비스(EDT)\*'를 구축해 선보였다. EDT는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 진로 적성·학습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인맞춤형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학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대입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게 되었다.

2019년 2월에는 'EBSi 인공지능 단추(DANCHOO)'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오픈했다. 수능 준비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 및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고교생들이 AI 단추 서비스를 2019년에는 3,418만 3,191건 이용했으며, 2020년에는 5,427만 6,557건을 이용해 전년 대비 58.8%나 증가했다. 성과분석 연구 결과, 단추 서비스로 인해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학습 효과의 향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2월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AI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진행되었다. 고교강의 사이트에 제공 중인 'EBSi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EBS 초·중·고·대학 사이트 내에 구축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AI 학습 진단 시스템'의 사이트 개발이 시작되었다. 사전 진단 평가를 위한 초·중·고 문항 개발 및 EBS 교재 문항의 DB화, 문항별 분류 체계 작성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초·중·고 단추 서비스를 2021년 11월 22일 베타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 e-러닝으로 영어교육 강화

EBS는 2004년 4월 'EBSi 수능강의'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영어교육 강화에도 나섰다. 2007년 4월 6일,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했다. 이때, EBS English 전용 인터넷 사이트 'EBSe [www.ebse.co.kr](http://www.ebse.co.kr)'도 같이 개설했다.

EBS English가 제한적인 시청자층을 가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 EDT(EBS Diagnostic Evaluation & Treatment System)



의도였다. 방송과 웹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영어교육 사이트 EBSe'를 동시에 구축한 것이다. EBSe는 약 1년 만에 122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1, 2위를 다투는 웹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다.

2010년에 EBSe는 영어 공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신개념 영어학습자료실 '©클럽뱅크'를 오픈했으며, 교사가 사이버 수업 지도안을 설계한 후 교사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학습 모두에 활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2010년 12월 13일에는 EBS English 전용 '모바일 웹 [m.ebse.co.kr](http://m.ebse.co.kr) 사이트'가 오픈했으며, 다시 12월 20일에는 EBS English 전용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개국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영어 학습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EBS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미래 영어교육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 학교 현장을 모두 결합시킨 새로운 영어 학습 모델을 통해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해 나갔다.

• EBSe 사이트 이용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1만 4,000명	2만 7,000명	2만 8,000명

**초·중학 웹 서비스의 고도화**

EBS는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면서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웹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계속 구현해 나갔다. 이제는 EBSi 수준으로 초·중학 웹 서비스의 고도화에도 나섰다.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초·중학 교육 분야에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였다.

2011년 6월 21일, '초·중학 인터넷 사이트'가 시범 오픈했으며, 뒤이어 8월 31일에 정식으로 오픈했다. 초·중학생의 눈높이와 학습 행태에 맞춘 Web 2.0 기반의 참여형 홈페이지를 구성한 것이다.

공통 플랫폼 기반의 개인학습환경(PLE)\*을 제공해 학습 편리성을 강화했으며, 학습 블로그 및 SNS 연계를 지원해 학습자 참여도 활성화했다. 강좌 중심의 서비스에서 강좌와 연계된 서

\* PLE(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1



2



1. 2007년에 EBS는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영어교육 사이트 EBSe'를 구축했다. EBSe는 1년 만에 122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EBSe 프로그램의 한 장면.

2. EBS의 이러닝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2007년 9월 18일에 개최된 이러닝 국제박람회 현장



비스로의 구현으로 학습 성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학습 평가 기능까지 강화했다. 이로써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초·중학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EBS는 2014년에 초·중학 인터넷 사이트의 ‘모바일 웹’을 오픈했다. 이때 모바일 앱 기능의 고도화 등 여러 개선 활동도 수행했다. 특히, EBS는 방송사 최초로 기관 홈페이지에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IT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e-러닝 수학교육, EBSMath로 패러다임 제시**

EBS는 2012년부터 e-러닝을 통한 수학교육 보완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수학 사교육비의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달해 전체 사교육비의 31.6%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중2 학생의 수학 학업 성취도가 50개 국가 중에서 1위에 올랐지만, 자신감과 흥미도는 밑바닥 수준인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는 2012년 9월부터 수학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이 사이트 구축 사업에 공동 참여해 공신력과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마침내 2013년 3월 14일 15시 9분, 국내 최초로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 [www.ebsmath.co.kr](http://www.ebsmath.co.kr)’가 오픈했다. 원주율 값( $\pi=3.14159\cdots$ )이 고안된 것을 기념하는 ‘파이( $\pi$ ) 데이’에 맞춰 오픈한 것이다. EBS 제작진 이외에도 국내 대학의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현직 중등학교 수학 교사 등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해 콘텐츠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딱딱한 공식 외우기와 반복된 문제 풀이 위주의 기존 수학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제작한 클립형 동영상 콘텐츠, 수학의 원리를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콘텐츠, 만화로 이해하는 흥미진진한 웹툰형 콘텐츠 등 새로운 시도로 신선한 반응을 일으켰다. 수학교육을 이해와 탐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EBSMath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방문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페이지뷰가 2,000만 건 이상이었다. 콘텐츠 이용 건수는 253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 EBSMath 사이트 이용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누적 방문자 수	42만 1,163명	154만 6,130명	303만 1,889명
누적 페이지뷰	352만 1,989건	1,146만 7,770건	2,032만 9,892건
콘텐츠 이용 건수	77만 8,359건	197만 62건	253만 7,580건

**소프트웨어 교육, 이숲 플랫폼으로 선도**

2016년 12월,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학교교육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이미 EBS는 2014년부터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 <소프트웨어아 놀자> 등 300여 편의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온 상황이었다.

EBS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계속 앞장서겠다는 계획이었다. 단순히 코딩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마침내 2018년 10월 12일,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EBS Software Learning Platform)’ 베타 서비스를 오픈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뒤이어 2019년 1월 31일, ‘소프트웨어 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숲 [www.ebssw.kr](http://www.ebssw.kr)’ 플랫폼이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숲은 ‘전 국민 온라인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라는 목적으로 유아에서 학생, 어르신까지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제작되었다. 누구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공자(크리에이터)와 학습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특화한 서비스와 함께 실습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화된 관리 등 효과적인 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챗봇(Chatbot) 및 온라인 Q&A 기반의 고객센터를 운영했으며, 멘토와 크리에이터 운영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강의형 콘텐츠를 140차시 제작했으며, 초·중·등별로 융합형 교실수업 지원 콘텐츠도 제작해 선보였다. 또한, 다큐멘터리 <소프트웨어 AI 교육, 길을 묻다>를 제작·방영해 소프트웨어 교육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념 학습, 프로그래밍 실습, 인공지능 수학 학습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이숲’ 플랫폼을 통해 학습 및 교재의 데이터 소스 및 소스 코드를 제공하여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3.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

#### 원격교육 서비스 시대 개막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는 호흡기 감염질환이 발생했다. ‘코로나 19(COVID-19)’로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정부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마스크 수급 대란,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학교교육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감염 우려 때문에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EBS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긴급 구성했다. 먼저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긴급 선제 조치부터 착수했다.

사흘 뒤인 2월 24일 오전부터 EBS의 모든 사이트 초기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초·중·고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2만 8,000여 개의 EBS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온라인 사이트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학교안전 맵’을 제작해 서비스하기도 했다.

이 무렵,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한 EBS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요청했다.

EBS는 온라인 가정학습 시스템 구축에 바로 들어갔다. 2020년 2월 25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을 기반으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EBS 온

1



2



1.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면서 학교 개학이 불가능해졌다. EBS는 2월 21일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위기 대응에 나섰다

2. 2020년 3월 23일 EBS 라이브특강 현장이다. EBS의 시스템과 노하우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라인클래스'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이다. 2004년 4월부터 'EBSi 수능강의'를 통해 e-러닝 시대를 이끌어온 오랜 노하우와, 2018년 10월에 구축된 국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의 개발 경험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다.

6일 뒤인 3월 2일, 'EBS 온라인클래스'가 오픈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보완해주고, 교육 현장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교육 지원 사례가 되었다. EBS 사교육비 경감 조치 역사의 4세대를 여는 공영방송의 길이었으며, 전면적인 '원격교육 서비스 시대'의 막을 올린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제는 대구·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550만 초·중·고 학생 모두가 원격교육을 받아야 하는 재난 상태로 가속화되었다.

EBS는 인터넷을 통한 학습 공백 대처에 이어, 세계 최초로 학교 수업에 맞춰 전 학년 인터넷 동시 생방송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EBS는 145명의 인력을 긴급 차출해 초·중·고 학년별로 12개의 생방송 학습 채널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투입했다.

나흘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한 덕분에, 2020년 3월 9일부터 <EBS 라이브 특강>이 개설되었다. '라이브 특강'을 통한 인터넷 동시 생방송은 학습 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공적인 원격 교육 지원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BBC, NHK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3월 31일 '순차적 온라인 개학' 실시를 발표했다. 초·중·고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온라인으로 개학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때 EBS는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방송 채널 추가 확보에 나섰다.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학습 결손 보완 채널' 등록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약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채널 등록이 단 4일 만에 완료되었다. 기존의 방송 채널과 함께 초·중학 전문학습채널을 임시로 신설해 6개의 PP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년별로 방송할 수 있는 토대가 신속하게 마련되었다.

마침내 2020년 4월 6일, 코로나19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초·중학 전문학습채널 'EBS 러닝'이 신설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EBS는 온라인, OTT는 물론이고 지상파(MMS),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확대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 학습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갔다.

드디어 2020년 4월 9일, '1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EBS는 온라인클래스 3차 증설을 완료해 동시 접속자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온라인클래스 방

1



2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자 EBS는 2020년 4월 13일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했다.

2. EBS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2020년 4월 13일 온라인 개학대비 합동점검회의



문자 수는 527만 명 이상이었으며, 페이지뷰가 1억 769만 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EBS의 역할이 필요한 곳은 더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으로 교육 및 돌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라 3~5월 시기에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맞춰 방송을 제작했다.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 경험을 지원해 부모의 보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EBS의 모든 유아 프로그램 콘텐츠를 재구성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의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다. 유치원 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정보와 참여의 장까지 마련해 제공했다. 이로써 미취학 아동과 부모들은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안전하게 교육 및 돌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EBS의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

2020년 4월 20일, '3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이때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수업이 어려워 EBS TV 방송과 함께 학습꾸러미 등을 통해서 원격수업으로 진행했다. 이제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는 초·중·고 96.5%가 활용하게 되었다. 수업 참여 학생 수는 하루 최대 36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EBS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다가온 코로나19에 부단히 대응해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동원하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모든 임직원들은 'EBS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국민들의 반응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온라인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원격교육의 원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으며, 갑작스럽게 다가온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학습 공백의 보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온라인클래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는 2020년 3월 2일부터 오픈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가동했다. 등교 수업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급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학습 콘텐츠를 구성해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첫해로 기록되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교육 재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EBS는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학교처럼,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 수업과 동일한 시간표로 구성된 학습 콘텐츠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했으며, 신학기 추천 커리큘럼과 맞춤형 커리큘럼 등을 기획해 15만 4,903편의 콘텐츠를 제공했다. EBS 고객센터에는 온라인클래스 전담 상담사를 투입해 원격교육의 운영 효율화를 높여나갔다.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상회의와 서면 등을 병행해 '시·도 교육청 장학사 협의회'와 '교사자문위원회' 등도 운영해 나갔다. 이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원격교육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저소득층 원격교육 서비스 무료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에도 세심하게 정성을 쏟았다.

한편, 온라인클래스 구축 초창기에는 동시 접속이 2,500명 규모였으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바로 증설에 들어가 2020년 3월 18일에는 동시 접속 30만 명 규모로 서버를 늘렸다. 다시 3월 23일에는 동시 접속 150만 명 규모로, 4월 6일에는 300만 명 규모로 서버 및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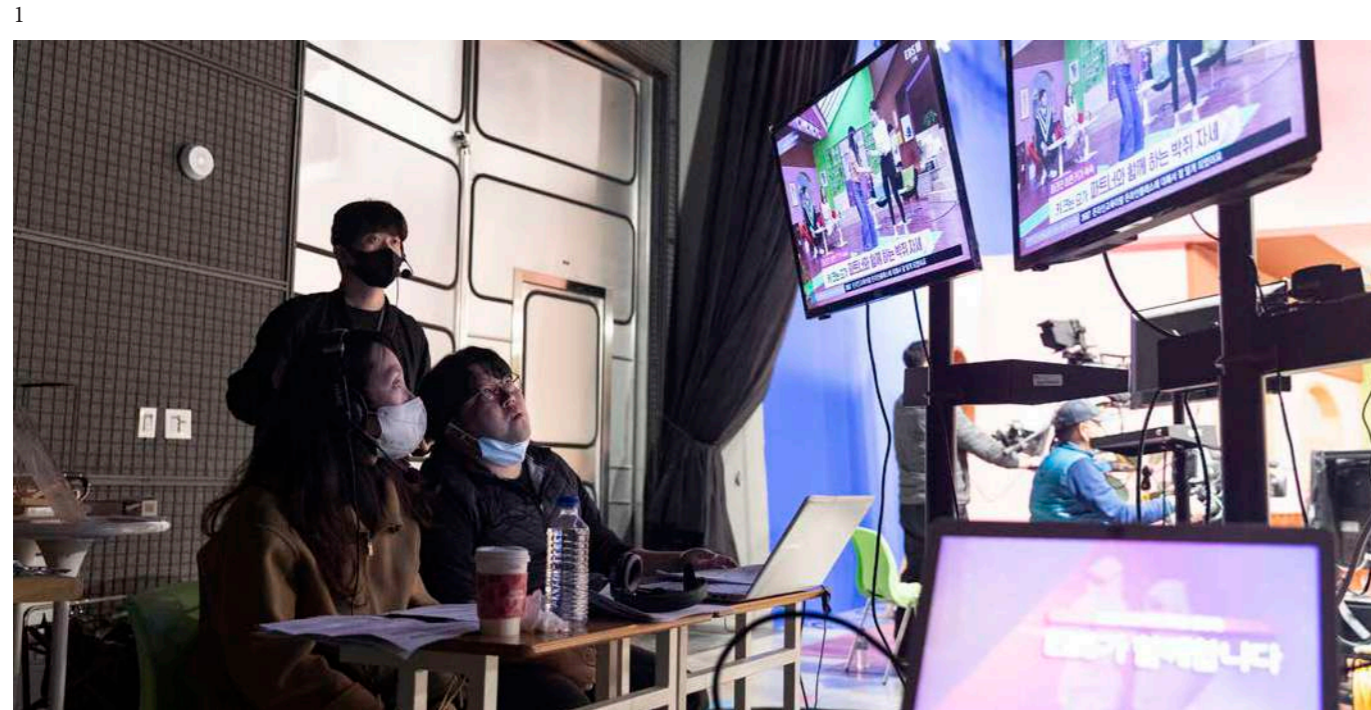
1, 2차 온라인 개학 때는 플랫폼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 및 병목 현상 등이 일부 발생해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을 겪기도 했다. 약 55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학생을 단기간에 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학급별 분산 배치, 민간합동 점검 TFT 가동, 실시간 현장기술 상황실 운영 등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단기간에 서비스는 안정화되었다. 이후, 온라인클래스는 탄력적인 운용으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동시 접속 기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간 것이다.

교육부가 2020년 5월 4일에 발표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교사가 원격수업 시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 1위는 'EBS 온라인클래스'로 나타났다. E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한 콘텐츠는 'EBS 온라인클래스'가 78.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EBS 원격교육 서비스가 공교육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77.7%가 응답했으며, '사회적 재난 상황 발생 시 EBS 원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77.3%가 응답했다. 즉,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최고의 공교육 보완으로 인정한 것이다.

EBS는 계속 전개되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클래스의 기능 고도화 작업에도 집중했다. 2020년 6~7월에는 배움터 관리, 강좌 가져오기 등의 학급 및 강좌 관리 편의 기능을 추가했으며, 뒤이어 8월에는 2학기에 대비해 시스템 최적화 작업 및 학기 구분 기능을 추가했다. 다시 9~10월에는 출결 조회, 강의 예약 오픈 등의 편의 기능을 추가했으며, 11~12월에는 화상 강의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다.





1, 2. 2020년 3월 30일과 31일에 시행된 특별생방송 현장. EBS 임직원들 모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임했다.

온라인클래스의 기능 고도화는 계속되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기능을 구현하고, 학생 진도율 및 콘텐츠 관리, 강좌 노출 예약, 쪽지, SMS, 화상 수업 등 교사의 학습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며, 학습 이력 관리와 과제/퀴즈 확인, 모둠토의 등 학생의 학습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 라이브 특강 및 EBS 러닝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에 대응해 2020년 3월 9일부터 <EBS 라이브 특강>을 개설했다. 전례가 없는 초유의 교육 재난 상황 속에서 인터넷 동시 생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일이었다. 세계 최초로 학교 수업 시간표에 맞춘 초·중·고 학년별 12개 채널을 운용해 라이브 특강을 실시했다. 150명의 제작진이 472편의 생방송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10개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생방송을 진행했다. EBS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해 나갔다.

- 3월 9일 : 고교생 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5일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진행
- 3월 16일 : <5일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1주 연장
- 3월 19일 : 초·중학 대상으로 확대해 <라이브 특강> 진행
- 3월 23일 : 초·중·고 12개 학년으로 확대해 <2주 라이브 특강> 진행  
(초등 1, 2학년은 방송으로 진행)
- 3월 25일 : <라이브 특강> 네이버, 카카오톡 송출
- 3월 30일 : <라이브 특강> IPTV 3사로 송출
- 4월 6일 : <2주 라이브 특강> 2주 연장
- 4월 6일 : 초·중학 학년별 채널 'EBS 러닝' 신설 및 <EBS 라이브 특강> 송출
- 4월 6일 : Wavve로 송출
- 4월 7일 : KT seezn으로 송출
- 4월 20일 : 'EBS 온라인 개학' 방송

라이브 특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현장 적용 지원 콘텐츠로 제공되었다. 초·중학의 경우에는 전 학년에게 학습 공백 방지 및 학습법, 학교생활 솔루션(시험, 학교 행사, 일과, 친구 관계 등) 등을 제공했다. 초·중·고 12개 학년별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모두 773편에 달했다.



매주 250시간의 수업 콘텐츠를 단 한 번의 차질도 없이 무사히 생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팬 데믹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해 총 1,996편을 제작했다. 수능 콘텐츠, 내신 콘텐츠, 대학별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공했으며, 오프라인 입시설명회를 대체해 온라인 입시설명회도 제작했다. 강좌 등이 제작되고 나면 즉시 인터넷에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BS는 인터넷으로 라이브 특강을 방송한 데 이어서, TV 방송 채널을 확대해 학습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2020년 4월 6일, 초·중학 전문학습채널 'EBS 러닝'이 임시로 신설되었다. 코로나19 학습 결손 보안을 위해 긴급하게 신규 채널을 확보한 것이다. EBS 러닝 신설로 채널이 크게 확대되어 초·중학 학년별로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 학습 결손 보안을 위한 EBS 방송 채널의 운영 현황**

학령	학년	채널	비고
초등	1, 2	EBS 2TV, EBS 플러스2	기존 방송 채널
	3		
	4		
	5		
	6		
	1		
2			
3			
중학	1, 2, 3	EBS English	기존 방송 채널
	1, 2, 3	EBS 플러스1 및 EBS(온라인)	기존 방송 채널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TV를 통해 학습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학년별 해당 방송 채널들은 EBS 초·중·고 학습 사이트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Wavve, KT seezn, 유튜브 등의 온라인, OTT를 통해 서비스했으며, 지상파(MMS),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EBS는 2020년 4월 20일부터 'EBS 온라인 개학'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개학 연기가 지속됨에 따라, EBS 온라인 개학 시행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한 일이었다. 학년별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운영하면서 총 3,936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루 뒤인 4월 21일, EBS 원격교육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현직 교육감들이 직접 쓴 특별한 편지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기적을 보고 있다'면서 '방역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다면, 교육 현장에는 EBS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격려해주었다.

한편, 해외 언론들이 EBS 원격교육에 주목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일본의 NHK

뉴스를 비롯해, 독일의 유명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하면서 대표적인 'K-EDU' 사례로 논평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원격교육 새로운 책무로 추가**

EBS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공백 보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이뤄낸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비상 대응책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교육재난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과 지원 근거,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널리 형성되었다.

2020년 7월 31일, 김영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들이 현행 EBS 수신료 3%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8월 4일에는 한준호 의원 외 25인의 의원들이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EBS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11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BS의 업무' 조항(제7조 제4호의2)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한 것이다. 비로소 원격교육이 업무로 추가되어 법에 명시된 일이었다. 앞으로 교육 재난 발생 시 EBS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공백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세워지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8일, 마침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제 EBS의 원격교육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동시에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육 환경으로 도약**

EBS는 2020년 7월 13일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급변하는 교육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고, 평생교육과 생애주기 학습 서비스로의 통합을 위한 행보였다. 2021년 5월 1일에는 EBS를 포함한 7개 패밀리 사이트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이제 10개의 전체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EBS 회원관리, 학습관리, 게시판, 검색, 문제은행 등을 통합해 다변화하는 학습 수요자들의 요구를 유연하게 대처할 기반까지 갖추게 되었다.

690만 명(2021년 기준)의 대규모 회원이 이용하던 사이트를 한 번에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또한, 고정비용 30% 이상 절감을 실현해냈





1.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EBS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사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해소에 일조한 '라이브 특강' 제작 현장이다.
2. 선도적인 시스템과 공교육 보안을 위한 헌신을 인정 받아 EBS는 2020년 12월 7일 제15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 장면

3. EBS는 확장현실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BS VR체험관에서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

으며, 이용자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

### 수준별 맞춤형 학습, AI 학습 진단 서비스와 함께 개막

2021년 EBS는 교육부와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사업을 시작했다. 유아부터 고교생까지가 사업의 대상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혁신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3단계(기초-기본-발전)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내신 학습을 적극 지원했다. 유아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형 콘텐츠' 1만 7,187편과 '실감형 콘텐츠' 160편을 제작해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의 부대사업으로 자기주도형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학습관리 서비스(멘토링)'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커리큘럼과 신뢰할 수 있는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연간 약 4,000여 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EBS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은 2021년에 베타 오픈한 'AI 학습 진단 서비스'와 함께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확장현실로 만나는 실감형 콘텐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EBS는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유아·어린이 및 초·중학 대상의 '범교과형·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디지털 기반으로 교수 학습 혁신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흥미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유발 콘텐츠와 함께, 지식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XR(eXtend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했다.

또한, '첨단융합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서 VR 체험 교육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VR 체험 교육 및 XR(확장현실)을 활용한 진로 체험 교육을 진행해 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에듀테크 활용 능력 함양에 이바지했다.



# 경영

지속적인 성장-  
30년 간  
20배 성장

177억 원  
1991

• EBS 개국·독립예산 시작

1990년 EBS는 독립 예산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전체 예산은 타 방송사의 대하드라마 1편 예산 정도였던 192억 원에 불과했다.

832억 원  
1997

• 한국교육방송원 출범, 위성방송 개국, 상업 광고방송 허용

1997년 EBS 예산은 1년 전보다 1.57배나 늘어났다.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상업 광고 방송 시작 덕분이었다. 공적 재원은 그대로였으나 자체 재원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

837억 원  
2000

•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 수신료 및 방송발전기금 지원

공사화 이후 EBS 예산은 86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체 수입이 처음으로 500억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수신료 및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1,740억 원  
2004

• EBSi 인터넷 수능강의 시작

2004년부터 EBS 인터넷 수능 강의가 시작면서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방송교재 판매 등 출판 수입도 전년 대비 3.3배로 증가했다. 교재 출판을 직영으로 전환한 덕분이었다.

2,428억 원  
2010

• 수능 70% 연계

2010년 '수능 70% 연계 정책 시행'에 따라, 예산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63.4%나 상승했고, 공사 설립 당시보다 2.97배 성장했다. 특히, 출판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2,739억 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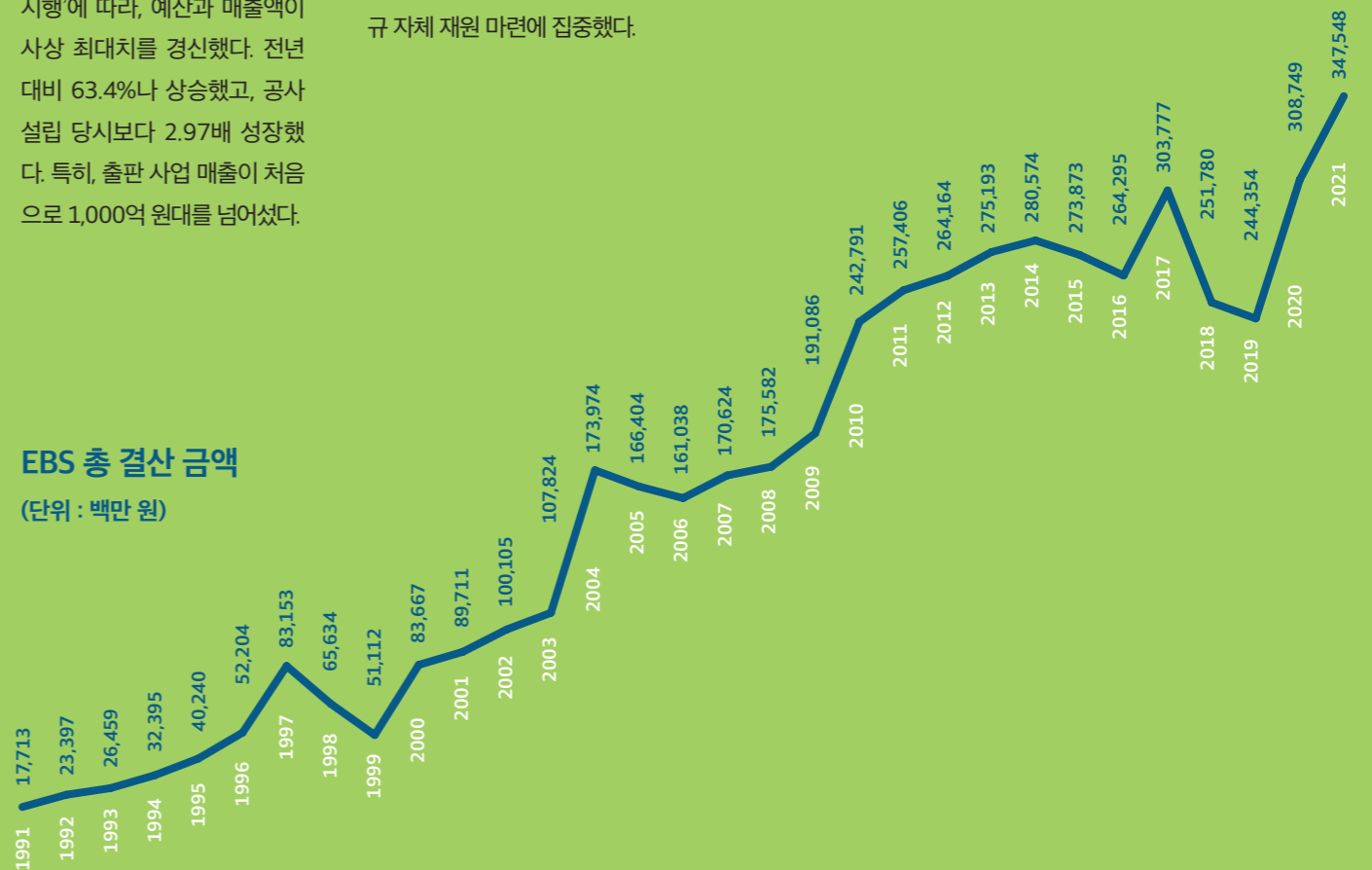
• EBS 2TV 개국, 방송광고 및 온라인 콘텐츠 수입 증대

2015년 EBS 2TV 개국에 따라 방송 제작비 및 시설 운영비 등 재정 수요가 증가했다. EBS는 신규 자체 자원 마련에 집중했다.

3,475억 원  
2021

• 온라인클래스 등으로 공적 자원 비중 증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커지면서 EBS는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적 자원 비중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또한 신규 자체 자원 마련에 집중한 결과, 총수입 예산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5장. 경영



### 1. 예산 및 운영

#### EBS 개국 이후, 예산 및 운영

1990년 12월에 개국한 EBS는 1991년부터 독립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산 등의 모든 업무도 별도 운영 체제로 출범했다. EBS의 목표가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의 개방성 고양’으로 설정되었다. 첫해의 운영 목표는 ‘안전한 법적인 독립 기관으로서의 기반 구축’에 두었으며, 이와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개국 첫해부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한된 인력과 장비·시설은 물론 예산은 너무나 부족했다. 첫해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및 공익자금은 140억 원에 불과했다. 당시 EBS는 방송 기자재 구입 및 교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해야 하는 여건이기도 했다. KEDI가 1972년 9월에 도입한 250만 달러의 AID 차관을 승계받았는데, 2013년까지 상환해야만 했다. 또한, 1991년 5월에는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로부터 약 6억 엔의 차관을 새로 도입했는데, 7년 거치 18년 상환 조건이었다. 이 역시도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일이었다.

개국 2년째인 1992년에는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이 310억 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자금 및 자체 협찬광고 수입 등에서 8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해 232억 원으로 예산을 축소·재편성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적인 방송 제작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이었다. 예산 축소 파동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와 재방송률 상향 조정 등 방송 편성을 개편해야만 했다. 1997년 3월에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되면서 EBS는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을 마침내 확보하게 되었다. 기본 목표를 ‘교육방송 제2 개국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서비스의 생활화, 경쟁력의 강화, 자율성의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아 모든 부서가 내실 경영을 실천해 나갔다. 위성방송국 개국을 통한 교육방송의 실시, 상업 광고방송의 시행 등이 있었으며,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는 수익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익 사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재정 자립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이 687억 원을 상회해 전년 대비 1.57배나 늘어났다. 자체 재원이 전년 대비 2.52배나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8년 EBS의 운영 방침은 ‘경영쇄신의 해’로 정했다. ‘사업추진의 내실화, 수익 극대화, 생산적 조직문화 형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경영 합리화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갔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정부출연금이 삭감되고, 광고 시장의 불황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인건비 3% 삭감, 두 차례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실시 등 구조조정과 함께 전반적인 경영혁신 조치를 단행했다. 전체 사업 계획을 조정하면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교재 개발, 상업 방송광고, 자료 보급 및 협찬 용역 사업 등으로 자체 수입 증대를 기하면서 내실화를 꾀했다.

• EBS 개국 이후,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적									
재원									
정부기금	5,000	2,000	3,000	2,000	3,000	5,000	4,000		
교육보조금	9,000	13,132	14,942	16,214	20,056	23,250	25,783	19,395	13,354
계	14,000	15,132	17,942	18,214	23,056	28,250	29,783	19,395	13,354
방송광고				4,113	2,127		4,956	5,200	7,729
협찬	1,373	2,441	3,423	358	322	150	504	504	1,660
채널 공급									
출판 사업		2,657	2,657	3,471	4,528	7,013	14,631	20,452	22,011
문화콘텐츠					1,512	2,047	2,047	2,150	2,150
자체									
재원									
온라인/콘텐츠									
수탁/협찬 용역			822			597	3,338	825	1,855
자회사 분배금									
사업 외(기타)	3,823	2,994	2,065	3,593	1,343	5,018	811	1,093	2,119
전년 이월금					2,711	668	12,689	19,259	8,725
계	5,196	8,092	8,967	11,535	12,543	15,493	38,976	49,483	46,249
총 수입 예산	19,196	23,224	26,909	29,749	35,599	43,743	68,759	68,878	59,603
공적 재원 비율	72.9	65.2	66.7	61.2	64.8	64.6	43.3	28.2	22.4
자체 재원 비율	27.1	34.8	33.3	38.8	35.2	35.4	56.7	71.8	77.6

※ 1991~1999년의 정부기금은 공익자금, 교육보조금은 정부출연금

공사화 이후, 예산 및 운영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으로 EBS는 ‘공사화 원년’을 맞이했다.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새로운 공영방송’을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매체 경쟁력 강화, 시청자 서비스 강화, 효율적인 제작·기술 시스템 운영,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공사 체제 조기 안정’이라는 운영 목표에 주력한 한 해였다. 자체 수입이 처음으로 500억 원대를 돌파했으며, 수신료와 함께 방송

1



2



1. 2004년부터 EBS 인터넷 수능 강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은 1,83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진은 2005년 11월 23일 생방송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장면이다.

2. 2004년 이후 방송교재 판매 등 출판 수입도 전년 대비 3.3배나 증가했다. 사진은 2006년 수능 분석 장면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도 800억 원대를 처음 넘어섰다.

또한, ‘한국교육방송원’의 귀속재산 이관과 관련해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방안을 국세청에 질의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공사 전환’이 법인 신설이 아니라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라는 국세청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107억 원과 임시투자세액공제 3억 원을 승계받아 법인세 33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다.

EBS는 2002년에 ‘EBS 위성 1, 2TV’를 ‘EBS 플러스1, 2’로 채널을 전환했다. EBS 플러스1은 수능 중심으로 편성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고, EBS 플러스2는 직업 전문 채널로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예산 수요의 합리적인 조정과 수입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4년에는 전년도와 기본 운영 방침인 ‘사람을 생각하는 방송, 미래를 준비하는 방송’에 ‘교육전문 기간방송 위상 강화’를 새로 덧붙여 설정했다. ‘참여와 통합을 선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고품질화 실현, 뉴미디어 분야 경쟁력 강화, 새로운 공영방송 체제의 정착, 투명 경영 체제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EBSi 인터넷 수능강의’ 서비스가 2004년 4월에 시작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호응해 ‘e-러닝 시대’를 개막한 것이다. 인터넷 수능강의 사업 덕분에 예산이 1,834억 원, 매출액이 1,7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해 각각 신기록을 작성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61.3%, 매출액이 62.3% 증가했다. 방송교재 판매 등의 출판 사업 수입이 전년 대비 3.3배나 폭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고교 교재의 출판을 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매출 급증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5년에는 수능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비용 절감 노력의 효과가 결산에 반영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적 재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체 사업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공영방송에 걸맞은 재원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EBS는 2006년에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며, 외국어 학습 사이트 ‘EBSlang’ 출범, 국산 애니메이션의 수출 등 새로운 수익 모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온라인 콘텐츠 부문의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2.65배나 증가했다. 한편, 자체 재원 비율이 7년 연속으로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공적 재원 지원이 하향 그래프 추세였던 것이다.

2007년에 EBS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경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뉴미디어 사업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75% 신장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해였

다. 하지만, 자체 사업 수익성 악화와 사업 외의 비용 증가 등 때문에 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공사 전환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적자였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2008년 경영 지표를 ‘2.0 교육의 길잡이 EBS’로 새롭게 설정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면서 3대 경영 방침을 ‘iDENTITY 교육전문 EBS 정체성 강화, iNNOVATION 혁신으로 지속적 성장, iNTERACTION 개방과 공유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부서별로 자율적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 흑자 경영으로 재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본금 추가 출자도 이끌어내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EBS는 비상경영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140억 원의 흑자를 실현하게 되었다. 특히,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2008년에 80억 원, 2009년에 25억 원, 2010년에 50억 원(3년간 15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공사화 이후, EBS의 예산 현황(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적 재원	수신료	10,049	12,648	13,570	14,080	14,361	14,935	15,256	15,093	15,193	15,345
	정부기금	14,300	17,200	15,511	18,000	17,000	17,368	17,724	17,801	18,446	19,596
	교육보조금	6,837	2,000	2,000	3,000	20,381	12,388	12,096	21,938	25,689	29,612
	계	31,186	31,848	31,081	35,080	51,742	44,691	45,076	54,832	59,328	64,553
자체 재원	방송광고	18,000	18,500	26,000	32,000	32,000	33,000	34,498	34,000	34,000	26,000
	협찬	2,490	6,127	6,008	9,415	10,000	10,500	8,000	9,470	8,500	7,000
	채널 공급					2,052	2,424	3,109	3,504	4,119	5,037
	출판 사업	23,163	23,589	26,200	22,516	73,797	65,448	61,273	55,492	56,962	61,736
	문화콘텐츠	5,323	6,140	7,144	8,950	7,120	7,871	8,719	6,685	5,610	5,326
	온라인/콘텐츠		1,092	2,880	4,794	5,300	6,130	16,237	15,267	18,428	21,556
	수탁/협찬 용역	3,152	78	130	19	261	33	641	2,701	6,265	5,346
자회사 분배금											
사업 외(기타)	2,670	1,131	694	1,000	1,218	1,900	2,300	1,867	1,923	2,940	
전년 이월금											
계	54,798	56,657	69,056	78,694	131,748	127,306	134,777	128,986	135,807	134,941	
총 수입 예산	85,984	88,505	100,136	113,775	183,490	171,997	179,853	183,818	195,135	199,494	
매출액	81,360	87,263	97,342	105,349	171,013	162,021	157,537	167,280	172,357	187,309	
공적 재원 비율	36.3	36.0	31.0	30.8	28.2	26.0	25.1	29.8	30.4	32.4	
자체 재원 비율	63.7	64.0	69.0	69.2	71.8	74.0	74.9	70.2	69.6	67.6	

※ 2000-2009년의 정부기금은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은 정부출연금



**공사 창립 10년 이후, 예산 및 운영**

EBS는 2010년에 ‘수능 70% 연계 정책 시행’에 따라, 예산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공사 설립 당시보다 무려 2.97배나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부문이 매출 신장을 달성하는 성과까지 기록했다. 특히, 수능 연계 강화 덕분에 출판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전년 대비 63.4%나 상승했다.

2012년에는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정부 출자금 10억 원을 처음 확보해 의미 있는 해가 되었다. 당기순이익을 위해 정부의 배당 최소화를 추진해 무배당 결정도 이끌어냈다. 유아·어린이 교육채널 ‘EBSu’ 개국, 교육 콘텐츠 클럽 서비스인 ‘EDRB’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을 신규로 확보했다.

EBS는 공교육 보완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도 부응해 교재 가격을 동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 증가로 인해 8억 7,3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2012년 5월 29일에는 EBS의 첫 번째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설립했다. DVD 셀스루, 캐릭터, 영상물 보급, 단행본 발간 등 일부 사업을 EBS미디어로 이관했다.

2013년에는 자체 사업 수입이 처음으로 2,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출판 사업을 비롯해 방송 광고, 온라인/콘텐츠 사업 등이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정부 출자금 150억 원을 확보해 EBS의 납입 자본금이 543억 원에 이르렀다. 법정 자본금 1,000억 원의 54.3%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AID 및 OECF 차관을 2013년 6월에 최종 상환 완료했다. AID 차관은 약 238만 달러 원금을 KEDI로부터 승계받아 364만 달러의 원리금을 상환했으며, OECF 차관은 약 6억 엔의 원금을 빌려 8억 4,000억 엔의 원리금을 상환했다.

2015년 2월, 국내 최초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인 ‘EBS 2TV’가 개국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비 및 시설 운영비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재정적인 부담이 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EBS는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신규 자체 재원 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수입 예산이 최초로 3,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방송광고 수입과 온라인 콘텐츠 부문의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 경영에 기여했다. 또한,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출자 계획액 506억 원 중에서 426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1



2



3



1. 공사 창립 10년만에 EBS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능 70% 연계 정책'과 함께 계속된 혁신 노력 덕분에이었다. 사진은 2010년 6월 21일에 개최된 공사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2. 2012년 5월, EBS는 첫 번째 자회사 'EBS 미디어'를 설립, DVD 셀스루, 캐릭터, 영상물 보급, 단행본 발간 사업을 이관했다. 사진은 'EBS 미디어' 1주년 기념행사
3. 2015년 개국한 'EBS 2TV'. 시설 운영비 등 재정 수요는 증가했지만 특별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재정부담은 늘어났다. EBS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이를 타개했다.



사실상 1위(TV)를 수성해 '명품방송'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ERP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인 예산 관리 강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별 교부금도 추가로 확보해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도 나섰다. 특히, 자체 사업의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으로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 정부의 자본금 출자도 계속되어 121억 8,500만 원이 확충되면서 EBS의 법정 자본금이 80.9% 수준에 도달했다.

• 공사창립 10년 이후, EBS의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적 재원	수신료	15,918	16,167	16,365	16,671	17,004	17,168
	정부기금	24,613	19,770	20,919	22,500	23,669	25,436
	교육보조금	38,409	37,725	34,132	31,172	25,147	29,883
계	78,940	73,662	71,416	70,343	65,820	72,487	69,264
자체 재원	방송광고	29,000	32,027	35,260	40,008	39,929	41,000
	협찬	5,291	5,336	5,260	4,911	4,666	5,050
	채널 공급	5,022	5,270	5,145	5,154	5,130	4,991
	출판 사업	100,864	103,227	99,099	102,697	101,196	100,103
	문화콘텐츠	6,624	9,204	8,807	6,054	5,595	8,165
	온라인/콘텐츠	18,858	18,514	24,463	33,190	40,837	51,438
	수탁/협찬 용역	6,188	5,922	5,357	5,165	9,929	12,000
	자회사 분배금			1,304	3,903	3,703	2,503
	사업 외(기타)	4,934	4,244	7,914	3,769	3,768	2,400
	전년 이월금						
계	176,781	183,744	192,609	204,851	214,753	227,650	217,795
총 수입 예산	255,721	257,406	264,025	275,194	280,573	300,138	287,060
매출액	237,632	253,162	97,342	271,425	276,805	269,958	261,336
공적 재원 비율	30.9	28.6	27.0	25.6	23.5	24.2	24.1
자체 재원 비율	69.1	71.4	73.0	74.4	76.5	75.8	75.9

※ 2010-2016년의 정부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교육보조금은 정부출연금

**2017년 이후 예산, 재정 악화 위기 및 극복**

EBS는 2017년에 정부 출자금 지원과 함께 자체 자금을 투입해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을 완공했다. 'EBS 일산 시대'를 열면서 '제2의 창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네이버와 협력해 2017년 8월 1일에 합자회사인 '스쿨잼'을 설립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나갔다.

2017년에는 총수입 예산 규모가 3,26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도곡동 사

옥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였다. 디지털통합사옥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향후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태였다. 방송 사업의 환경도 악화가 지속되어 사업 재구조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산 절감 및 자체 수입 확대를 도모한 결과, 자체 재원 규모가 2,516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체 재원 비율이 77.1%로 나타나 공사 전환 이후 최대 비율로 올라갔다. 한편, 정부 출자금 80억 원이 납입되어 법정 자본금(1,000억 원)이 88.9%에 이르렀다.

EBS는 2018년에 광고 시장의 급격한 축소, 모바일·인터넷 플랫폼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 학령인구 감소, 수능 연계 약화 등으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비상경영회의'를 매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사적으로 10% 비용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한계 사업은 정리하고, 일부 사업은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 나갔다.

이렇게 비상경영 체제 속에서 약 120억 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 수행한 결과, 2018년에는 영업손실이 231억 원으로 나타나 그나마 손실액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2017년 영업손실 350억 원 대비 119억 원의 손익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2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은 막지 못했다.

뒤이어 2019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19년 중반까지 300억 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먼저 임원이 주재하는 '경영전략회의'부터 정례화하고, 수차례의 '재정위기설명회'를 개최해 내부적으로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부서별로 성과 지표도 도입했다. 특히, '6대 현황 지표'를 선정해 부서별로 실적을 수치화해 관리했다.

'토틸 리뷰(예산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합리화 및 최적화를 도모했으며, 외부의 조직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신수종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공간 사업, OTT(유튜브) 플랫폼과 방송 플랫폼의 연계, 교육방송 모델 수출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공익성 기반의 광고 혁신' 등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갔다. 이렇게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전사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당기순손실을 101억 원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EBS는 2020년 경영 방향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로 정했다. 경영 목표를 '재정위기 극복, 고품격 청정 콘텐츠 강화, 조직·제도·문화 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전략 과제 및 세부 전략 과제를 도출해 시행했다. 2020년 초부터 '2차 토틸 리뷰'를 추진했으며, 신수종 5개 사업을 발굴해 지원에도 나섰다. 또한 '수탁사업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해





1. 2017년 EBS는 통합사옥 건립, 광고시장 악화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EBS는 혁신활동을 전개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혁신 Restart' 구성원들

3. 2020년부터 EBS 예산은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공적 재원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2021년 신년 업무보고 장면이다.

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혁신 프로세스도 가동되었다. 2018년 11월 5일에 열린 EBS 전 직원 경영설명회

4. 2021년 5월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EBS의 공적책무와 수신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규 이익 창출도 꾀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정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이때 공교육 학습 공백 보안을 위해 EBS가 '온라인클래스' 등으로 원격교육을 전격 실시하면서 대규모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분수 효과는 상당했다. 여기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뺑수' 신드롬에 의해 자체 수익 사업 실적도 급속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EBS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혁명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4개 사업 526억 원의 신규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도 'AR·VR 콘텐츠 제작' 등 신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한데 모여 당기순이익 64억 4,5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2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해 흑자 경영으로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결국, 2020년 총수입 예산은 3,217억 원이 되었으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공적 재원은 1,259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공적 재원 비율도 28.7%에서 39.1%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공사 설립 이래로 공적 재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었다. 한편, 매출액 역시도 3,063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2021년에는 경영 방향을 'EBS, 제2의 도약'으로 설정했다. '공적 책무 확장, 콘텐츠 대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을 경영 목표로 삼아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미였다. 총수입 예산이 3,889억 원에 도달해 2020년에 이어 3,000억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원격교육' 사업이 EBS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EBS의 공적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된 일이었다.

EBS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ICT 기반의 에듀테크가 부각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 포스트 TV 시대에 대비한 슈퍼 IP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도래할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생력 확보에 나섰다.

또한, 미래 교육 모델 제시를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실감형(AR·VR) 교육 콘텐츠 강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EBS 교육 서비스를 '지능형 교육 서비스'로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는 의미였다.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 멀티플랫폼 전략 추진으로 콘텐츠의 이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한편, 2021년 공적 재원 규모는 1,648억 원을 상회해 사상 최대 수치를 경신했으며, 공적 재원 비율도 42.4%로 전년 대비 3.3%p 상승하게 되었다.



• 2017~2021년 EBS의 예산 현황(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적 재원	수신료	17,977	18,200	18,655	19,154	19,427
	정부기금	30,287	31,538	32,687	30,347	33,024
	교육보조금	26,422	28,048	26,473	76,422	112,393
계	74,686	77,786	77,815	125,923	164,844	
자체 재원	방송광고	37,300	37,300	35,000	21,400	25,000
	협찬	5,100	15,700	9,100	2,920	3,000
	채널 공급	4,772	4,780	4,175	4,695	5,000
	출판 사업	84,617	84,739	79,220	89,418	98,271
	문화콘텐츠	9,937	12,061	11,929	17,720	16,170
	온라인/콘텐츠	39,702	40,185	27,600	28,590	37,009
	수탁/협찬 용역	15,200	22,200	22,600	27,365	35,835
	자회사 분배금	1,910	2,145	2,305	1,935	1,999
	사업 외(기타)	53,087	2,175	1,713	1,766	1,774
	전년 이월금					
계	251,625	221,285	193,642	195,809	224,058	
총 수입 예산	326,311	299,071	271,457	321,732	388,902	
매출액	251,315	249,665	241,679	306,301		
공적 재원 비율	22.9	26.0	28.7	39.1	42.4	
자체 재원 비율	77.1	74.0	71.3	60.9	57.6	

※ 2017~2021년의 정부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교육보조금은 정부출연금

• EBS의 자산 및 부채와 자본 등 재정 상태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1991	1994	1995	1996	1999	2000	2001	2002
자산	20,450	23,384	26,477	38,078	47,195	43,438	51,647	78,561
부채	14,933	19,530	21,708	24,971	31,171	11,071	12,776	30,400
자본	5,517	3,854	4,769	13,107	16,024	32,367	38,871	48,161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	93,468	146,772	142,991	124,909	128,043	145,469	151,930	165,896
부채	35,873	71,136	59,991	44,409	49,627	57,889	50,486	60,680
자본	57,595	75,636	83,000	80,500	78,416	87,580	101,444	105,21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산	169,047	171,526	198,476	184,783	215,377	246,487	262,287	246,167
부채	59,924	62,276	70,324	52,727	67,057	86,083	76,974	84,002
자본	109,123	109,250	128,152	132,056	148,320	160,404	185,313	162,165
구분	2019	2020						
자산	247,982	260,084						
부채	95,881	101,538						
자본	152,101	158,546						

• 연도별 EBS 재원 구조 (결산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공적재원	12,989	15,133	16,934	18,027	22,990	28,219	27,689	19,395
자체수입	4,724	8,264	9,524	14,368	17,250	23,985	55,463	46,239
합계	17,713	23,397	26,459	32,395	40,240	52,204	83,153	65,634
공적재원 비율	73.3	64.7	64.0	55.6	57.1	54.1	33.3	29.6
자체수입 비율	26.7	35.3	36.0	44.4	42.9	45.9	66.7	70.4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적재원	13,354	31,192	32,495	31,170	35,153	51,498	44,585	42,676
자체수입	37,758	52,474	57,216	68,935	72,671	122,476	121,819	118,362
합계	51,112	83,667	89,711	100,105	107,824	173,974	166,404	161,038
공적재원 비율	26.1	37.3	36.2	31.1	32.6	29.6	26.8	26.5
자체수입 비율	73.9	62.7	63.8	68.9	67.4	70.4	73.2	73.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적재원	53,073	53,297	55,533	68,231	73,662	71,417	70,342	65,821
자체수입	117,551	122,285	135,552	174,560	183,744	192,747	204,851	214,753
합계	170,624	175,582	191,086	242,791	257,406	264,164	275,193	280,574
공적재원 비율	31.1	30.4	29.1	28.1	28.6	27.0	25.6	23.5
자체수입 비율	68.9	69.6	70.9	71.9	71.4	73.0	74.4	76.5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적재원	66,586	67,965	72,007	76,254	77,511	113,435	141,395	
자체수입	207,287	196,330	231,769	175,526	166,843	195,315	206,154	
합계	273,873	264,295	303,777	251,780	244,354	308,749	347,548	
공적재원 비율	24.3	25.7	23.7	30.3	31.7	36.7	40.7	
자체수입 비율	75.7	74.3	76.3	69.7	68.3	63.3	59.3	

재정 지원 현실 및 수신료 정상화

EBS는 2004년부터 '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0년 공사 설립 이후,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제3의 기관에서 '수신료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EBS와 KBS의 재정 수요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해 배분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5년 4월 21일에는 방송회관에서 '비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토론회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수신료의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해 법제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마침내 2011년 3월부터 'TV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수신료 배분율을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EBS는 국회 및 방통위에 'TV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확대에 관한 EBS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를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TV수신료 2,500원 가운데, 70원에 불과한 EBS 수신료에 대해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비록,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시 야당은 당론으로 명시해 15% 배분율을 지지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감사 및 결산감사 수감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시 2014년 1월 14일, 'EBS 수신료 배분율 확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2월 28일 '2013 TV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뒤이어 5월 7일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이 'TV수신료 검토보고서'를 미방위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면서 공격적으로 EBS의 수신료 현실화 및 배분율 확대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TV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의결을 기다렸지만 자동 폐기되었다.

2018년에 EBS는 '수신료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해 수신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적 재원보다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왜곡된 재정 구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정 위기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영방송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절실했다.

해마다 EBS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인데,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0원 정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TV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 콘텐츠 허브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동안 EBS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속에서 EBS는 원격교육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시스템 등을 유지하려면 수신료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 2. 조직

### EBS 개국 이후, 조직의 변화

KEDI 산하이던 시절에 교육방송은 '기술지원국' 소속으로 시작해, '교육방송부'를 거쳤으며, '교육방송본부' 형태로 조직이 변화·발전해왔다. 마침내 1990년 12월, EBS는 독립된 채널을 확보해 교육 전담 방송국으로 개국했다. 새롭게 출범한 교육방송은 1991년부터 독립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편성과 조직, 운영 등 교육방송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조직부터 달라졌다. KEDI의 부서인 교육방송본부에서 '부설기관'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방송본부 소속의 방송기획국, 제작국, 기술국, 지원국에서 '원장 및 부원장' 소속의 '편성본부, 제작본부, 기술본부'로 개편되었다. 3개 본부 밑에는 편성국, 연구국 등 10개의 국을 설치했으며, 총무국을 별도로 두었다. 각각의 국 아래에는 편성부, 운영부 등 부 단위로 편제했다. 또한, '방송기획실'을 신설했으며, 그 밑에 '기획예산부, 행정관리부'를 두었다.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되어 EBS가 독립기관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때 KEDI로부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를 이관받아 EBS 산하에 부설기관으로 두게 되었다. 'KEDI 부설 교육방송'에서 독립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전환된 이후, 조직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며 '팀제'를 도입한 점이다.

- 1997년 7월 16일  
기존의 부제 조직을 '팀제'로 전환  
3본부 3실 12국 37부 3팀(58개 단위 조직)에서 3본부 3실 12국 44팀(62개 단위 조직) 체제로 변경
- 1997년 8월 25일  
위성운영국 별도 조직으로 설치  
위성운영국 내에 편성운영팀, 기술운영팀 구성



한편, 1997년 12월에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IMF 관리 체제 속에서 정부는 ‘정부 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 방침’을 세웠다. 1998년 8월에 교육방송 구조조정 지침이 확정되었다.

뒤이어 EBS는 1999년 1월 1일 인력 및 조직을 과감히 축소·조정하게 되었다. 직무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했다. 우선, 부원장 직제가 폐지되었고, 감사는 비상임화되었다. 조직은 3본부 3실 12국에서 ‘1본부 2실 8국’으로 정리했다. 편성본부와 제작본부, 기술본부를 합쳐 ‘총괄본부’로 변경한 것이다.

**공사화 이후, 조직의 변화**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창립되어 EBS는 ‘공사화 원년’을 맞이했다. 조직은 원장, 총괄본부장 체제에서 ‘사장, 부사장’ 체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2000년 7월 22일에 조직을 개편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제작 및 기술부서의 협업 체제 구축, 인터넷 대중화 및 상용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뉴미디어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려는 취지였다.

- 1본부 2실 8국에서 2본부 3실 9국으로 확대
- 본부와 별도로 감사실, 정책기획실, 편성실 설치
- 뉴미디어국 신설
- 뉴미디어국 내에 뉴미디어팀, 정보자료팀 신설

한편, 2000~2004년에 EBS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방송국형 조직 구조였다. 방송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 및 제작에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 EBS는 2004년 4월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EBSi 수능강의’를 시작했다. 교육전문채널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다진 해였다.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2004년 12월 16일에 조직개편을 아래와 같이 단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 판매 사업과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를 강화했으며, e-러닝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강화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 책임을 높이기 위해 ‘CP제’\*를 도입했다.

\* CP(Chief Producer)는 책임 프로듀서를 말한다.

1



3



2



4



1. 1990년 EBS 출범 직후, 조직은 크게 변했다. 이전까지는 KEDI의 한 부서였으나 1990년부터는 부설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시무식도 EBS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2. 1997년 한국교육방송원은 독립기관이었다. 따라서 총책임자의 명칭도 초대 원장으로 불렸다.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겨 팀제로 전환되었다.
3.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은 EBS의 위상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였다. 이전까지 직책이었던 ‘원장’은 ‘사장’으로 변경되었다. 조직도 공사 위상에 맞도록 커졌다.
4. 2005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e-러닝 사업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채널도 생겼다. 이에 따라 조직도 3차레나 큰 변화를 겪었다. 사진은 2005년의 EBSu 출범기념식



- 대외협력팀을 홍보팀으로 개편
- 영상미디어센터를 글로벌센터로 개편
- 교육정보센터를 e-러닝센터로 변경
- 영상사업팀을 사회교육팀으로 개편
- 팀제에서 CP제로 개편

EBS는 2005년에 3차례나 조직을 개편했다. 5, 6월에 개편한 뒤, 11월 16일에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시 직제를 바꾸었다. 이때 국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13개 실·국을 폐지했다. CP제를 폐지하고, 본부/팀제를 강화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도 확보했다.

2009년 12월 29일, EBS는 조직을 ‘4본부 4센터 1소 1국 1실 44부’ 체제로 개편했다. 조직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았다.

- 교육제작센터를 학교교육본부로 격상·신설
- 사장 직속으로 교육방송연구소 신설
- 부사장 직속으로 국제협력부 신설

**공사 창립 10년 이후, 조직의 변화**

EBS는 2010~2016년까지 분산된 조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위해 다양한 수익 사업을 확대·모색하는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2011년 6월 9일에 EBS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의 ‘EBS 강의-수능 70% 연계 정책’에 대응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디지털·스마트 시대의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고객, 콘텐츠, 미디어 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조직에 도입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콘텐츠 중심, 디지털 기반, 스마트 지향’을 중심으로 경영혁신을 꾀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 최초로 ‘시청자’ 대신 ‘고객’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심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기능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을 강화했다.

- 4본부 4센터 1소 1국 1실에서 3본부 3센터 1단 1소 1국 1실’ 체제로 변경

1



2



3



1. 당시 TFT로 설립된 팽TV&브랜드스튜디오는 <자이언트 팽TV>의 제작과 관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과를 극대화 시켰다. 사진은 팽수 사인회 현장
2. EBS는 한시조직을 활용,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설립할 때에도 '자회사설립추진단'을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사진은 'EBS미디어' 1주년 기념행사

3. 2020년 새로운 조직이 대거 등장했다. 수신료정상화추진단을 비롯해 6개 팀이 신설되었다. 2020년 1월 13일 부(서)장 임명장 수여식



- 스마트서비스센터 신설
- 편성센터를 콘텐츠기획센터로 개편, 교육리소스부 설치
- 학교교육본부 아래에 창의인성부 신설
- 융합미디어본부 신설

또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융합 미디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새로 꾸렸다. 정책기획센터 아래에 ‘뉴미디어기획부’를, 스마트서비스센터 내에 ‘IT인프라관리부, IT서비스운영부’를 신설해 조직 지원 역량을 높였다. 이를 통해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를 기반으로 삼아 언제 어디서나 교육콘텐츠의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조직 슬림화 달성을 위해 ‘부장 이상 간부를 11% 이상 감축’했다.

이어서 2011년 9월에는 한시조직인 ‘자회사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자회사 설립 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2년 5월 29일 EBS의 첫 번째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시 2013년 12월에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한 지속 성장과 함께 ‘실행력 강한 조직’으로 변화·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유아·어린이 대상의 제작 및 사업 기능을 일원화했으며, 특임국장, 사장 및 부사장 직속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특임국장·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 유아·어린이특임국 신설, 그 아래에 애니메이션부 신설
- 콘텐츠기획센터를 본부급으로 확대해 콘텐츠사업본부로 개편, 그 밑에 신성장기획부 신설
- 영상아트국 독립·신설

2016년 6월 1일, EBS는 다시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정책기획센터를 ‘정책기획본부’로 개편했으며, 그 아래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2017년에 예정된 디지털통합사옥 이전을 대비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 제시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것이다.

또한, 부사장 직속으로 ‘모바일판사업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쿨잼’ 사업을 수행하려는 취지였다. 이후에도 EBS는 다음과 같이 한시조직 신설 등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 2017년 \_ 경영혁신팀, 디지털혁신팀, 소프트웨어교육팀, 유아어린이사업팀 신설
- 2018년 \_ 사회적임경영실, 정보보호관리단, ERP구축단, 남북교육교류추진단,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소프트웨어교육팀 신설
- 2019년 \_ 팽TV&브랜드스튜디오(TFT)

2020년 1월, EBS는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학교교육본부의 단일 사업부제 구현으로 시너지 극대화하고, 대외협력 조직의 사장 직속 배치로 전사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수신료 조직의 공식 기구화로 공적 재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한시전문조직의 신설로 다음과 같다.

- 사장 직속으로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신설
- 콘텐츠기획센터 내에 북&랙처프로젝트팀 신설
- 방송제작본부 내에 지식채널e프로젝트팀, 미래콘텐츠기획프로젝트팀 신설
- 학교교육본부 내에 에듀테크팀, 영어인공지능프로젝트팀 신설
- 융합기술본부 내에 뉴미디어프로젝트팀 신설

한편, 2020년에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맞아 모든 조직의 지원 역량을 끌어모았다. 특히, 학교 정규수업이 원격교육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한시조직을 정규 부 단위 조직으로 격상해 관련 업무를 한층 강화했다. EBS는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 3. 인력

#### EBS 개국 이후, 인력의 운영

EBS가 1991년부터 독립 체제로 운영되면서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발맞춰 인력 충원도 대폭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교육방송 개국 당시 인원은 269명이었다. 기존 인원 231명과 함께 KEDI에서 이관된 인력 38명을 합한 것이다. 1991년 1월 1일, 1차 공개 채용을 통해 56명이 충원되었으며, 뒤이어 1월 10일에는 방통대 인력 47명의 이관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총 7차례 공개 채용을 통해 인력이 계속 보강되었다.

• EBS 개국 이전, 교육방송의 인력 현황(단위 : 명)

구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교육방송	223	223	223	266	266	269
방통고	18	18	16	20	20	20

• EBS 개국 초창기의 인력 현황(단위 : 명)

날짜	내용	명수
1991.01.01.	교육방송 기존 인력	231
	KEDI 이관 인력	38
1991.01.01.	공개 채용 인력	56
1991.01.10.	방통대 이관 인력	47
계		372

한편 1995년 3월, 케이블TV가 뉴미디어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열렸다. 그 전후로 방송계는 인력 유출 현상을 겪었는데, EBS의 인력 이동이 가장 많았다.

1997년 3월, EBS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거듭나 독립기관의 위상을 확보했다. 같은 해 3월 3일부터는 오전방송을 시작해 주당 18시간 방송이 늘어났다. 다시 8월 25일에는 위성방송을 개국하고, 9월 1일부터는 광고방송을 실시하면서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규직 50명, 계약직 40명을 신규 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쳐온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인해 1999년에는 인력 규모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규직 정원이 528명에서 475명으로 줄어 10%를 구조조정 감축한 것이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예산이 전년 대비 15% 삭감되었다. 이때 송파스튜디오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처음 도입했다.

• 1991~1999년 EBS의 인력 현황(단위 : 명, 정규직 기준)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정원	457	439	439	439	492	492	528	528	475

#### 공사화 이후, 인력의 운영

EBS는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거듭나 성장의 전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인력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에는 정규직 신규 채용이 23명에 그쳤다. 이후에도 정규직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긴축적 정원 관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2006년까지 계약직, 파견직의 신규 채용 위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EBS는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인력 부족을 극복해 나갔다.

EBS 노사는 2007년 5월 31일 TFT 등을 거쳐 합의를 체결하고, 뒤따라 8월 1일에 지상파 최초로 비정규직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 일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 총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미였다. EBS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 2000년대 EBS의 인력 현황(단위 : 명, 정규직 기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원	443	478	478	484	484	484	494	517	564	596
현원	423	446	454	448	452	455	475	490	526	560
결원(과부족)	Δ20	Δ32	Δ24	Δ36	Δ32	Δ29	Δ19	Δ27	Δ38	Δ36

2012년에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동결되어 온 정원을 611명에서 634명으로 증원하게 되었다. 신사업 및 전략 과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연한 인력 운영을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기해 나갔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인력(계약직 및 파견직)을 매년 신규 채용하면서 탄력적으로 추가해 운영했다.





1. 1992년 EBS 출범 후, 신규 직원은 EBS가 별도로 채용했다. 1992년에 입사한 신입 공채 사원들의 기념 사진

2. 공사 출범 후에도 인력이 부족했던 EBS는 화합의 기업문화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사진은 공사 출범 기념 체육대회

3. 2021년 9월 1일에 열린 신입직원 임명장 수여식. EBS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76명의 결원 현상을 겪고 있다.

EBS는 2015년 12월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수용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업무팀장' 배정 제도를 신설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근무 형태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단시간 근로자 운영 지침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등 업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다시 2018년 1월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추진해 나갔다.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 일이었다.

한편, 2021년에는 정원이 확충되면서 인력 충원이 대거 이뤄졌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원격교육을 통해 학습 공백 지원에 나서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인력 증가와 함께 최대의 현원을 기록했지만,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 2010~2021년 EBS의 인력 현황(단위 : 명, 정규직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원	597	611	634	634	634	634
현원	580	595	590	592	578	585
결원(과부족)	Δ17	Δ16	Δ44	Δ42	Δ56	Δ4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원	631	634	647	651	651	704
현원	594	586	595	593	589	628
결원(과부족)	Δ37	Δ48	Δ52	Δ58	Δ62	Δ76



## 4. 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과 인프라 확충

### 우면동 청사 및 도곡동 사옥 시대

KEDI 산하의 교육방송국 시절, 문교부는 5억 800만 원을 투입해 방송국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5월 14일, 마침내 ‘교육방송국 청사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 소재지는 서울시 성동구\* 우면동 산20-1이었다. 부지는 1만 6,000평 규모였다.

1975년 9월 27일, KEDI가 서울시 중구 예장동 구청사에서 우면동 신청사로 입주 및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우면동 시대’를 열었다. 착공 505일 만인 9월 30일, 뒤이어 신축 청사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로써 연구동 995평, 방송동 947평 규모로 건물이 완성되었다.

이후, 인력 규모가 늘어나면서 교육방송의 스튜디오 및 시설, 사무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결국, 1979년부터 외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공간 부족이 심화되어 1982년에 신관 청사를 증축했으며, 1985년에는 방송동 1개 층을 증축했다. 다시 1995년에는 서초동의 해동빌딩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는 노력까지 펼쳤다.

EBS는 1997년부터 우면동 청사 운동장 및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그곳에 새 건물을 짓고, KEDI가 소유한 신관동 및 방송동 건물과 맞교환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신축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건물 신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지만, 여의치가 않으면 외부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2000년에 EBS는 ‘공사화’로 거듭났지만, 인력과 장비·시설 등의 공간 문제는 더욱 열악해졌다. 우면동 청사 운동장 귀퉁이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할 정도였다. 특히, 임직원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근무해 업무 처리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 행정구역이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바뀌었으며, 다시 서초구로 변경되었다.

1



1. 1974년에 건립, 계속 사용했던 우면동 사옥. 사진은 1992년 모습이다. 규모와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부족한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



3



2. 2002년 공사 출범 후 사용했던 서울 강남 도곡동 사옥. 서울 중심부에 있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해 인근 지역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3. 2017년 4월, 일산사옥이 마련되면서 오랜 시간 사용했던 방송센터를 떠나게 되었다. 임직원들이 2017년 4월 10일 방송센터 고별행사를 열었다.



• 2001년 청사 사용 현황(200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평)

구분	사무실	방송시설	업무시설	공용시설	계	
우면동 KEDI 건물	사무실	366	854	500	375	2,095
	컨테이너 등	94	8		43	145
임차 건물	해동빌딩(서초2동)	432	7	219	523	1,181
	교총회관(우면동)	289	110	112	283	794
	도곡빌딩(도곡동)			51	39	90
	송파스튜디오(방이동)	20	98			118
	CJ39쇼핑(방배동)		240		20	260
계	1,201	1,317	882	1,283	4,683	

마침내 독립된 자체 청사를 마련할 기회가 찾아왔다. 2001년 2월 6일, 청와대에 ‘EBS 청사 건축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2001년 8월 30일, 드디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3, 463-3번지에 소재한 도곡빌딩이었다.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였다. 이후, 방송국 용도로 개조 공사에 착수했다. 2002년 4월 11일부터 부서별로 사무실 입주가 시작되었다. 우면동 청사의 시설은 그대로 두어 방송센터 역할을 계속하고, 사무실 공간은 모두 도곡동으로 이전했다.

2002년 6월 22일, ‘공사 창립 2주년 및 신사옥 입주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EBS 도곡동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도곡동 본사 1층에 스튜디오 및 강당이 개관했다. 가상스튜디오(Virtual Studio)를 설치하는 등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새로운 방송 인프라도 구축했다.

• 2002년 도곡동 본사 사용 현황(200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평)

구분	사무실	방송시설	업무시설	공용시설	계
도곡빌딩	1,291	387	1,072	2,844	5,594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 및 준공 이전**

EBS는 2007년 초부터 ‘통합사옥준비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도곡동 청사를 마련해 2002년에 입주했지만, 공간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시 남구청 등과 함께 부지 대안부터 모색했다.

• 2007년 청사 사용 현황(200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m)

구분	사무실	방송시설	업무시설	공용시설, 주차장	계	
도곡동 본사	4,387	1,431	3,266	9,408	18,492	
우면동 KEDI 건물	사무실	674	2,621	344	966	4,605
	세트동			198		198
가건물(천막 창고)			364		364	
	가건물(컨테이너)	145				145
임차 건물	다명빌딩(도곡동)	676		229	905	
	한방빌딩(도곡동)	380		66	446	
	송파스튜디오(방이동)	112	389		501	
창고(경기 과천 등 2곳)			297		297	
계	6,374	4,441	4,469	10,669	25,953	

2008년 1월, EBS는 사장 직속으로 ‘디지털통합사옥추진단’을 신설했다. 이어서 1월 16일에는 고양시 일대에 통합사옥 건립을 위해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다. 디지털통합사옥 마련의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 2008년 4월 18일 : ‘미래 비전 2012’ 발표, 디지털통합사옥 확보 사업 확정
- 2008년 8월 6일 : 한류월드 제3구역 토지이용계획 확정
- 2009년 1월 16일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
- 2009년 6월 19일 :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선포식 거행

EBS는 건립비용을 본사 사옥의 매각과 기타 자체 수익 확보 및 차입, 자본금 추가 납입,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통합사옥 건립이 보류되고 말았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KEDI의 이전이 2012년 12월 말로 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KEDI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통합사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려고 했으나, 근본적인 매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KEDI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통합사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BS는 2010년 10월 27일에 이사회를 개최해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에 디지털통합사옥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드디어 2011년 6월 28일,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한류월드 내 ‘EBS 통합사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류월드 부지를 조성 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시한이 딱 이틀 남은 상황 속에서 계약을 맺었다.



약 한 달 뒤인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 55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EBS 방송센터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어 사상 유례가 없는 비상사태를 맞게 되었다. EBS는 상황실과 대응단을 운영해 빠르게 복구해 조기에 정상화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EBS의 통합사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난관이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했다.

- 2011년 9월 15일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11년 11월 4일 :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2012년 1월 1일,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이 조직되었다. 뒤따라 3월에는 '사옥건립추진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 지원금 10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자본금 150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후, 건립 지원 예산이 꾸준히 반영되었다.

- 2012년 4월 25일 :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안) 이사회 의결
- 2013년 2월 20일 :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 변경(안) 이사회 의결
- 2013년 11월 11일 : 통합사옥 기본설계 최종 완료

마침내, 'EBS 디지털통합사옥 기공식'이 2014년 8월 5일 일산 한류월드 부지 내에서 거행되었다. 이후, 건축 평면 및 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9월에는 고양시로부터 변경허가 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EBS는 합리적인 방송 인프라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공을 들였다. 다수의 국내 방송사 및 방송 제작 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디지털 전환 및 방송·통신 융합 환경의 방송시설을 디지털통합사옥에 적용·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EBS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EBS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일산의 디지털 통합사옥에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다'는 약속이었다. '사옥 이전 차원을 넘어 새로운 방송사를 세우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 무렵,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던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마침내 2017년 2월 13일, EBS 디지털통합사옥이 고양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이 완료되었다. 사업 추진 약 1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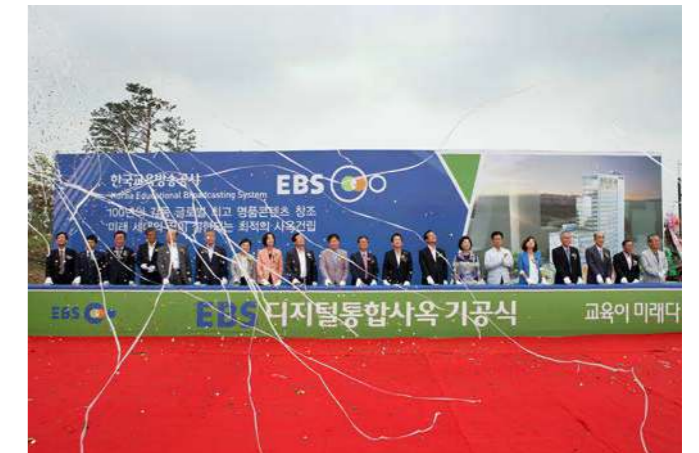
1



2



3



1. 통합사옥 건립은 EBS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공사 창립 후 EBS는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사옥 신축을 추진했다. 2009년 6월 19일에 열린 9주년 기념식 및 통합사옥 선포식
2. 2011년 6월 28일, EBS는 경기도와 한류월드 내 부지에 통합사옥용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합사옥 건립이 가시화되었다.
3. 2014년 8월 5일, EBS는 통합사옥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들었다.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장항동)'이었다. 지하 3층에 지상 20층 건물이었으며, 최고 높이는 98.6m에 달했다. 대지 면적은 1만 4,836㎡(4,488평), 건축 연면적은 6만 1,375.41㎡(1만 8,566평) 규모에 달했다.

2017년 4월 13일, 이사회는 '통합사옥 사무 공간 배치 및 이전 계획(안)'과 함께 '통합사옥 제작 인프라 이전 현황 및 계획(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5월부터 8월까지 부서와 시설·장비 등이 하나둘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일산에서 송출 개시**

2017년 6월 26일, EBS는 디지털통합사옥 1층 로비에서 '신사옥 입주 발전기원제' 행사를 거행했다. 이제 과거의 환경에서 첨단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차별화된 효율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 100% 디지털 파일로 테이프리스(Tapeless) 전면 시행
- 분리되어있던 스튜디오 통합·운영
- 수능교육 콘텐츠 전용 스튜디오 확대 등 방송 인프라 확충
- 노후 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 구축



2017년 8월 14일 새벽 4시 46분, EBS는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에서 첫 송출을 성공리에 개시했다. EBS 자체 기술력으로 송출 시스템을 완성해 의미까지 남달랐다. 특히, 주조정실은 지상 파TV와 위성채널 송출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방송 환경을 구현했다. 이로써 1991년 11월 1일 첫 자체 송출을 했던 우면동 방송센터는 역할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로써 EBS는 '일산 시대를 개막'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했다.

1. 2018년 6월 21일, EBS는 '교육방송 44년, 공사 창립 18주년 기념식'과 함께 EBS 신사옥 개관식을 함께 개최했다.

2. 2017년 6월 26일, EBS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사옥 입주 발전기원제'가 열렸다.

3. 시청자들을 위한 헛터와 배움을 위한 문화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진 신사옥 로비



# 6장. 사업



## 1. 출판 및 광고 사업

### 출판 사업의 확장

EBS는 1990년 12월 2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방송국'으로 출발했다. 1991년 4월 1일에는 KEDI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회계 체제를 가동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출판, 광고, 복사 보급'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학교교육 보완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간이었다.

출판 사업은 초·중·고교생 대상의 가정학습 교재, 성인용 외국어 회화 교재 등을 발간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역할이었다. 그중에서 주력은 <TV고교가정학습>의 방송교재였다. 초기에는 EBS 인지도가 낮아 출판사들이 대행 출판을 기피하였으나, 점차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교재 보급이 이루어졌다. 첫해에는 총 49종 210책을 발행했으며, 연간 판매 부수가 600만 부에 달했다.

1994년에 EBS는 방송교재 구입 편의를 위해 전국 16개 지역의 19개소에 '교육방송 교재 전문 판매서점'을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송교재 대행출판사는 14개에 이르렀다. EBS는 1997년 3월에 '한국교육방송원'을 설립해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었다. 이어서 8월에는 위성방송 1, 2TV가 개국해 위성 채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출판 사업은 대행출판사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부단한 교재 개발 및 적극적인 보급 활동을 통해 수익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 6월,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으로 '공사화 원년'을 맞이했다. 교재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일선 학교에 방송교재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수익에 충력을 기울였다.

2001년에는 직영 출판을 통해 초등영어 교재를 개발하면서 전국 서점에 보급했다. 2002년에는 직영 출판을 위해 전국에 75개의 총판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중학 교재 출판을 대행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2004년에는 출판 시장의 악화로 고교 교재 대행출판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어 교재 출판에 차질이 발생하자, 직영 출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뒤이어, EBS는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



감 대책'에 호응해 2004년 4월부터 'EBSi 인터넷 수능강의'를 시작했다. 수능 연계로 인해 출판 사업은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교 교재의 출판 매출 증가세가 획기적으로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사교육비 규모가 2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EBS 수능강의 및 교재의 '수능 연계 70%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EBS는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면서 출판 사업 매출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2011년 2월에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약 7,000여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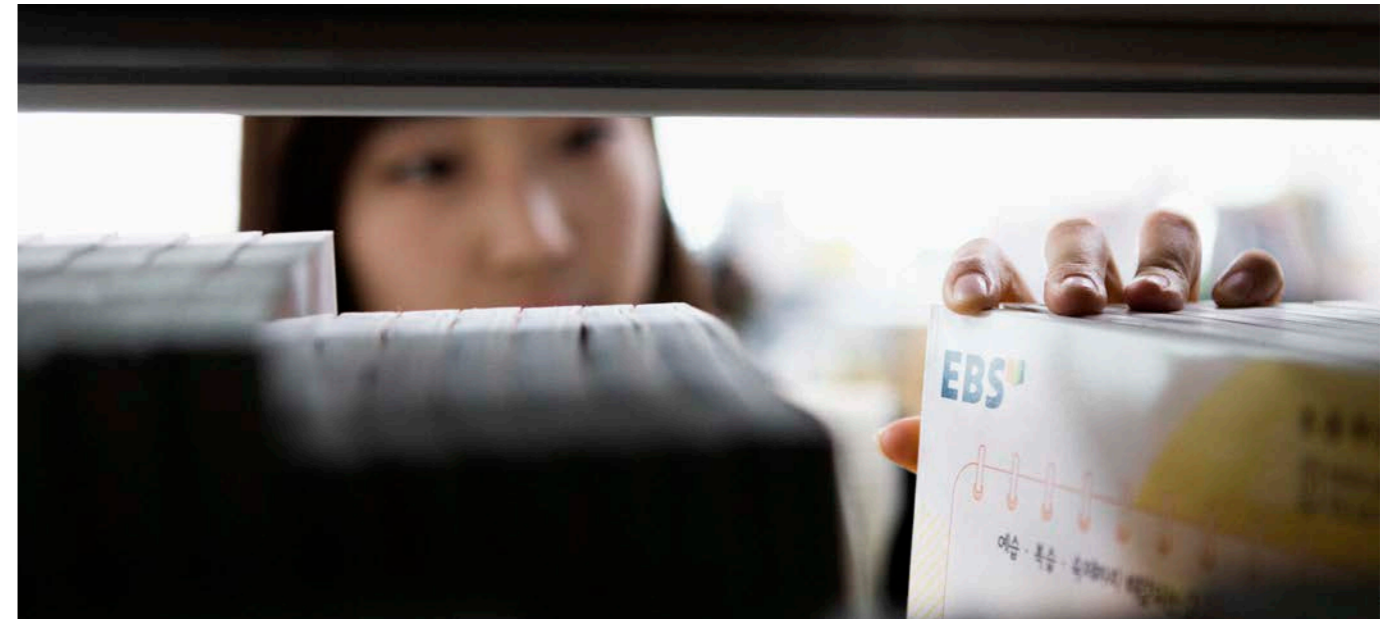
2010년 7월 14일, EBS는 '교재 정가 10% 인하'를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EBS 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재비를 내린 것이다. 그동안 EBS의 수능교재 정가는 시중 사교육 업체 교재 가격의 65% 수준이었다. 2011년에 EBS 출판 사업은 1,032억여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1,000억대를 처음 넘어선 일이었다. EBS는 2012년 1월에 수능 연계 교재 정가를 동결했다. 교재 제작 원가가 상승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학부모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교재 가격을 동결한 것이다. 다시 2012년 7월에 교재 정가를 2.1% 인하했다. 이후에도 EBS는 정가 유지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그동안 EBS의 학교교육 보완 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이 되어온 출판 사업이 2015년 이후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EBS는 교재의 다각화, 비연계 교재의 확대, 새로운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신규 사업을 모색해 나갔다.

EBS는 교재 출판뿐만 아니라, 방송과 연계된 단행본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시청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한 단행본을 발행해 EBS 콘텐츠의 활용도까지 높여 나갔다. <지식채널e>,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도올 김용옥의 증용, 인간의 맛>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단행본을 발행했다. 단행본 출판은 꾸준히 성장해 활성화되었는데, 자회사인 EBS미디어로 사업을 이관하기도 했다.

2020년 1월에는 출판 브랜드 'EBS BOOKS'를 새롭게 론칭하고, 첫 번째 책으로 <팽아트# 페이퍼토이북>을 출간했다. 또한, 단행본과 강연 콘텐츠 등 지식 중심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북&렉처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방송 기반의 단행본을 자체적으로 기획 및 출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도였다.

1



2



3



1, 2. 1990년 EBS 출범 이후, 독자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출판, 광고, 복사 보급'이 주된 사업이었다. 특히 교재 사업은 1990년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방송기반 단행본과 교양 강연을 매개로 한 지식 중심 콘텐츠는 '평생교육'이라는 소명이 드러난 사업이었다. 사진은 <클래스> 방송



도서는 ‘성인 학습/교양’과 ‘어린이 학습/교양’ 분야로 크게 나누었으며, 10개 카테고리(평수, 클래스©, 성인영어, IP성인교양, 부모교육, 교육인사이트, 다이어리, 유아어린이IP, 어린이학습, 어린이교양)로 구분해 단행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클래스>를 기획·제작하기 시작했다. 방송 기반의 단행본을 직접 기획·출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클래스>는 방송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인 비방송용 콘텐츠로 나뉘었다. 고전은 물론 최신 지식 등을 포괄하는 지식·강연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단행본 발간으로도 이어져 ‘평생교육’이라는 EBS의 역할과 공적 책무 강화에도 기여했다.

• EBS의 출판 사업 현황

구분	1991	1992	1993	1994
실적	32억 3,473만 원	44억 9,035만 원	64억 6,131만 원	56억 8,000만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실적	58억 원	162억 원	307억 원	217억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실적	208억 원	233억 원	239억 9,794만 원	264억 8,826만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실적	213억 8,210만 원	696억 6,290만 원	645억 5,949만 원	599억 6,297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실적	559억 4,988만 원	695억 1,681만 원	694억 673만 원	995억 8,432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실적	1,032억 4,300만 원	990억 9,900만 원	1,026억 9,700만 원	1,011억 9,600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실적	936억 1,000만 원	881억 6,300만 원	803억 400만 원	811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실적	783억 원	882억 원	887억 원	

광고 사업의 변화

EBS는 1990년 12월 개국 이후, 협찬광고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시행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약관과 계약 등 각종 자료 등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관계자협의회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1992년 5월 1일부터 TV협찬광고\*를 시행하게 되었다. EBS의 협찬광고는 다른 방송

\* 방송순서 광고, 토막광고, ID광고, 시보광고 등

사와 달리, 기업 PR 광고 및 교육적이면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소재의 광고 내용으로 집행되었다. 국내 광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이던 EBS가 수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과 조건 등을 먼저 해결해야만 가능했다. 부족한 재정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EBS는 항구적인 자체 자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상업 광고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사업 추진은 좌절되고 말았다.

1997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원이’ 설립되면서 EBS는 완전한 독립기관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어서 8월 25일에는 ‘위성방송 1, 2TV가 개국’했다. 위성 1TV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TV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뒤따라 9월부터 정부는 위성과의 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 광고방송을 허용’했다. 광고 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EBS는 1998년 9월부터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광고 판매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0년 9월 20일 EBS의 방송국 허가증 일부에 대한 변경을 정보통신부에 허가 추천했고, 비로소 광고방송 확대가 허용되었다.

이때, EBS의 TV 광고시간이 확대되었고, 방송 분야도 보도를 제외한 교육방송으로 확대되었다. TV의 광고방송은 당시 ‘사회교육 방송시간대’의 5%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FM 라디오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공익광고 및 협찬고지방송만 가능하고 상업 광고 방송은 금지되었다.

방송광고가 확대 허용된 이후, 광고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사업 전체가 전년 대비 81.0~98.5%로 부진했다. 이와 달리, EBS는 전년 대비 달성률 102.4%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협찬, 셀스루(Sell-Through) 및 캐릭터 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2011년에는 민영 미디어렐이 설립되면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뒤따라 2012년 5월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렐법)>이 제정되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KOBACO가 EBS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미디어렐법 제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판매대행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한편, EBS는 KOBACO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광고단가 현실화(평균



1



2



3



- 1994년에 게재된 EBS 이미지 광고 무공해 채소처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 EBS의 상업 광고방송이 허용된 것은 위성TV 개국 때였다. 위성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이 필요했다. EBS 위성방송의 한 장면

- 2000대부터는 디지털 방송으로 인해 많은 설비가 필요했다. EBS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출판물 비롯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EBS 디지털 장비 이미지

40% 이상), 업 프린트 및 정기물 판매'를 시범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판매 방식을 도입해 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을 통해, 2013년에는 지상파 광고 시장 축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광고 수입이 EBS 역사상 최초로 4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다시 2015년에는 410억 원을 기록해 EBS 역대 광고 매출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광고 시장의 격변기 속에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자력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이었다.

2016년부터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DMB 사업자)의 광고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광고 매출의 하락 폭이 컸으나, EBS의 경우에는 소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 지상파 방송 3사 광고 매출이 13.9% 감소했는데, EBS는 4.1%만 감소했다.

이렇게 선방한 이유는 EBS의 명품 다큐멘터리와 인기 애니메이션 등 고품격 콘텐츠 덕분이었다. 또한, 효율적인 광고상품 기획 및 미디어렙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판매기법 등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노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EBS 역시 광고 시장 저하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국내 방송사의 방송광고 환경 및 시장은 축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모든 방송사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해 직면한 광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EBS의 광고 사업 현황

구분	1991	1992	1993	1994
실적	6억 9,254만 원	14억 6,532만 원	19억 6,804만 원	51억 2,500만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실적	52억 6,000만 원	20억 3,243만 원	60억 4,093만 원	57억 7,745만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실적	96억 원	216억 7,590만 원	235억 1,355만 원	301억 4,930만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실적	360억 4,469만 원	368억 6,905만 원	328억 2,635만 원	335억 8,440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실적	309억 6,400만 원	256억 4,700만 원	262억 5,600만 원	300억 9,400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실적	320억 2,600만 원	352억 6,000만 원	400억 800만 원	399억 2,900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실적	408억 6,200만 원	370억 900만 원	354억 7,500만 원	313억 6,300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실적	258억 8,900만 원	221억 9,100만 원	260억 6,072만 원	



## 2. 콘텐츠 및 캐릭터 사업

### 콘텐츠 판매 사업

EBS는 1991년 7월부터 수익 창출을 위해 복사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딩동댕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복사 및 공급해 3억 1,731만 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1994년에는 영상사업부를 신설해 프로그램 판매 활성화를 도모했다. 복사 보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꼬마 요리사> 등 일부 프로그램은 비디오테이프로 재편집해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였다.

2001년에는 <방귀대장 뽕뽕이>의 셀스루 비디오를 제작해 28만 6,000세트를 판매했으며, <방귀대장 뽕뽕이>와 <딩동댕 유치원>의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위해 대행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셀스루 비디오 및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바나나를 탄 끼끼> 시리즈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주로 외산 캐릭터 상품이 다수였으나, '뽕뽕이 인형' 등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산 캐릭터 라이선싱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뽕뽕뽕 뽕뽕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이 IP 사업, 캐릭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어느덧, EBS의 영상 사업은 복사 보급 사업을 비롯해 ARS\*, 방영권 판매, 셀스루, 캐릭터, 프로그램 공동 사업 등으로 차츰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위성방송 프로그램 판매 사업 등이 가세해 갈수록 수익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발전했다. 다시 2006년에는 EBS 프로그램의 공연권 판매, DVD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로 감소 추세였던 영상물 보급 사업이 다시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BS는 열악한 대외 사업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 나갔다. 소비자에게 매체 및 디바이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고품질 영상을

\* 1996년에 수능시험 대학별 합격자 발표 ARS 사업을 처음 실시했으며, 1998년 12월부터 EBS 중·고교 방송 교재 문제풀이 ARS 사업을, 1999년에는 초등학교 EBS 겨울방학생활 방송교재 ARS 사업을, 2000년에는 대학입시 정보 및 초·중·고 방송교재 풀이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1. <방귀대장 뽕뽕이>의 등장 이후 국산 캐릭터 산업도 크게 발전했다. 이전까지는 외산 캐릭터가 주를 이루었으나 뽕뽕이 이후 많은 캐릭터가 활성화되었다.
2. <방귀대장 뽕뽕이>에 이어 뽕뽕로의 등장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도 크게 발전했다. IP 사업, 캐릭터 사업도 큰 폭의 성장을 구가했다.

3. 2000년 이후 EBS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다. 2007년 12월 26일 캐릭터 인기대상 시상식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2012년 6월에는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출범하면서 DVD 셀스루, 캐릭터, 영상물 보급 사업 등이 이관되었다.

• EBS의 문화/콘텐츠 판매 사업 현황

구분	1991	1992	1993	1994
실적	3억 1,731만 원	7억 7,992만 원	11억 4,132만 원	20억 4,102만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실적	18억 1,256만 원	23억 413만 원	26억 3,868만 원	20억 4,355만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실적	27억 7,664만 원	45억 6,332만 원	64억 2,330만 원	76억 1,995만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실적	71억 4,265만 원	70억 8,806만 원	146억 2,826만 원	110억 9,457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실적	144억 1,360만 원	146억 9,877만 원	150억 5,961만 원	143억 1,072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실적	118억 9,000만 원	96억 600만 원	2억 4,000만 원	

※ EBS미디어가 출범한 이후, 문화 사업 부문에는 2013년부터 협찬 사업만 남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으로 방송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해 나갔다. 콘텐츠 및 서비스의 경계 영역이 갈수록 허물어지면서 EBS는 콘텐츠 판매 및 유통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BS는 2008년에 EBSlang 등 인터넷 수익 사업과 IPTV 등 새로운 매체 중심으로 콘텐츠 판매를 재편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B2C 콘텐츠 판매 및 관련 제휴 사업이 48억, EBSlang이 46억, 콘텐츠 판매 및 제휴 사업이 45억 등 총 139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서 2009년에는 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총 173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둬 전년 대비 24.5% 성장했다.

이후, EBS는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 및 서비스를 공급·판매했으며, 웹하드 유통 사업을 통해 EBS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2014년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했다. 새롭게 부상한 OTT 서비스에 집중해 EBS 콘텐츠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017년부터 EBS의 온라인, 콘텐츠 판매 사업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비롯해 OTT 서비스 등에 집중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2019년에는 <자이언트 팽TV>를 선보이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에 선례가 되는 최고의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자이언트 팽TV>는 양질의 콘텐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새롭게 다가오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EBS는 신규 플랫폼에 적극적인 도전으로 콘텐츠의 미래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것이다.

• EBS의 온라인/콘텐츠 판매 사업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실적	139억 원	173억 원	120억 원	174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실적	190억 1,700만 원	216억 2,300만 원	273억 2,800만 원	203억 2,800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실적	204억 7,100만 원	256억 2,000만 원	283억 1,900만 원	310억 8,100만 원
구분	2020			
실적	402억 1,900만 원			

※ 2017년부터는 협찬, 콘텐츠 판매 및 제휴, 채널공급, 유튜브 사업 매출 합계액임

EBS IP를 활용한 부가 사업의 성장

EBS는 오랫동안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증가로서 입지를 굳혀왔으며,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을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외산이 아닌 국산 캐릭터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국산 캐릭터 산업의 부흥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까지 담당했다.

EBS 캐릭터 사업의 역사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인기에서 비롯되었다. 인기 있는 많은 캐릭터를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는 바로 '뽕뽕이', '번개맨', '점박이', '팽수' 등이었다.

2000년 3월부터 제작·방영된 <방귀대장 뽕뽕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토종 캐릭터 '뽕뽕이'는 비디오 출시와 캐릭터 인형 판매 등으로 캐릭터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2004년 2월에는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의 초록별 대모험>이 제작되어 공연의 막을 올렸다. 이처럼 뽕뽕이는 부가 사업 확장을 통해 활발하게 캐릭터 생명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1982년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딩동댕 유치원>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다. 1999년에는 <딩동댕 유치원>의 '뚝딱이' 캐릭터 인형을 처음으로 팬시 상품화했다.

2000년 10월에는 기존의 <딩동댕 유치원>을 토요일특집으로 확대해 대규모 공개방송으로 제작한 <모여라 딩동댕>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모여라 딩동댕>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번개맨'은 많은 인기를 구가했으며, 국내 유일 영웅 실사 캐릭터로 '번개맨 신드롬' 열풍을 몰고 왔다.





- 오랜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EBS의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제가 되었던 'EBS 캐릭터 육상대회'. 이를 통해 평수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 2000년에는 <모여라 덩동댕>에 등장한 신규 캐릭터 '번개맨'이 인기를 모았다. 이전에는 없었던 한국의 실사 캐릭터로 '번개맨 신드롬' 열풍을 몰고 왔다.

- <한반도의 공룡>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2018년 12월 12일 영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2-새로운 낙원' 언론 시사회

2007년 12월에는 <번개맨>이 뮤지컬로 만들어져 방학 기간에 공연되었다. '번개맨'은 2010년 EBS 캐릭터 대잔치 설문조사에서 '뽀로로'와 '뽕뽕이'를 제치고, 최고의 캐릭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 여름, EBS는 가족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을 선보였다.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들의 흥미진진한 비밀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한 것이다. 특히, <번개맨의 비밀>은 EBS가 직접 제작에 나선 최초의 작품이었으며, 뮤지컬 사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라이선싱을 통해 단순히 EBS 캐릭터를 제공했던 어린이 공연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여라 덩동댕>의 제작진과 세트디자이너 등 EBS 내의 전문가들이 공연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유아 전문가들이 만든 고품질 뮤지컬이었던 셈이다. 티켓 오픈 당일에는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으며, 새로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공연 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2016년 2월에는 국산 히어로 '번개맨'이 16년 만에 영화로 재탄생했다. EBS는 OSMU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4월에는 가족뮤지컬 영화 <번개맨과 신비의 섬>이 개봉했다. 고품질 OST와 화려한 CG,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참여형 '인터랙티브 무비'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상영 내내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번개맨을 외치면서 응원하고, 번개 체조 장면에서는 벌떡 일어나 적극적으로 동작을 따라 하는 열광적인 현상이었다.

'번개맨'의 뒤를 이어, 공룡 '점박이'가 대표 캐릭터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 2008년 11월에 방영된 아시아 최초의 공룡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은 EBS 성인 대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BS는 2011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미디어 융·복합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를 기반으로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EBS의 콘텐츠 및 IP를 활용해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었다.

2012년 1월,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에 등장한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를 캐릭터화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 3D>가 개봉했다. EBS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국내 3D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이정표까지 세웠다.

EBS는 2018년 8월부터 'TV 퍼펫 버라이어티쇼'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점박이 공룡대백과>



를 제작·방영하기 시작했다. ‘공룡 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구현한 일이었으며,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시도였다.

이렇게 공룡 ‘점박이’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공룡 정보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뒤이어 2018년 12월에는 공룡 ‘점박이’ 영화 후속작이 이어졌다.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2 : 새로운 낙원>이 한국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다. ‘점박이 시리즈’는 2019년 7월에 뮤지컬 <점박이 공룡대모험 : 뒤섞인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 국내 대표 공룡 IP인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을 기반으로 삼은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콘텐츠였다.

**펭수 IP 활용과 시너지 효과**

EBS는 신규 핵심 IP 개발 및 모바일, 수익형 콘텐츠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2018년 가을부터 어린이 콘텐츠를 만드는 TFT를 별도로 구성하고, 새롭고 독특한 기획안을 마련해 나갔다. EBS만의 차별화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표였다.

우선, TFT는 새로운 모바일 시대에 발맞춘 모바일 퍼스트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신규 프로그램 기획을 시도해 나갔다. 새로운 기획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색다른 접근법부터 모색했다. 마침내 2019년 3월 20일부터 <자이언트 펭TV>가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으며, 바로 뒤이어 4월 2일부터 <자이언트 펭TV>가 방송을 통해 선보이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현장형 셀럽 캐릭터인 ‘펭수’는 전 세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13일, EBS는 ‘펭수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및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폭발적인 인기로 날이 갈수록 협업 요청이 끝없이 쇄도하자, EBS는 12월에 ‘펭TV&브랜드스튜디오팀’을 전담 TFT 조직으로 신설했다.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EBS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전략과 조직, 프로세스, 사업, 시스템 등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한시 전문조직인 것이다.

펭TV&브랜드스튜디오팀은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제작’ 역량과 함께 다양한 사업 모델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킨 최초의 팀이 되었다. 이를 통해, 펭수 캐릭터 IP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 일반적인 캐릭터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30’을 중심으로 팬덤이 강하게 형성된 펭수는 수차례의 팬 사인회 개최는 물론 수많은 언론들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석하고,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해 방탄소년단(BTS)을 만났다.

1



2



1. 2019년 3월에 첫 선을 보인 펭수는 역대 캐릭터 중 가장 큰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사인회가 열렸고, 가는 곳마다 펭수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복세통을 이뤘다. 2019년 부산 사인회 현장

2. 펭수 인기는 유튜브에서도 폭발적이었다. 2019년 11월 펭수 유튜브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해 11월 28일 열린 100만 기념 생방송 현장



EBS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펭수를 활용한 <달려라 펭수>를 제작해 코딩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일산 디지털통합사옥 로비 2층에는 ‘펭수하우스’까지 오픈했다. 또한, 이미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실사 혹은 일러스트 이미지를 온/오프라인 제작물에 활용하는 사업도 진행했으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AR, 문구/팬시 상품 등이 제조 및 유통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29일에는 유튜브 채널 개설 약 10개월 만에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2020학년도 ‘EBS 수능특강 및 EBS 만점왕 교재’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EBS BOOKS’를 론칭하면서 ‘펭수 카테고리’로 구분해 <펭수 에브리데이> 등 6권의 단행본을 내놓았다. 이렇게 펭수는 브랜드 콘텐츠 제작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나갔으며, 2020년에는 펭수 매출이 120억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펭수 신드롬’ 덕분에 EBS의 수익 사업 실적은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2019년에 101억 원의 적자 경영을, 2020년에 64억 원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켰는데, 결과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준 것이다.

**공간 사업으로 다각화**

EBS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EBS IP를 활용한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사업이었다.

2016년 5월 25일, EBS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아가월드와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추진 중인 융·복합 디지털 테마파크 ‘제주번개행성’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가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내에 EBS 대표 캐릭터인 ‘번개맨’을 활용한 ‘번개행성’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EBS는 테마파크의 기획과 콘텐츠 제공 및 제작 지원, 방송 홍보를 담당하고, 아가월드는 시설 투자와 운영을, JDC는 장소 제공과 사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8일, 국내 최초 가상현실(VR) 레이싱 테마파크 ‘번개레이싱’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3층에서 오픈했다. 애초에 계획된 ‘제주번개행성’이 ‘번개레이싱’ 테마로 바뀐 것이다. EBS의 ‘번개맨’ 캐릭터에 가상현실과 위치기반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테마파크를 선보였다.

EBS는 번개맨을 활용해 또 다른 사업도 추진했다. 2016년 11월 26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군의 교육·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미래인재 양성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BS IP를 활용해 ‘번개맨 우주센터’와 ‘트레이닝센터’를 갖춘 디지털 테마파크를 건립

하고, 울주군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콘텐츠 공동기획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2월에 어린이 체험 영상관 ‘번개맨 우주센터’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에 개관했다. 번개맨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영상관이었다. 번개우주선에 탑승해 다중화면으로 구성된 실감 나는 어트랙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한편, EBS는 2019년 11월 18일에 공간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해 파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EBS의 특화된 IP와 지역 콘텐츠의 콜라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파주 유비파크의 유휴공간을 재생해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번개맨과 번개타운 친구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콘셉트로 전시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 홍보는 물론이고, 유입률 제고와 시장 활성화, 지역 명소화 단계로 기획했다. 공간재생을 통해 파주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한 셈이다.

2021년 10월 23일, 운정호수공원 내 유비파크에 파주놀이구름이 오픈했다. 파주놀이구름은 EBS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놀이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EBS 캐릭터들과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파주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앞으로 EBS는 파주 모델을 기반으로 삼아 전국 지자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5일에 개최된 ‘파주놀이구름’ 준공식



‘파주놀이구름’은 EBS의 교육철학과 캐릭터 IP를 반영한 국내 최초의 가족친화형 놀이문화공간이다.





### 3. 인터넷 기반 사업

#### 인터넷 기반 사업의 변화

2000년 12월 22일, 'EBS 인터넷 방송'이 개국했다. TV와 라디오, 위성에 이어 인터넷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EBS의 프로그램을 VOD/AOD로 제작해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EBS는 2001년 9월 1일부터 VOD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유료화했다.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서버 유지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고품질 VOD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증대되었으며, 서버 및 네트워크 증설 등 계속된 비용 투자로 인해 무료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VOD 서비스 유료화는 빈곤한 재정 현실 속에서 서비스 부실화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를 통해, 양질의 VOD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면서 서비스 안정화를 실현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해 나갔다.

EBS는 2002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VOD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2002~2003년에는 'E-Book 온라인 서비스 공동 추진, PDA를 이용한 서비스, MP3 변환 서비스' 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2020년 8월 26일, EBS는 '지식·교양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사이트 [www.ebs.co.kr](http://www.ebs.co.kr)를 전격 개편했다. 7만여 개의 콘텐츠와 영어 클립이 제공되는 '오디오 어학당'을 비롯해, 유아·어린이 콘텐츠 모음 '애니키즈', 국내 최고 지식인들의 강연 시리즈 'CLASse',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등의 '세상의 모든 기행', 수준 높은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경제·경영 콘텐츠 'EBS 비즈니스 리뷰(EBR)', 국내외 독립영화의 모든 것 'D-BOX', 고품격 명품 다큐멘터리의 향연 '다큐프라임', 최고의 의학 정보 '명의' 등 총 9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주제를 선택해 구독이 가능해졌으며, 유료로 제공하던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건축탐구 - 집>, <고양이를 부탁해> 등 EBS의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대폭 전환했다.

#### 어학 사업의 확대와 진화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외국어 학습을 위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 열풍으로 불어왔다. EBS는 외국어 학습을 보완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확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학습 사이트를 계획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 콘텐츠는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웹 기반 학습의 전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18일 '폴 인 랭귀지(Fall in Language)'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외국어 학습 전문 사이트인 'EBSlang [www.ebslang.co.kr](http://www.ebslang.co.kr)'을 오픈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 6개 외국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익, 토플 등 시험대비 강좌에서 일반 회화까지 외국어 교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신규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오픈 직후부터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06년 말에는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등을 추가해 12개 외국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1년 9~12월에는 '토익 목표 달성 코스(토목달)' 마케팅을 시작했다. 정해진 학습 일정에 따라 학습을 완료하는 경우에 수강료 50%를 환급해주는 학습자 보상 선순환 시스템을 시행한 것이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져 전년 동기 대비 225% 실적 증가를 일궈냈다. 목표달성 환급 시스템 도입은 학습 동기 부여는 물론 양방향 학습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2년에는 50% 환급 과정을 전면 확대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6년에 EBSlang은 론칭 10주년을 맞이했다. 18개 외국어 과정을 수험, 회화, 문법, 작문, 청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서비스했으며,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어로 진행되는 8개의 무료 한국어 과정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발전했다.

다시 2019년에는 EBSlang 사업의 재구조화에 착수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삼성멀티캠퍼스와 공동 제휴하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 어학 교육 강의를 B2C 중심 판매로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환급 과정 및 무료학습 과정 등을 통해 공익적 책무와 역할 유지에도 정성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EBS는 2020년 8월 26일에 '지식·교양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오디오 어학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EBSlang의 뒤를 잇는 구독 어학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7만여 개의 콘텐



츠와 영어 클립이 제공되었으며, 공식 SNS를 통해 매일 새로운 소식과 함께 큐레이션 된 콘텐츠를 선보였다.

• EBSlang 운영 실적 현황(매출액은 온라인 결제액 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누적 회원 수	-	82만 1,520명	117만 8,328명	109만 6,118명
매출액	7억 6,400만 원	57억 2,353만 원	54억 3,970만 원	53억 8,827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누적 회원 수	117만 1,820명	134만 2,178명	160만 1,343명	186만 508명
매출액	44억 9,178만 원	52억 7,200만 원	95억 9,400만 원	160억 100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누적 회원 수	186만 508명	35만 6,131명	36만 5,815명	11만 3,685명
매출액	195억 5,200만 원	192억 3,500만 원	135억 6,900만 원	85억 4,402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누적 회원 수	10만 6,390명	7만 6,326명	5만 4,947명	5만 4,478명
매출액	63억 6,293만 원	46억 435만 원	37억 5,615만 원	20억 9,492만 원

**유튜브 조기 진출 및 유통 채널 다각화**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성장한 EBS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콘텐츠 기반의 융합 미디어’로 변신을 꾀했다. 2012년 5월 15일에는 구글(Google)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를 통해 EBS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튜브와 일찌감치 손잡고 글로벌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선도하게 된 것이다.

EBS는 유튜브 내 EBS 공식 채널 론칭을 통해 EBS 콘텐츠의 홍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 콘텐츠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였다. 교양/다큐/유아/교육/어학 등 5개의 채널을 오픈하고, 유통 채널의 다각화로 신규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2012년 11월부터 유튜브에서 EBS 기본채널이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때부터 EBS 콘텐츠는 본격적으로 해외에서도 시청이 가능해졌다. 2013년 2월 5일부터 EBS 공식채널이 공식 서비스를 오픈해 콘텐츠 유통 채널 다각화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는 EBS Kids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EBS Kids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EBS는 2017년도부터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재가공한 핵심 주제별 채널 ‘EBS 컬렉션’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EBS 디지털 아카이브(E-DAS)에 축적된 31만 편의 TV 프로그램에서 선별한 핵심 클립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제공했다.

2019년 5월에는 EBS 다큐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 유튜브로부터 ‘골드 플레이 버

1



2



1. EBS Kids 채널은 2017년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8년 7월 19일 유튜브 EBS Kids 채널 구독자 100만 골드 플레이버튼 전달식

2. 2019년 5월 23일에 열린 유튜브 EBS다큐 채널 구독자 100만 달성 골드 플레이버튼 전달식



튼'을 전달받았다. 국내 다규 채널 부문으로는 최초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EBS 유튜브 채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270만 구독자를 가진 거대한 채널로 성장했다.

• EBS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총 조회 수	2억 8,631만 건	7억 6,123만 건	9억 7,058만 건	11억 5,400만 건
총 감상 시간	12억 2,600만 분	30억 2,590만 분	41억 3,900만 분	51억 3,300만 분
업로딩 콘텐츠	약 1만 1,062클립	약 1만 4,732클립	약 1만 5,690클립	약 1만 728클립
구분	2018	2019	2020	2021
총 조회 수	17억 5,000만 건	23억 1,000만 건	20억 7,600만 건	16억 1,000만 건
총 감상 시간	83억 9,370만 분	113억 9,190만 분	148억 1,400만 분	112억 1,000만 분
업로딩 콘텐츠	약 1만 4,718클립	약 1만 6,867클립	약 1만 3,873클립	약 1만 6,780클립

학습 콘텐츠 사업의 안착

중학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인 'EBS 중학프리미엄'이 2009년 1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TV중학'이 무료 기반의 EBS 출간 자체 교재 해설 강의인 데 비해, '중학프리미엄'은 검인정 교과서별 내신 대비가 가능한 유료 인터넷 강의였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대비 중심인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검인정 교과서 중심으로 내신 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학교에 따라서 과목별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한 후에 강의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교과서 기반의 중학 내신 강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맞서, EBS 중학프리미엄도 국어와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신 진도 강좌, 시험대비(중간, 기말) 강좌, 방학 특강 강좌 등을 개설했다.

EBS는 인터넷 강의 제작 노하우와 IT 플랫폼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학프리미엄'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중학프리미엄의 수강료는 사설 인터넷 강의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약 5,000편의 강의를 신규 제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총 2만여 편을 연중 서비스하고 있다. 80여 명의 강사진이 강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35명의 검수진을 투입해서 오류 없는 고품질의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2020년에는 중학프리미엄의 모든 콘텐츠를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 'EBS 온라인클래스'에 탑재했다. 이렇게 EBS 중학프리미엄은 학교

교육 보완 및 정상화에 일조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해 공적 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재원 역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교과서별 내신 진도 강좌와 함께 시중 출판사의 유명 교재에 대한 해설 강의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었다. 또한, 지역 및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도 이바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2009년부터 평생교육 보완의 일환으로 명품직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공무원, 자격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으면서 첫해에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동안 외부 사업자와 공동 사업 형태로 지속해서 추진했는데, 2021년에는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자체 직영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에는 취업준비생의 필수 자격증인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대비 교재 및 강의 상품을 자체 개발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사업모델을 개선한 후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통해 평생교육 보완 및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시장 내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BS는 인터넷 강의 서비스인 'EBS 중학프리미엄'을 론칭,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시작했다. 사진은 EBS 중학프리미엄 연간 커리큘럼 서비스 화면이다.





## 4. 글로벌 사업

### 콘텐츠 글로벌 수출

EBS는 2001년 4월에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국제 방송 프로그램 시장인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s Television)’에 참가했다. 2004년부터 EBS는 프로그램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필두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이 수출되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시베리아 호랑이 3대의 죽음> : 북한, 스위스, 홍콩, 독일
- <문자> :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미국
- <아기성장 보고서> : 스웨덴
- <방귀대장 뽕뽕이>, <딩동댕 유치원>, <모여라 덩동댕> : 일본

2005년에는 수출이 특정 판매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잇따른 수출 소식으로 성과를 올렸다. <뽕뽕뽕 뽕뽕로 II>, <내 친구 드래곤 II> 시리즈가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로 수출되었다.

2008년에는 EBS 명품 다큐멘터리의 프라임 시간대 집중 편성 덕분에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물량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2009년은 콘텐츠 수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해였다.

<한반도의 공룡>을 비롯해 <다큐 프라임>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반도의 공룡>은 세계 최대 방송프로그램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가에 판매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EBS는 2011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중 3D 입체 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가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에 국내 수출 최고가인 3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에는 <한반도의 매머드> 등 7편의 다큐멘터리를 한꺼번에 수출하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1



2



3



1. 세계 각국이 EBS 포맷에 관심을 기울였다. 2014년 11월 23일에는 EBS 유아 어린이 대표 프로그램인 <모여라 덩동댕> 중국 공연이 열렸다.
2. 중국 방송사들도 EB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수입하기 시작했다. <모여라 덩동댕> 포맷의 중국 수출 계약
3. 남미에서도 EBS 모델을 수입했다. 2013년 8월 26일에는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콜롬비아에 교육방송 모델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콜롬비아 방송 관계자의 시찰



이후, EBS는 수출 전략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나갔다. 2013년에는 중남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해진 수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남미 : 브라질, 칠레
- 북미 : 미국
- 중동 : 이란, 레바논
- 유럽 :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프랑스, 그리스, 스위스
- 아시아 : 홍콩, 중국,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일본

2014년 6월에는 <모여라 덩동댕> 포맷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EBS 사상 최초의 포맷 수출이기도 했다. 중국 공영교육방송인 CETV와 포맷 수출로 20편을 계약했으며, 제작 바이블 및 시놉시스를 전달했다. 같은 해, <위대한 미안마>가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에 선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BS의 콘텐츠가 인정을 받아 선판매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었다.

한편, EBS는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중국 SMG(상하이 미디어그룹)와 공동 제작한 <불멸의 진시황>이 미국 스미스소니언 네트워크에 판매되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가 국내 최초로 다큐멘터리 포맷 수출 실적을 거둔 작품이 되었다.

2018년에는 프랑스 ARTE, 이탈리아 RAI에 <녹색동물>, <생명의 전략>,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등 자연, 문명사 판매를 통해 다큐멘터리 명가로서 EBS의 입지를 더욱 다졌다. 이와 함께 중국 Huashi와는 <명탐정 피트>,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등 애니메이션 패키지 판매 계약을 체결해 급증하는 유아·어린이 해외 콘텐츠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인도에 최초로 유아·어린이 포맷 <모여라 덩동댕>을 수출하는 성과까지 올렸다. 더불어 <최고의 요리비결>이 한류 콘텐츠 성숙 시장인 일본 수출은 물론이고, CIS 및 중동 지역에도 판매되어 한류 콘텐츠 신흥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

2020년에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성장으로 레거시미디어 시장은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EBS는 다큐멘터리의 명가답게 자연, 과학, 문명사 등의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수출했다. 이태리 RAI에 <위대한 로마>, <사라진 인류> 등을 판매했고, 스페인 RTVE 및 스위스 RSI에 <녹색동

물>을 판매했다.

이와 동시에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도 적극 대응했다. 유럽 내 OTT 플랫폼인 Knowledge Network와는 <범의 땅> 등 다큐멘터리 패키지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의 유아교육 OTT 플랫폼 Mampod에 <쇼 미 더 컬러>를 판매했다. EBS는 기존 판매 채널 외에 다양한 해외 판매 판로 모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EBS의 프로그램 해외 수출 실적(단위 : USD)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편수	578편	683편	850편	548편	821편	761편	963편
금액	120,000	160,000	353,000	134,230	223,000	1,120,000	776,00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편수	810편	1,986편	659편	290편	851편	1,051편	1,406편
금액	1,227,000	1,060,000	728,000	870,000	902,000	1,085,000	1,339,000

국제적 위상 정립 및 EBS 모델 수출

EBS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4년 11월 1일에는 전 세계 6개 지역방송연맹 중의 하나인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EBS가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EBS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갔다. 2011년 3월에는 미국 공영방송 PBS의 자회사인 PBSd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동남아의 우수한 방송사들과 MOU를 체결해 ‘교육한류’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한류 전파를 계기로 EBS 모델 수출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EBS는 2011년 7월 19일에 콜롬비아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다. ‘콜롬비아 교육방송국 설립’을 위한 사업이었다. 즉, ‘EBS 설립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KSP(경제 개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도상국에 교육 선진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약 3년 뒤인 2014년 4월 25일, EBS는 베트남 최대의 국영방송인 VTV(Vietnam Television), 민영기업인 AIC와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교육 채널 개국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이었다. 이후 교육방송 구축 관련 기술을 지원했으며, 컨설팅 제공은 물론 인력 연수까지 진행했다. 2015년 11월 20일부터 베트남 국영방송 교육채널 VTV7의 시험방송이 시작되었다. EBS 프로그램을 타임 블록 편성으로 방송하게 되었으며, 130시간의 애니메이션을 패키



지로 구입해 의미까지 남달랐다.

2016년 1월 1일, 베트남 교육채널 VTV7이 본방송을 실시했다. 이어서 1월 8일에는 개국식을 거행했다. EBS 설립 모델이 해외 진출의 첫 성과를 올린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수출이 아니라, EBS가 쌓아온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전수해 ‘교육한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를 계기로, EBS의 국제적 영향력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었다. 2016년 12월 7일, 캄보디아 민영방송 압사라 TV(Apsara TV), SOMA 그룹과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에는 TV 콘텐츠 공급 및 인력 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현지 인력 연수가 이뤄졌다.

다시 2019년 8월, EBS 모델 해외 수출(ODA) 사업이 캄보디아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2020년 특색사업 77선’ 중 하나로 ‘원조로 설립한 우리 EBS를 캄보디아에도 만듭니다’가 선정된 것이다.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1차 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2, 3차 년도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ODA 사업을 통해 EBS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의 교류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되었다. ‘교육한류’ 전파를 위해 EBS 모델의 해외 수출 사업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1



2



1. 2016년 1월 7일에 열린 베트남 교육채널 VTV7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협약식. EBS 모델이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첫 사례였다.

2. EBS 모델로 2016년 1월에 개국한 베트남 교육채널 VTV7



## 7장. 사회공헌 및 공적 책무



### 1. 공교육 지원

#### 방송 활용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시작

EBS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통신교육은 EBS의 오랜 소임이었다. 가정 형편 등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했던 만학도와 주부, 근로 청소년 등에게 EBS 라디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1974년 3월 23일, 교육방송\*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통고) 11개교가 서울과 부산에 설치되면서 국내 최초로 통신교육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위해 EBS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0년까지 방통고 누적 학생 수는 55만 명을 넘어섰다.

1990년 12월 27일, 독립된 채널을 확보해 EBS가 개국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통대)의 제작 인력을 이관받았다. 방통대는 라디오 강좌 방송만 진행하다가, 1985년 1학기부터 TV 강좌를 개설하는 등 방송 제작 자체 인력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방통대의 기능까지 확대하게 된 EBS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 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활약했다.

한편, EBS는 일선 학교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 지원 활동도 펼쳐나갔다. 1991년 10월부터 3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이후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공청 시설과 장비 운용 미숙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를 찾아갔으며, 수신 상태 점검, 방송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주었다.

일선 학교 기술 지원 사업은 1990년대에 546개 학교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에는 2,297개 학교로 대폭 확대했다. 2017년까지 3,061개 학교에 지원을 펼쳤다. 또한, EBS는 음 단위 등으로 전국에 출장을 나가 TV와 FM 방송의 전계 강도\*\*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수신 문제점 등을 찾아 KBS에 전달해 개선되도록 노력했다.

\* 당시 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산하의 조직이었다.

\*\* 전계 강도(Electric Field Strength)는 전파가 전파될 때의 전파의 세기를 말한다.



**저소득층 EBS 교재 무상 지원**

2003년 12월, EBS는 농어촌 지역에 중학 방송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뒤이어 2004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기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교재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무렵 ‘EBSi 인터넷 수능강의’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취지였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 공익적 책무를 이행하려는 목적이기도 했다.

2004년에는 교재 무상 지원 대상을 고3 학생으로 시작해서, 2007년부터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했다. 201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중·고 전체 학생으로 대폭 늘렸다. 2021년까지 1,084만 부 이상을 지원했는데, 정가 기준으로 84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 연도별 저소득층 EBS 교재 무상 지원 현황 (\* 지원 금액은 정가 기준임)

년도	2004	2005	2006	2007
지원 학생 수	5만 6,000명	5만 6,000명	8만 명	13만 8,000명
지원 부수	58만 8,000부	25만 7,000부	36만 부	72만 1,249부
지원 금액	30억 2,700만 원	18억 6,900만 원	23억 7,800만 원	36억 1,300만 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지원 학생 수	13만 8,000명	5만 6,000명	20만 1,200명	26만 6,000명
지원 부수	60만 3,148부	17만 1,000부	87만 3,600부	107만 부
지원 금액	33억 4,000만 원	11억 8,100만 원	59억 8,000만 원	73억 100만 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지원 학생 수	27만 8,000명	27만 8,000명	23만 2,000명	20만 9,000명
지원 부수	119만 6,000부	103만 4,000부	91만 8,000부	80만 7,000부
지원 금액	77억 1,700만 원	72억 9,745만 원	68억 9,175만 원	62억 925만 원
년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학생 수	21만 5,000명	21만 1,000명	20만 7,000명	4만 8,971명
지원 부수	75만 7,000부	73만 9,000부	73만 1,500부	17만 4,542부
지원 금액	63억 6,234만 원	63억 4,300만 원	65억 9,290만 원	18억 5,703만 원
년도	2020	2021	합계	
지원 학생 수	5만 6,064명	7만 6,521명	280만 2,756명	
지원 부수	20만 963부	38만 5,466부	1,084만 8,468부	
지원 금액	21억 4,345만 원	39억 865만 원	840억 1,182만 원	

※ 2019년부터 학교 단위 지원 방식에서 개별 신청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EBS 활용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2011년 3월 29일, EBS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EBS 활용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사회

1



2



3



1. EBS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재 지원 행사를 펼쳤다.
2. EBS는 2011년부터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1월에 열린 EBS, 경남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북교육청의 공동 협약 체결식
3. 교육멘토링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었다. 사진은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진행 장면이다.

2. EBS는 2011년부터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1월에 열린 EBS, 경남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북교육청의 공동 협약 체결식





1. 2018년 3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꿈장학생 시상식. EBS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EBS 강의로 학업 성취를 이룩한 학생들을 지원했다.

2. 2019년 3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꿈장학생 시상식

통합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공동 추진하게 되었다.

EBS를 활용한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으로 ‘꿈을 키우는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 혜택을 받은 학습 수혜자(멘티)가 또 다른 멘토로 활동하게 되면서 나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즉, ‘멘티가 멘토로 변화하는 선순환 구조’였다.

교육청은 오프라인 멘토를 지정하고, EBS는 온라인 학습지도와 함께 온라인 멘토를 운영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력이 향상되고, 이후에는 멘토로 봉사 활동까지 실천하는 나눔과 배려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었다. 2011년 10월 28~29일에는 ‘EBS 교육 멘토링, 멘토와 멘티 만남 캠프’ 행사를 경주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했다.

EBS 활용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사업은 2011년 11월 22일 ‘제3회 대한민국 휴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2년 11월에는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 달 뒤인 12월에는 전북교육청의 순창 지역에서 멘토링 시범사업도 운영했다. 이후 EBS는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멘토링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했다. 역량, 진로, 학습, 진학 설계형, 혼합, 원어민 화상영어 등의 멘토링으로 유형도 다양해졌다. 2020년까지 국방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총 10개 기관과 29회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다. 수혜 현황을 살펴 보면, 멘토 1,013명, 멘티 6,817명, 학교 1,329개에 이르렀다.

• EBS 활용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참여 인원(멘티)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멘티	496명	546명	774명	714명	440명	439명	792명	518명	611명	557명	930명

**꿈 장학생 선발**

EBS는 2007년 1월에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를 실시했다. 교육방송을 통해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된 학생들의 사례나,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 사례, 교육 현장에서 교육방송 강좌 활용 사례 등을 공모한 것이다.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해 교육방송의 유용성과 그 가치를 널리 알려 방송학습 방법을 널리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2012년 1월 19일, EBS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함께 ‘교육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EBS 열공 장학생’ 14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2012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거쳤다.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가 더욱 진화한 것이다.

열공 장학생 시상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EBS 수능강의로 공부하며,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해 좋은 결과를 이뤄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 엄선한 5명의 사례는 <EBS 공부의 왕도 스페셜>로 제작·방영해 교육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했다.

2014년 2월 19일, EBS 수능강의로 꿈을 이룬 ‘EBS 꿈 장학생’ 31명이 선발되었다. ‘열공 장학생’ 제도가 2년 만에 ‘꿈 장학생’으로 개편·발전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조모 밑에서 자라며, 폐지 수집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서남대 의대에 합격한 박모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8명의 사연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EBS 꿈 장학생>이 제작·방영되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후 EBS 꿈 장학생은 매년 진행되었으며 장학금 규모를 계속 늘려나갔다. 2020년까지 57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8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꿈 장학생’ 시상식은 생략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사연과 꿈을 향한 도전 영상을 방영했다.

그동안, EBS는 꿈 장학생이 멘토가 되는 ‘EBS 꿈 장학생 멘토링단’을 운영했다. 장학생 선발·시상을 선순환 제도로 연결시킨 모범적인 선례였다. 2020년에는 20명의 수상자가 ‘EBS 꿈 장학생 멘토링단’으로 활동했다. 꿈 장학생 멘토링단은 EBSi 회원을 대상으로 공부법을 비롯해, 진로와 진학 상담, 슬럼프 탈출 방법, EBSi 활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었다.

• EBS 꿈 장학생 시상 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장학생 수	26명	26명	26명	228명	33명
장학금 총 지급액	950만 원	950만 원	950만 원	1,210만 원	3,140만 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학생 수	14명	14명	31명	48명	19명
장학금 총 지급액	2,200만 원	2,200만 원	6,500만 원	4,300만 원	4,500만 원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학생 수	20명	25명	21명	20명	20명
장학금 총 지급액	1억 원	1억 4,000만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 2007~2011년은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 2012~2013년은 열공 장학생으로 선발 및 시상

재외교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EBS는 2004년에 ‘EBS 10대 기획’을 수립하면서 ‘재외동포 교육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 세계 600만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교육 및 올바른 민족문화와 역사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재외교민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해 EBS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로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및 기타 소외 지역의 한글학교·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VOD 콘텐츠와 전자 교재 위주로 지원했다.

2010년부터는 중남미 지역까지 지원 폭을 확대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1개 나라의 한글학교·한국학교에 VOD 콘텐츠와 방송교재, 교양 도서 등을 제공했다. 2010년까지 총 41개 나라의 157개 재외교민 교육기관에 총 33만 3,025편의 교육용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0년 12월에는 세계 최대 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가나 지역 10개 학교에 지원을 펼쳤다.

다시 2011년에는 미국, 스페인 등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재외교민 지원을 확대했다. 2012년에는 러시아, 베트남 등 4개국에, 2013년에는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넓혀나갔다. 특히, 2013년 3월 14일에는 재외동포재단과 MOU를 체결해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EBS 교육 콘텐츠를 외장하드에 담아 제공하기 시작했다. 재외교민 교육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약 70개국 한글학교·한국학교에 약 90만 편의 교육용 콘텐츠 무료 제공 실적을 보여주었다.

• 2011~2016년 재외교민 EBS 교육용 콘텐츠 지원 현황

년도	장학생 수	장학금 총 지급액
2011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VOD 콘텐츠 17만 7,743편 교양 도서 1,000권
2012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4개국	VOD 콘텐츠 5만 7,431편 교재 260권
2013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재외동포재단 등	VOD 콘텐츠 5만 7,730편
2014	-	-
2015	베트남, 미국,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6개국	VOD 콘텐츠 10만 3,667편 교재 304권
2016	베트남, 우간다, 케냐, 몽골 등 4개국	VOD 콘텐츠 3만 2,000편



## 2. 사회공동체 회복 및 나눔 문화 확산

###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꿈나래 봉사단 운영

1990년대 초반, EBS와 임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등 일반적인 모금 위주로 사회공헌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초·중·고교에 ‘과학 기자재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전 국토 청결 운동’을 전개해 인왕산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 1990년대 초반, 일반 사회공헌 활동 내역

날짜	내용	금액	기타
1991.05.18.	장기 입원 전투경찰 위문	1,000,000원	
1991.08.19.	과학 기자재 보내기 운동	1,000,000원	
1991.09.09.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	2,474,400원	전 직원 월급에서 공제
1992.01.15.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2,901,594원	천사요양원 외 4곳에 전달
1992.06.22.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성금	1,600,000원	
1992.11.05.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	2,416,630원	
1993.01.19.~01.20.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성금	3,609,313원	천사요양원, 우성원, 자립원, 경찰병원 등에 전달
1993.11.04.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성금	-	직원 399명 참가
1993.12.20.	이웃돕기 성금 모금	2,970,000원	서초구청 추천 학생 3명, 새빛선교원, 무의탁 맹인 복지기관, 신망애의 집 등에 전달

2000년대 중반 이후,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2008년에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에는 ‘사랑의 보물 쉼’ 독거노인 돕기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다시 2011년 1월에는 한부모 복지시설에 EBS 교재 및 식료품 등이 담긴 ‘EBS 나눔상자’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꿈을 키워주는 바자회’ 행사의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했으며,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2012년 9월부터 EBS 캐릭터 출연진들이 ‘꿈나래 봉사단’을 조직했다.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EBS 캐릭터 무료 공연과 함께 선물 등을 전달한 것이다. 인기 캐릭터 ‘번개맨’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1



3



1. 2012년 9월에 조직된 '꿈나래 봉사단'의 문화공연 활동. <모여라 덩동댕> 출연진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EBS 캐릭터 무료 공연', 선물 증정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3. TV 프로그램인 <나눔0700>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이 방송을 통해 모금된 93억 원의 자금을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2



4



2.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 '꿈을 키워주는 바자회' 현장
4.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방송 장면. 세계 각 지역의 소외와 지원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즐거운 공연이었다. 주로 어린이병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꿈나래 봉사단’은 2014년에 누적 공연 관람객 2,500명을 달성했다. 이후 2015년에는 7곳에서, 2016년에는 6곳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다시 2017년에는 장애아동 시설인 승가원에서 ‘찾아가는 모여라 덩동댕’ 공연을 진행하는 등 모두 4회의 공연을 실시했다.

한편, EBS는 2020년에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모금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는 취지였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943만 5,000원의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 사회공헌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오래전부터 EBS는 본연의 역량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살려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 방송과 모금을 결합한 형태를 시도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즉, EBS는 모금 캠페인 방송을 통한 사회 공동체 회복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EBS는 모금 캠페인 방송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EBS 사회공헌 1.0 시대’를 연 것이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ARS 모금 방식의 프로그램 <효도 우미 0700>을 오랫동안 방영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극심한 빈곤층으로 전락한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을 돕는 기부 프로그램이었다.

2006년에는 생방송 <희망의 공부방 만들기> 2부작을 방영해 소외지역 공부방 건립 지원에 나섰다. 대한민국 최초로 빈곤 아동을 보살피는 공부방 건립 지원 사업이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EBS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금 캠페인 방송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 2006년 6월~2008년 2월 : <사랑의 공부방 네발자전거>
- 2008년 4월~2010년 5월 : <나눔+>
- 2010년 9월~현재까지 : <나눔 0700>
- 2012년 2월~2019년 8월 :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특히, <나눔 0700>은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가면서 약 9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장애인과 난치성 환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1,069명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EBS는 본연의 능력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살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 개

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EBS FM 라디오는 1994년 2월 28일 첫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한가족>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편성 방향을 실천한 일이었다. <사랑의 한가족>은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것에 이바지했다.

2010년대 이후, EBS는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수익을 사회공헌 예산으로 환원하면서 콘텐츠 제작 지원 규모를 점점 늘려나갔다.

특히, 2013년 10월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고부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다문화 고부열전>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친정 나라로 고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 가족의 행복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정과 우리 사회의 편견, 괴리감 등을 좁혀가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사랑> 등을 신설해 사회공헌 방송 프로그램에 51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에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의 평균 사회공헌 예산 비율이 매출액 대비 0.26%인데 비해, EBS는 1.68%로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만 배분받는 취약한 지원 구조, 그리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30%에도 못 미치는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EBS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갔다.

한편, EBS는 2012년부터 ‘꿈나래 봉사단’을 통한 문화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국내·외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EBS 꿈을 키우는 바자회’ 등도 개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물품 기부와 함께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나간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내부의 우수한 기술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게 된 시점이었다. 이로써 내부 자원을 통한 현장형 봉사 형태로 ‘EBS 사회공헌 2.0 시대’를 열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 맞춤형 나눔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까지로 진화

EBS의 사회공헌은 날이 갈수록 진화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외부 연계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나눔 활동으로 사회공헌 역량에 대한 한계 극복까지 시도했다. ‘좋은 친구’ 프로젝트에 이어 ‘희망의 교실’ 등을 통해 ‘EBS 사회공헌 3.0 시대’로 성장·발전해 나갔다.

2013년 7월 23일, EBS는 한국구세군과 ‘낮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





1. EBS는 우리나라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 고부열전>, <다문화 - 사랑>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방송했다.
3. <좋은 친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희망의 교실' 사업. 2013년에는 파리바게뜨의 '케이크 교실' 행사가 진행되었다.

2. EBS는 2013년부터 한국구세군과 협약을 체결, 소외 지역에 '낮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경북 청송군 이촌리에 개관된 제1호 '낮은 도서관'
4. EBS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적극 진행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중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출연자의 스쿨어택 이벤트 현장

은 친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시도한 일이었다. '좋은 친구'는 여러 기관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공동연합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의 소통, 희망과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였다.

2013년 10월 14일, 'EBS 낮은 도서관' 1호점이 경북 청송군 이촌리에 개관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의 마을 주민과 학생 등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서·문화 공간을 조성한 첫 행보였다. 한국구세군을 비롯해, 롯데홈쇼핑의 후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재능기부가 이뤄졌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다량의 도서도 마련되었다.

다시 2013년 11월에는 NGO인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해 'EBS 낮은 도서관' 2호점이 네팔에 개관했다. 'EBS 꿈을 키워주는 바자회'의 수익금과 EBS 정승제 강사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인도 접경지인 쿤디(Kundi) 마을의 카나라학교(Kanara Lower Secondary School) 건물 2층에 들어섰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노예 제도 등으로 인해 소외된 극빈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좋은 친구'의 활동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졌다. 2013년 12월 28일, EBS는 '알바천국'과 함께 새로운 '좋은 친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해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교실'을 연 것이다.

'희망의 교실'에서는 '일과 직업 이야기'를 주제로 유익한 토크 콘서트가 펼쳐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다. 파리바게뜨의 '케이크 교실'을 비롯해, 장미재단의 '스포츠교실'까지 다양한 체험과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 20일, 의정부 금오중학교에서 '휴먼라이브러리 & 좋은 친구' 강연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2018년 6월 16일에는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2018 희망의 교실'을 열었다. 다시 2019년 5월에는 KT와 함께하는 '2019 EBS 희망의 교실'을 개최했다. 관내의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제 EBS는 사회공헌 4.0 시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콘텐츠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캠페인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EBS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14년 4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실에서 찾은 희망'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플래시몹(Flash Mob) 형태의 참여형 캠페인이었으며,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었다.

2019년부터는 '블러썸 청소년영상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해 청소년 행복



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영상공모전은 물론 포럼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지식 콘텐츠 제작 보급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EBS는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2010년에 EBS는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팀’을 신설했다. 각 부서 단위별로 실시 해온 사회공헌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전 조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2010년 7월 19일, 국내 방송사 최초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사이트(free.ebs.co.kr)’를 개설했다. 방송 콘텐츠에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학습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에 집중한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자막과 화면해설 방송은 EBS의 지상파TV와 수능 사이트인 EBSi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이트 개설을 통해 장애인용 재가공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2014년부터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카이브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능강의 자막 파일 제작’ 편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작 편수	1만 1,338편	1만 5,582편	8,990편	1만 653편	8,507편	7,528편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작 편수	8,364편	7,295편	6,372편	9,947편	8,885편	1만 557편

2014년부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EBS 장애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 일이었다. EBS 장애인 서비스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로 나눈 나이대별 콘텐츠를 구성했다.

‘시각장애 콘텐츠’에는 화면해설과 점역 교재를 보급했으며, ‘청각장애 콘텐츠’에는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강좌와 교육, 수어 평생교육 등을 담았다. ‘발달장애 콘텐츠’에는 지적 연령대를 구분해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아동 맞춤형 콘텐츠로 다시 제작해 선보였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EBS가 보유한 모든 플랫폼에 탑재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90편을 제작했으며, EBS 장애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유튜브에 ‘EBS 디딤돌 발달장애’라는 별도 채널도 개설했다. 쉽고 편하게 살

펴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재생 목록을 구성했다. 영상 제목에 시청 권장 지적 수준을 표기해 난이도에 맞는 영상을 쉽게 찾아보도록 배려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두리안 사이트 오픈**

2011년 7월 15일, EBS는 ‘두리안(durian.ebs.co.kr)’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 ‘교육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 무료 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교육나눔을 실천하려는 목적이었다. 두리안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배움터’, EBS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문화 나눔터’, 아이와 함께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 놀이터’, 나라별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 한국의 생활 정보와 외국인 민원 해결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 등의 메뉴로 구성되었다. 한편, 두리안은 2016년 11월 3일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확대·개편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 유형을 무료로 풀어 볼 수 있는 ‘TOPIK 알아보기’, 한국의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 ‘한국 알아가기’,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등을 인형극으로 만든 ‘몽몽 인형극장’ 등을 새로 선보였다.

**상생의 방송 생태계 조성**

EBS는 상생 협력에 힘을 쏟아 방송 생태계 조성 및 환경 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펼쳐왔다. 2011년 5월 11일, EBS는 협력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 원본 사용권 공유를 위한 ‘협력제작사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EBS가 프로그램의 모든 저작권을 가진 경우일지라도, 협력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 원본 사용권 일부를 공유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였다. 방송 및 비방송 영상을 해외 수출 및 부대사업 등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일이었다. 이는 독립PD\*의 창작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또한, EBS가 협력제작사로부터 기획안 공모를 받던 발주 방식도 바뀌었다. 협력제작사로부터 자유 주제로 기획안을 받아 당선된 제작사에게 제작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BS 내부는 물론 협력 제작사도 같이 경쟁력을 높여가자는 취지였다. 뒤이어 2011년 8월 22일, EBS는 ‘2011 EBS

\* 독립PD는 외주제작사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독립된 PD를 말한다.





1, 2. EBS는 이른 시기부터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앞장 섰다. 청각장애 및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공급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3. 2011년 7월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한글 교육사이트 두리안을 오픈했다.

4. EBS는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BS,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가을편성 기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 협력 일환으로 “2차 저작물 특약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관행을 깬 일이었다. 이제 협력제작사는 촬영 원본으로 제3의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직접 영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EBS는 2017년에 독립PD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해가 바뀌어 2018년 4월 19일, 이사회에 ‘EBS 혁신 전략 2022’가 보고되었다. 도출된 혁신과제 중 하나가 ‘협력·상생하는 EBS’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PD의 제작 투자를 확대했다. <다큐시네마>, <부모성적표> 등 주요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을 확대했으며, 프로그램 공모 및 관리 과정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꾸준히 외주제작을 진행했다. 외주제작사의 경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미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6차례 만남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의 제도화, 공모 제도의 활성화, 수익분배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EBS는 2021년 4월 20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한국독립PD협회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국내 방송사 최초로 개최했다. 이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참여자 수익배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공동 선언문에는 5개 조항이 담겼다. 먼저 EBS는 외주기획안 자유 공모를 통해 편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케이블TV와 IPTV 판매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조항은 창작자의 기여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협력제작사 자사가 촬영한 원본을 활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유튜브 수익은 협력제작사가 가져가도록 했다. 협력제작사가 외부 협찬을 유치할 경우에는 EBS가 가져가는 간접비를 10%로 낮추고, 제작비 및 인센티브 협찬 유치 금액의 90%를 협력제작사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익을 배분받은 협력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창작에 기여한 연출자, 작가 등 제작진과 수익을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선순환 구조 안착을 위한 내용이었다. 방송사와 협력제작사, 제작진이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 일이었다. 이렇게 ‘공동 선언’은 가장 진일보한 상생·협력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PART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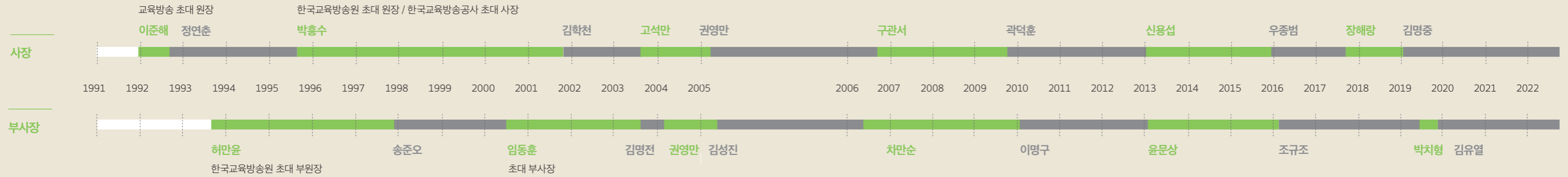
**EBS**  
Archive



# 임원 및 이사회

## 전·현직 임원 현황

공사창립 이전 :  
원장, 부원장  
공사창립 이후 :  
사장, 부사장



## 1기 ~ 현재 이사회 임기

### EBS 제1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의장	박홍수	2000.5.9 ~ 2001.10.21	사장
의장	김학천	2001.10.22 ~ 2003.7.10	사장

### EBS 제2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김세원	2003.9.9 ~ 2006.9.14	비상임

### EBS 제5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이춘호	2012.9.15 ~ 2015.9.14	비상임

### EBS 제6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서남수	2015.9.15 ~ 2018.9.14	비상임

### EBS 제3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성영소	2006.9.15 ~ 2009.9.14	비상임

### EBS 제4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이춘호	2009.9.15 ~ 2012.9.14	비상임

### EBS 제7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유시춘	2018.9.15 ~ 2021.9.14	비상임

### EBS 제8기 이사회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유시춘	2021.9.15 ~ 2024.9.14	비상임



**EBS**  
**기본**  
**방송순서**

**75학년도 1학기 (Radio)**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00		학 교 방 송 소 식					
10:05		1국어교실	2국어교실	3국어교실	4국어교실	5국어교실	6국어교실
10:20		전국사교실	5국사교실	6국사교실	전국사교실	5국사교실	6국사교실
10:30		저도덕교실	중도덕교실	고도덕교실	저도덕교실	중도덕교실	고도덕교실
10:45		6음악교실	1음악교실	2음악교실	3음악교실	4음악교실	5음악교실
11:00		저자연교실	중자연교실	고자연교실	저사회교실	중사회교실	고사회교실
11:15		( 전 학 년 ) 이 야 기 동 산					
11:30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11:45		중1영어교실	중2영어교실	중3영어교실	중1영어교실	중2영어교실	중3영어교실
12:00		학 교 방 송 소 식					
13:00		학 교 방 송 소 식					
13:05		6국사교실(제)	전국사교실(제)	5국사교실(제)	6국사교실(제)	전국사교실(제)	5국사교실(제)
13:15		고도덕교실(제)	저도덕교실(제)	중도덕교실(제)	고도덕교실(제)	저도덕교실(제)	중도덕교실(제)
13:30		5음악교실(제)	6음악교실(제)	1음악교실(제)	2음악교실(제)	3음악교실(제)	4음악교실(제)
13:45		교 사 의 시 간					
14:00		교 사 의 시 간					



### 2000년도 EBS TV 전반기 기본방송순서

2000. 2. 28 ~ 8. 27

시	분	일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6	30	자격증을 따시다					20	교양 한문	통일의 길	6	6
		공무원시험 대비 강좌	50	EBS TV TEPS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일과 잉글리시 (재)		40		
7	20	SURVIVAL ENGLISH 영어 취워오 (재)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TV 영어회화 (재)		비록고실	7	7	
	45	만화로 배워요 (재)		마지막 공룡 연보 (재)		요술쟁이 지나 아저씨 (재)		#철소년 크로X2	30		
8	10	용용나라로 떠나요 (재)					곰돌이와 비키의 모험 (재)			8	8
	30	과학 놀이터 (재)		#만들어 볼까요 (재)		빙귀대장 풍봉이 (재)		마지막 공룡 연보(재X2)	20		
9	10	EBS문화센터					건강 클리닉		EBS 장학퀴즈	10	9
	30	특선 다큐멘터리 (재)	팔 뮤직스타 (재)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 (재)	2차대전비사 (재)	미(美)의 세계 (재)	20	육아 일기		10	
10	30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유아교육교사연수		초등교육교사연수		학교현장보고	10	10	
	35	클릭! 쿨 사이트		#발명 Q 원리를 찾아라		#발명 Q 원리를 찾아라		EBS 특선 바라이어티 (재)	50		
11		김학 동물나라 (재)		#세계의 문호		#세계의 문호		직업의 세계	30	11	
12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EBS 특선 바라이어티	00	12	
13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EBS 예술의 경장 (재)	10	13	
14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미레도크 (재)	00	14	
15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단편영화극장 (재)	20	15	
16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EBS 문화센터 (재)	20	16	
17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응용나라로 떠나요 (외화)	45	17	
	55	과학 놀이터		#만들어 볼까요		빙귀대장 풍봉이		10대의 도전 우리가 말한다	30		
18		응원부문 : 변경프로그램		#표시 : 전연 재촬영		#표시 : 전연 재촬영		미루의 요술글방	30	18	
	30	#Billy the Bat		#What's up Doogie?		45		#철소년 드라마 네모를 펼쳐라	30		
	50	슬픈 초록 수비대		난 할 수 있어요		클로부스의 달걀		00	00		
	35	컴퓨터는 내친구		컴퓨터는 내친구		컴퓨터는 내친구		40	40		
	55	김학 동물나라 (외화)		#위시문의 이야기 보따리 (외화)		#위시문의 이야기 보따리 (외화)		50	50		
19		인터넷이 생활을 바꾼다		#위시문의 이야기 보따리 (외화)		#위시문의 이야기 보따리 (외화)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재)	20	19	
	20	EBS 세상보기					효도우미 0700		다류 이 사람	20	
20		특선 다큐멘터리		팔 뮤직스타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		2차대전비사	미(美)의 세계	55	20
	50	EBS 교육문화뉴스					#다큐멘터리의 세계		건강 클리닉 (재)	30	
21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중국어 회화		생방송 낭성토론	10	21	
	20	#프랑스어 회화		#독일어 회화		#독일어 회화		알파 잉글리시	40		
	40	SURVIVAL ENGLISH 영어 취워오		TV 영어회화		TV 영어회화		시네마 천국 (재)	50		
22		하나뿐인 지구		컴퓨터 정보 공상		다류 이 사람 (재)		EBS 리모트	35	22	
	40	EBS 세상보기 (재)					시네마 천국		미래도크 2000	35	
23		클릭! 쿨 사이트 (재)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세계의 문화	10	23	
	20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EBS 예술의 경장	20	
	25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EBS 예술의 경장	25	
24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의 전통문화		단편영화극장	20	24	
	15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단편영화극장	15	
1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단편영화극장	10	1

### 2000년도 EBS FM 기본방송순서

2000. 2. 28 ~ 8. 27

시	분	일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라디오 방송대학								5	5
6		라디오 방송대학								6	6
7		토익 강좌		트럼프 강좌		트럼프 강좌		중국어 회화(재)	7	7	
	30	초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30		
	45	초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45		
8		모닝 스페셜(생방송)								30	8
9		EBS 정보광장 1부 (생방송)								30	9
	57	정운영의 3분 칼럼									
10		EBS 정보광장 2부 (생방송)									10
	58	바른 말 고운 말									
11		부모의 시간 (생방송)									11
12		일본어 회화									12
	15	중국어 회화									
	30	독일어 회화									
	45	프랑스어 회화									
13		토익 강좌(재)		트럼프 강좌(재)		트럼프 강좌(재)		라디오 TEPS	30	13	
	30	초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사람의 한가죽	30		
	45	초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사람의 한가죽	45		
14		우리가락 노랫가락 (생방송)									14
	58	바른 말 고운 말									
15		일본어 회화 (생방송)									15
	30	일본어 회화 (생방송)									
16		오후의 음악 선문 (생방송)									16
17		EBS 교양강좌								40	17
	30	EBS 교양강좌								30	
18		이브닝 스페셜 (생방송)								20	18
	35	이브닝 스페셜 (생방송)								35	
19		라디오 방송 대학									19
20		라디오 방송 대학									20
	50	라디오 방송 대학									
21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중학영어듣기 (중합)	40	21	
	20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중학영어듣기 (중합)	20		
	40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		중학영어듣기 (중합)	40		
22		중학 영어듣기		고교 영어듣기		고교 국어듣기		청소년 상담실(생)	20	22	
	20	중학 영어듣기		고교 영어듣기		고교 국어듣기		청소년 상담실(생)	20		
23		신세대 매거진(생방송)									23
	20	신세대 매거진(생방송)									
24		라디오 방송대학									24
	10	라디오 방송대학									



## EBS 1TV 2020 봄 기본방송순서

2020.03.30~

시분	월	화	수	목	금
5	왕초보영어				
30	지식의 기쁨2(전주재방)			#지식의 기쁨	
6	한국기행(전주재방)				
20	세계테마기행(전주재방)				
7	#꼬마버스 타요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애코와 친구들		
30	#뽀롱뽀롱 뽀로로		#뽀로로와 노래해요		#엄마까투리
45	개구쟁이 스머프				
8	딩동댕유치원 해오와 해오(10) 통합본				
20	출동! 슈퍼왕스		띠띠뽀띠뽀		
30	방귀대장 뽀뽀이		뽀뽀이 뮤직박스/노래가차 땀땀		
45	픽시		레인보우 루비		
9	만들어 볼까요		또깨비 가족		
15	물랑		#명탐정 피트 / #다큐동화달팽이		
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전주재방)	극한직업 (전주재방)	다문화 고부열전 / 싱어즈 (전주재방)	건축탐구-집 (전주재방)	재무의 여왕(재)
50	한국기행(전주재방)(재)				
11	최고의 요리비결				
20	세계테마기행(전주재방)(재)				
12	EBS 정오뉴스				
10	미니다큐 EBS 비즈니스 리뷰(전주재방)			문화유산 코리아(전주재방)	
25	#세상의 모든 법칙				
30	복&레처				
13	다큐프라임 (전주재방)		명의 (전주재방)	사물의 눈 (전주재방)	
14	극한의 땅/바닷가 사람들 (전주재방)	미래교육플러스	EBS 초대석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재방)	공감 플러스
40	#아기동물 귀여워				
15	해오와 해오				
10	#꼬마버스 타요(재)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애코와 친구들(재)		
40	#뽀롱뽀롱 뽀로로(재)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엄마까투리(재)
55	만들어 볼까요(재)		또깨비가족(재)		
16	픽시(재)		레인보우 루비(재)		
10	방귀대장 뽀뽀이(재)		뽀뽀이 뮤직박스(재)		
40	딩동댕유치원(재)				

시분	토	일	분	시
5	K-pop 한국어			5
30	고양이를 부탁해 (전주재방)			나눔 0700(재)
6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 -영어하기 좋은 날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
7	#뽀롱뽀롱 뽀로로(종합)			#뽀로로와 노래해요(종합)
30	방귀대장 뽀뽀이(종합)			뽀뽀이 뮤직박스(종합)
8	페파 피그(종합)		픽시(종합)	
30	모여라 땀땀		모여라 땀땀(전주재방)	
9	출동!슈퍼왕스(종합)			띠띠뽀띠뽀(종합)
30	만들어볼까요(종합)			또깨비 가족(종합)
10	허풍선이 음악쇼(종합)			레인보우 루비(종합)
30	세미와 매직큐브(종합)			장학퀴즈
11	월	미니다큐 EBS 비즈니스 리뷰 (재)		월
12	화	미니다큐 EBS 비즈니스 리뷰 (재)		화
30	수	미니다큐 EBS 비즈니스 리뷰 (재)		수
13	목	자이언트 팽TV(종합)		목
30	금	자이언트 팽TV(종합)		금
14	나눔 0700			일요시네마
15	#글로벌 아빠찾아 심만리			일요시네마
30	재무의 여왕(삼)			일요시네마
40	고양이를 부탁해(재)			#다큐 오늘
16	글로벌 특선 다큐			

시분	월	화	수	목	금
17	EBS 뉴스				
20	출동! 슈퍼왕스(재)		띠띠뽀띠뽀(재)		
30	물랑(재)		#명탐정 피트 / #다큐동화달팽이(재)		
45	세미와 매직큐브		허풍선이 음악쇼		
18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9	형사 가제트/로빈후드			말괄량이 삐삐/빨강머리앤	
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0	자이언트 팽TV				
20	재무의 여왕	건축탐구-집(전주재방) (재) /스페셜 프로젝트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전주재방)(재)	극한직업 (전주재방)(재)	다문화 고부열전 / 싱어즈 (전주재방)(재)
5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22	다큐프라임			다큐 사물의 눈	명의
40	극한의 땅/바닷가 사람들	건축탐구-집	극한직업	다문화 고부열전 / 싱어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3	미니다큐 EBS 비즈니스 리뷰				
45	지식의 기쁨2			고양이를 부탁해	
24	지식채널e			EBS 스페이스 공감	
45	#지식채널e			EBS 스페이스 공감	
1	지식채널e(전주재방)			EIDF 걸작선 /다큐시네마	
15	지식채널e(전주재방)			EIDF 걸작선 /다큐시네마	
45	지식채널e(전주재방)			EIDF 걸작선 /다큐시네마	
2					

시분	토	일	분	시
17	극한의 땅(재) /바닷가 사람들(재)	명의(재)	17	
50	극한의 땅(재) /바닷가 사람들(재)	명의(재)	50	
18	건축탐구-집(재)	세계테마기행 (재)	18	
40	건축탐구-집(재)	세계테마기행 (재)	18	
19	다큐 사물의 눈(재)	세계테마기행 (재)	19	
40	다큐 사물의 눈(재)	세계테마기행 (재)	19	
20	한국기행 (재)	세계테마기행 (재)	20	
21	한국기행 (재)	세계테마기행 (재)	21	
10	극한직업(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10	
22	다큐프라임 (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22	
50	다큐프라임 (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22	
23	다큐프라임 (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23	
40	다큐프라임 (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23	
24	다큐프라임 (재)	다문화 고부열전(재) / 싱어즈(재)	24	
1	세계의 명화	한국영화특선	1	
10	세계의 명화	한국영화특선	1	
2				



## EBS 2TV 2020 봄 기본방송순서

2020.03.30~

시분	월	화	수	목	금
6	#EBSe 생활영어(전주재방)				
30	#EBSe 생활영어				
7	왕초보 영어(전주재방)				
30	왕초보 영어				
8	Sesame Street / #Sesame Street				
30	매일 10분 영어 - 이현석의 정면돌파 스피킹				
40	매일 10분 영어 - 지나킴의 고고 리스닝				
50	매일 10분 영어 -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9	#최고대 호기심 딱지		최고대 호기심 딱지		
15	#우리 몸 X파일				
30	에디슨 /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				
45	픽시 / 만들어볼까요				
10	Epic Earth / Xploration : Awesome Planet				
30	#영동남매 요리조리쇼				
45	#과학할고양				
11	#와글와글 미술관		워든지 뮤직박스(전주재방)		
30	#미술탐험대		워든지 뮤직박스		
45	#아옹! 클래식		#두근두근 방방		
12	방귀대장 뽕뽕이(전주재방)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전주재방)		
15	방귀대장 뽕뽕이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		
30	예술교육 프로젝트 / 허풍선이 음악쇼 / #악동클럽 클래식을 부탁해				
13	#소프트웨어야 놀자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2		
20	#명령이다! 비트		#비버와 함께 떠나는 컴퓨터 과학		
30	이슈 zone				
14	#즐거운 수학 EBS MATH				
30	#세미와 매직큐브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		
45	세미와 매직큐브 2				

시분	토	일	분	시
6	#EBSe 생활영어(재)			
30	#EBSe 생활영어(재)			
7	왕초보 영어(재)			
30	왕초보 영어(재)			
8	#English 서바이벌(전주재방)		#English 서바이벌	
30	매일 10분 영어 - 이현석의 정면돌파 스피킹(선별재방)			
40	매일 10분 영어 - 지나킴의 고고 리스닝(선별재방)			
50	매일 10분 영어 -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선별재방)			
9	#최고대 호기심 딱지(삼)		최고대 호기심 딱지(삼)	
15	#우리 몸 X파일(삼)		#우리 몸 X파일(삼)	
30	우리 몸 X파일(삼)			
10	Epic Earth / Xploration : Awesome Planet			
15	#영동남매 요리조리쇼			
45	#과학할고양			
11	#와글와글 미술관		워든지 뮤직박스(삼)	
15	#미술탐험대		워든지 뮤직박스	
45	#아옹! 클래식		#두근두근 방방	
12	방귀대장 뽕뽕이(삼)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삼)	
15	방귀대장 뽕뽕이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	
45	예술교육 프로젝트 / 허풍선이 음악쇼 / #악동클럽 클래식을 부탁해			
13	#사이언스타Q(삼) / #창의가 반짝(삼) / #두근두근 방방(삼)		#사이언스타Q(삼) / #창의가 반짝(삼) / #두근두근 방방(삼)	
15	#우리 몸 X파일(삼)		#우리 몸 X파일(삼)	
45	워든지 뮤직박스(삼)		워든지 뮤직박스(삼)	
14	#미술탐험대(삼)			
15	#아옹! 클래식(삼)			
30	방귀대장 뽕뽕이(삼)			
45	방귀대장 뽕뽕이(삼)			

시분	월	화	수	목	금
15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15	#우리 몸 X파일(재)				
30	에디슨(재) /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재)		#사이언스타Q(재) / #창의가 반짝(재) / #두근두근 방방(재)		
45	픽시(재) / 만들어볼까요(재)				
16	#영동남매 요리조리쇼(재)				
15	#과학할고양(재)				
30	Epic Earth(재) / Xploration : Awesome Planet(재)				
17	#와글와글 미술관(재)		워든지 뮤직박스(전주재방)(재)		
30	#미술탐험대(재)		워든지 뮤직박스(재)		
45	#아옹! 클래식(재)		#두근두근 방방(전주재방)(재)		
18	방귀대장 뽕뽕이(전주재방)(재)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전주재방)(재)		
15	방귀대장 뽕뽕이(재)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재)		
30	예술교육 프로젝트(재) / 허풍선이 음악쇼(재) / #악동클럽 클래식을 부탁해(재)				
19	#소프트웨어야 놀자(재)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2(재)		
20	#명령이다! 비트(재)		#비버와 함께 떠나는 컴퓨터 과학(재)		
30	이슈 zone(재)				
20	#즐거운 수학 EBS MATH(재)				
30	#세미와 매직큐브(재)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재)		
45	세미와 매직큐브(재)				
21	극한의 땅 / 다크 사물의 눈	건축탐구 집	재무의 여왕	공감 플러스	
50	지식의 기쁨2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	
22	북 & 렉처(1)				
50	북 & 렉처(2)				
23	북 & 렉처(3)				
50	고전읽기				
24	북 & 렉처(1)(재)				
50	북 & 렉처(2)(재)				
25	북 & 렉처(2)(재)				
20					
26					

시분	토	일	분	시
15	#두근두근 방방(삼)		방귀대장 뽕뽕이(삼)	
15	#예술교육다큐-아티스트(삼)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삼)	
30	#세미와 매직큐브(삼)		#세미와 매직큐브(삼)	
45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2(삼)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2(삼)	
16	#명령이다! 비트(삼)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5	과학 다크멘터리		미래교육 플러스	
30	EBS 초대석		극한의 땅(재) / 다크 사물의 눈(재)	
40	재무의 여왕(재)		재무의 여왕(삼)	
30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재)		고양이를 부탁해	
22	진로창업교육 1		진로창업교육 2	
20	지식의 기쁨2(재)		지식의 기쁨2(재)	
50	고전읽기(재)		북 & 렉처(재)	
23				
20				
50				
24				
20				
50				
25				
20				
50				
26				



### EBS FM 2020 봄 기본방송순서

2020.03.3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10	포켓 중국어						EBS 초급 인도네시아어	5	5
	30	야사시이(やさしい[易しい]) 일본어		타노시이(たのしい[楽しい]) 일본어						
	50	생생(生生) 중국어		고고(高高) 중국어		EBS 초급 미얀마어				
6	권주현의 진짜 영국 영어									
	20	Easy writing						EBS 초급 캄보디아어	6	
	40	귀가 트이는 영어						EBS 초급 태국어	30	
7	입이 트이는 영어									
	20	Start English (영어회화 레벨1)						EBS 초급 베트남어	7	
	40	Easy English (영어회화 레벨2)						오디오 지식채널e(종합)	30	
		Power English (영어회화 레벨3)								
8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9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10	북 & 럭셔리									
11	윤고은의 EBS 북 카페									
12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3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4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5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16	오천만의 재무상담										16
17	오디오 지식채널e										17
18	오디오 천국										18
19	Start English (영어회화 레벨1)(재)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19	
	20	Easy English (영어회화 레벨2)(재)								30	
	40	Power English (영어회화 레벨3)(재)								20	
20	20	입이 트이는 영어(재)								40	
	40	귀가 트이는 영어(재)						21			
		Easy writing(재)						22			
21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재)										21
22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재)										22
23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재)										23
24	20	윤고은의 EBS 북 카페(재)						아이들이 만난 문학			#
	40										#
1	20										#
	40							#			







###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2000.6)



### EBS 조직표 (2020.12.31.)





연 표

1951  
2022

1950-60

- 1951. 06. 18 <라디오 학교> 방송 개시(문교부·KBS)
- 1962. 08. 19 <라디오 학교> 방송 중단
- 1963. 03. 11 <라디오 학교> 방송 재개(중앙시청각교육원·KBS)
- 1969. 05. 05 TV 학교방송 시작

1970

- 1972. 08. 30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 1972. 12.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T-COM 사업 가계약 체결
- 1973. 03. 14 교육방송 설치 근거 법제화(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공포)
- 1973. 04. 09 TV 학교방송 중단(중앙시청각교육원)
- 1974. 03. 18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라디오) 제작방송
- 1974. 03. 28 라디오 학교방송 인수(한국교육개발원)
- 1974. 04. 01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 방송사업 KEDI로 이관,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 업무 시작
- 1974. 05. 14 교육방송 청사(우면동) 기공식
- 1974. 11. 18 우면동 청사 뒷산에 송신철탑(57m) 건립
- 1975. 01. 16 교육방송 무선국 가허가 취득(전파관리법 제7조 의거)
- 1975. 03. 22 시험전파 발사 허가 취득
- 1975. 08. 31 교육방송 청사 준공
- 1975. 09. 27 교육방송 우면동 청사로 이전
- 1975. 12. UHF TV 2개 채널 시험 전파 발사(지구방식에 의한 송신체계, 컬러방송)
- 1975. 12. 12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 프로그램 수신을 통한 공개수업 실시(안양서국교)
- 1977. 02. 기국 송신체계 취소(교육방송 송신망의 지상방식 전환 결정)
- 1978. 07. 26 교육방송 기본편성은 교육방송심의위원회가, 세부편성 및 제작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송출은 KBS로 하는 3원화 체제, 국무총리 지시각서

1980

- 1980. 09. 01 <TV고교 교육방송> 제작으로 TV방송 개시(한국교육개발원)
- 1981. 02. 02 교육전문채널 KBS 제3TV(UHF)와 교육라디오 (FM) 신설, 컬러 TV방송 실시
- 1985. 09. 우면동 방송동 증축 공사 준공
- 1989. 04. 17 <TV고교가정학습> 방송 실시

1990

- 1990. 12. 27 교육방송(EBS) 개국(한국교육개발원 부설), EBS TV(호출부호 HLQK-TV), EBS FM(호출부호 HLQL-FM) 등 두 개의 독립 교육 채널 운영, 김학천 소장 직무대리 취임
- 1991. 10. 30 운영 규정 개정(소장 및 부소장을 원장및 부원장으로 직명 개칭)
- 1991. 11. 01 교육방송 자체 송출 개시
- 1991. 12. 03 이준해 교육방송 초대 원장 취임
- 1992. 07. 교육방송 강령 제정 공포
- 1992. 09. 09 정연춘 교육방송 2대 원장 취임
- 1995. 02. EBS, ABU 가입으로 국제무대 진출
- 1995. 03. 20 교육방송 별관, 해동빌딩으로 이전
- 1995. 09. 16 박흥수 교육방송 3대 원장 취임
- 1996. 12. 17 한국교육방송원법 국회본회의 통과
- 1997. 01. 13 한국교육방송원법 공포(법률 제5273호)
- 1997. 03. 03 TV 오전방송 개시
- 1997. 03. 12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 1997. 08. 25 위성방송(위성 1, 2TV) 개국
- 1998. 12. 01 교육방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998. 12. 07 위성TV 주조정실(디지털) 완공
- 1999. 12. 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 통과



## 2000

- 2000. 0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법률 제6136호)
- 2000. 05. 09 박홍수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 취임
- 2000. 06. 01 한국교육방송공사 첫 이사회 개최
- 2000. 06. 22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인 설립 등기
- 2000. 12. 22 EBS 인터넷 방송 [www.ebs.co.kr](http://www.ebs.co.kr) 개국
- 2001. 10. 22 김학천 한국교육방송공사 2대 사장 취임
- 2002. 04. 1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옥 매입(강남구 도곡동 소재)
- 2003. 07. 23 고석만 한국교육방송공사 3대 사장 취임
- 2003. 08.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6970호)
- 2004. 04. 01 EBS 인터넷 수능강의 [www.ebsi.co.kr](http://www.ebsi.co.kr) 실시
- 2004. 04. 01 라이브 상설무대 EBS 스페이스 개관
- 2004. 08. 30 제1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EIDF) 개최
- 2005. 03. 16 권영만 한국교육방송공사 4대 사장 취임
- 2005. 07. 01 EBSu 위성 DMB 방송 실시
- 2005. 12. 01 낮 방송시간 확대 실시
- 2006. 05. 01 EBS America 개국
- 2006. 07. 24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 반디서비스 실시
- 2006. 07. 27 외국어학습전문사이트 EBSlang [www.ebslang.co.kr](http://www.ebslang.co.kr) 개시
- 2006. 09. 05 EBS 위성 멀티 송출 시스템 구축
- 2006. 09. 19 구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5대 사장 취임
- 2007. 04. 06 영어교육전문채널(위성TV) 개국
- 2007. 11. 03 EBS PLUS1-PLUS2-English 공약채널로 선정
- 2008. 01. 16 경기도와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MOU 체결
- 2008. 10. 지상파 재허가 심사평가 결과 1위 획득
- 2009. 10. 15 광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6대 사장 취임

## 2010

- 2010. 03. 10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BS-교과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MOU 체결
- 2010. 05. 11 광덕훈 사장,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선임
- 2010. 07. 19 국내 방송사상 최초,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수화 서비스 개시
- 2010. 10. 01 EBS America 미국 최대 위성방송 디렉TV 진출
- 2011. 05. 방송사 최초 EBS EDRB(클립형 콘텐츠 DB) 시범 서비스 개통
- 2011. 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두리안(durian)' 사이트 [durian.ebs.co.kr](http://durian.ebs.co.kr) 오픈

## 2020

- 2011. 06. EBS 초 중학 인터넷 사이트 개설
- 2012. 07. 02 EBSU, 위성DMB 전용채널에서 유아어린이 교육 채널로 개편
- 2012. 12. 05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 7대 사장 취임
- 2013. 02.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 변경 의결
- 2013. 03. 14 EBSMATH(초, 중등 수학전문) 사이트 개통
- 2013. 11. EBS 디지털 통합사옥 기본 설계 완료
- 2014. 08. 디지털 통합사옥 착공
- 2015. 02.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 EBS 2TV 개국 및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
- 2015. 11.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 8대 사장 취임
- 2016. 01. EBS 모델을 통한 베트남 교육채널 'VTV7' 개국
- 2017. 08. 14 EBS 일산사옥 이전 및 송출 개시
- 2017. 09. 11 장해량 한국교육방송공사 9대 사장 취임
- 2018. 01. 03 제2창사(EBS RESTART) 선언
- 2018. 01. 29 EBS 모바일 콘텐츠 브랜드 '모모(MOMOe)' 유튜브 채널 오픈
- 2018. 10. 12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숲) 베타 오픈
- 2019. 01. 31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숲) 정식 오픈
- 2019. 03. 11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10대 사장 취임
- 2019. 04. 02 <자이언트 팽TV> 첫 방송
- 2019. 09. <EBS 제작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 2020. 02. 21 <코로나19대응교육지원 비상대책단> 가동
- 2020. 03. 02 원격교육공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 오픈
- 2020. 03. 09 <EBS 라이브 특강> 방송 개시
- 2020. 04. 06 초중학 학습용 'EBS러닝' 채널 신규 출범
- 2020. 12. 08 EBS 원격교육시스템 법제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 교육방송 46년, EBS 공사창립 20년사

## 사사 편찬 위원회

<b>위원장</b>	김유열 부사장
<b>위원</b>	남선숙 방송제작본부장 김광범 학교교육본부장 서상일 융합기술본부장 성기호 스마트사업센터장 김광호 정책기획센터장 류재호 콘텐츠기획센터장 정봉식 경영지원센터장 고승우 영상아트센터장

## 사사 편찬 실무위원회

<b>위원</b>	오정호 방송제작기획부장 이상호 미래교육기획부장 김호식 제작기술부장 김동열 편성운영부장 김기홍 인사부장 최원석 공간디자인부장 이지연 홍보부장
<b>사진</b>	장종호 홍보부
<b>진행</b>	박태규 홍보부

## 함께 만든 사람들

<b>집필</b>	이경석
<b>기획</b>	서병훈
<b>진행</b>	강한기
<b>미술</b>	김종규
<b>사진</b>	김종현

<b>펴낸날</b>	2022년 2월 28일
<b>펴낸이</b>	김명중
<b>펴낸곳</b>	한국교육방송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a href="http://www.ebs.co.kr">www.ebs.co.kr</a> 1588-1580

**총괄제작** (주)코스토리랩 02-2631-0545  
[www.co-story.co.kr](http://www.co-story.co.kr)

**디자인** 아티팩트 주식회사  
**사진** 아이레벨 스튜디오

이 책은 상업용으로 출간되지 않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글, 사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